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20. 11





# 제출문

##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태범

###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공동연구	김창수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
	진대현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산학협력교수)
	권지혁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강사)
	임지혜 (인하대학교 문화경영심리연구소 연구원)
	곽민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구원)
연구보조	김태양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사무원)





# 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수행체계 .....	7

## 제2장 인천 민주화운동 의의 및 기념공간의 필요성

제1절.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 .....	11
제2절.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 .....	15
제3절. 소결 .....	25

##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기념공간의 개념 및 유형 .....	29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	35
제3절. 국외 유사사례 분석 .....	88

## 제4장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지 검토 및 제안

제1절. 부지 선정기준 및 과정 .....	139
제2절. 부지 검토 및 선정 .....	141
제3절. 검토결과 .....	161

## 제5장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기본계획

제1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 방향 .....	165
제2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조성형태 .....	176
제3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비용 .....	194

## 제6장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운영기본계획

제1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기본 운영 방향 .....	199
제2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 및 조직구성(안) .....	208
제3절. 운영방식 검토 .....	215

## 제7장 종합검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검토 .....	227
제2절. 정책제언 .....	245

## 부록

부록 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정 의견수렴 설문지 .....	263
부록 2. 유관 기관 관계자 회의일정 .....	265

## - 표 목차 -

<표 1> 시대별 인천의 민주화운동 .....	11
<표 2>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연도별 주요 활동내역 .....	24
<표 3> Memorial과 Commemorative 용어 비교 .....	29
<표 4> 기념장소 도입 조형물의 종류 .....	34
<표 5>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요 .....	35
<표 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추진 경과 및 연혁 .....	36
<표 7>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부서와 주요업무 .....	39
<표 8>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예산 .....	39
<표 9>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층별 배치도 .....	40
<표 10>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	44
<표 11> 부산민주공원 개요 .....	46
<표 12> 부산민주공원 건립과정 .....	47
<표 13> 부산민주공원 부서와 주요업무 .....	49
<표 14> 부산민주공원 운영예산 .....	49
<표 15> 부산민주공원 “찾아가는 민주공원” 키트 .....	58
<표 1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개요 .....	59
<표 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건립과정 및 연혁 .....	60
<표 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서와 주요업무 .....	62
<표 19>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예산 .....	62
<표 2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층 수장고 기능 .....	64
<표 2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층 전시실 전시 안내 .....	65
<표 2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층 전시실 전시 안내 .....	66
<표 2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전시실 전시 안내 .....	67
<표 24> 민주인권기념관 개요 .....	70
<표 25>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정 및 연혁 .....	72
<표 26> 민주인권기념관 운영예산(안) .....	75
<표 27> 국내 사례 시사점 정리 .....	86
<표 28> 중국 남경대학살 기념관 개요 .....	88
<표 29> 중국 남경대학살기념관 연혁 .....	89
<표 30>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개요 .....	98
<표 31>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연혁 .....	99
<표 32> 독일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개요 .....	109

<표 33> 독일 다하우 강제 수용소 연혁 .....	111
<표 34>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개요 .....	123
<표 35> 미국 워싱턴 홀로코스트 연혁 .....	124
<표 36> 국외 유사사례 시사점 정리 .....	135
<표 3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정기준 .....	139
<표 38> 최종 검토 후보지 .....	153
<표 39>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관련 1-3차 설문조사 종합결과 .....	154
<표 40> 후보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 순위(1차 설문결과) .....	155
<표 4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부지 순위(1차 설문결과) .....	156
<표 42> 후보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 순위(2차 설문결과) .....	157
<표 4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부지 순위(2차 설문결과) .....	158
<표 44>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호도(3차 설문결과) .....	159
<표 4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관리기관 검토의견 .....	162
<표 46> 인천5·3민주항쟁 이항대립 .....	166
<표 47> 인천5·3민주항쟁 시간적 주요사건 .....	167
<표 48> 근대박물관학과 신박물관학의 비교 .....	170
<표 49> 박물관과 기념관의 변화상 .....	171
<표 50> 박물관의 공간 기능에 따른 분류 .....	180
<표 5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세부공간 .....	181
<표 5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시설면적 .....	192
<표 53>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인천광역시) .....	193
<표 54> 2016~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비교 .....	194
<표 5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공사비용 .....	195
<표 56> 전시실 프로그램 예시 .....	203
<표 57>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	204
<표 58>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료수집 및 이용현황 .....	205
<표 59> 사료실 연계 협력 프로그램 운영(안) .....	207
<표 60> 인천민주화운동 관련 주요사업 .....	208
<표 61>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인력구성 비교 .....	213
<표 6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및 타 기념시설 인력 현황 .....	213
<표 63> 정부관점에 따른 유형 .....	216
<표 64> 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	224
<표 6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연간 예산(안) .....	227
<표 6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인건비(안) .....	228
<표 67> 2020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건비 .....	228

<표 68> 기념시설별 예산 현황 .....	228
<표 69>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현황 .....	229
<표 70> 인천시 중기재정계획 .....	232
<표 71> 투자심사 대상 및 심사기관 기준 .....	233
<표 72> 신축 건립 절차 .....	234
<표 73> 리모델링 추진일정 .....	235
<표 74> 박물관 건립 시 사전 점검사항 .....	236
<표 7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	245
<표 7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관련 1-3차 설문조사 종합결과	246
<표 77> 국외기관의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	250

## - 그림 목차 -

[그림 1] 연구 흐름도 .....	8
[그림 2] 동양방직 여공(좌),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우) .....	12
[그림 3] 인천5·3민주항쟁 당시 모습 (좌, 우) .....	13
[그림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그림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16
[그림 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기자회견 .....	17
[그림 7]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조직도 .....	19
[그림 8] 제28주년 인천5·3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	19
[그림 9]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개소식 .....	20
[그림 10]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출범식 .....	22
[그림 1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조직도 .....	23
[그림 12]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외부(좌)와 내부(우) .....	31
[그림 13] 런던 트라팔가 광장 전경(좌)와 넬슨 제독 기념탑(우) .....	32
[그림 14] 5·18 기념공원 대동광장(좌), 추모공간(중), 오월대(우) .....	32
[그림 15]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좌)와 우현 고유섭선생 동상(우) .....	33
[그림 1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위치도 .....	37
[그림 17]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 .....	38
[그림 18] 2·28 기념회관 1층 전시실 안내도 .....	42
[그림 19]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입구 조형물 .....	43
[그림 20] 2·28기념회관 상설전시 콘텐츠 .....	43
[그림 21] 2·28기념회관 특별 전시 ‘그림책 원화’ .....	43
[그림 22] 2·28 민주운동 기념식 및 특별사진전 포스터 .....	45
[그림 23] 2·28 기념회관 학생연계사업 글짓기/그림 공모전 .....	45
[그림 24] ‘2·28체 폰트’ 라이선스 .....	45
[그림 25] 부산민주공원 위치도 .....	48
[그림 26] 조직도 .....	49
[그림 27] 부산민주공원 조감도 .....	50
[그림 28]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1층 공연 공간 .....	51
[그림 29]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2층 상설전시실 .....	51
[그림 30]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기획전시실 .....	52
[그림 31]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민주주의자료보존실 .....	52
[그림 32] 부산민주공원 장승터와 야외극장 .....	53



[그림 33] 부산민주공원 추모조형물과 민주횃불 .....	53
[그림 34] 부산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 내부 사진 .....	54
[그림 35] 부산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 전시작품 및 참여마당 .....	54
[그림 36] 부산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 특별전시 .....	55
[그림 37] 부산민주공원 민주주의 아카이브 .....	56
[그림 38]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	56
[그림 39] 부산민주공원 민주시민상과 추모제 .....	57
[그림 40] 부산민주공원 “찾아가는 민주공원” 키트 .....	58
[그림 4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위치도 .....	61
[그림 4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직도 .....	62
[그림 4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경 .....	63
[그림 44] 5·18민주화운동기록관 4층 열람실 내부 .....	63
[그림 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주교집무실과 세미나실 .....	64
[그림 4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층 전시내용 .....	65
[그림 4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층 전시내용 .....	66
[그림 48]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전시내용 .....	67
[그림 49]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체험프로그램 .....	68
[그림 5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온라인 전시관 .....	69
[그림 51] 민주인권기념관 위치도 .....	73
[그림 52] 민주인권기념관 조직도 1안 .....	74
[그림 53] 민주인권기념관 조직도 2안 .....	74
[그림 54] 민주인권기념관 조직도 3안 .....	75
[그림 55]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 건물 위치도 .....	76
[그림 56]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 전경 .....	76
[그림 57] 분실동 지상 1층 공간 .....	77
[그림 58] 분실동 지상 2층 공간 .....	77
[그림 59] 분실동 지상 3층 공간 .....	78
[그림 60] 분실동 지상 4층 공간 .....	78
[그림 61] 분실동 지상 5층과 7층 공간 .....	79
[그림 62] 분실동 옥탑층 기계실과 물탱크실 정면 .....	79
[그림 63] AMD동 지상 2층 공간 .....	80
[그림 64] 부속동 지상 2층 식당 및 주방 .....	80
[그림 65]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잠금해제> .....	81
[그림 66]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끝없는 여지> .....	81
[그림 67] 옛 대공분실(좌측) 및 신축되는 민주인권기념관(우측) 단면계획 .....	82

[그림 68] 신축되는 민주인권기념관 자유광장 및 치유의 길(좌측) .....	82
[그림 69] 신축되는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공간 .....	83
[그림 70] 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콘텐츠 .....	83
[그림 71] 민주인권기념관 올레길 프로그램과 해설사 양성과정 .....	84
[그림 72] 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전시관 .....	85
[그림 73]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과 박종철 열사 추모제 .....	85
[그림 74] 남경대학살 기념관 위치 .....	90
[그림 75] 남경대학살 기념관 전경 .....	90
[그림 76] 남경대학살 기념관 전시관 공간 구성 .....	92
[그림 77] 남경대학살 기념관 전체 공간 .....	93
[그림 78] 남경대학살 기념관 금릉집난 상징조형 공간 .....	93
[그림 79] 남경대학살 기념관 만인갱과 기념부조벽 .....	94
[그림 80] 남경대학살 기념관 평화의 종과 표식비 .....	94
[그림 81] 남경대학살 기념관 어머니상과 동판조각로 .....	95
[그림 82] 남경대학살 기념관 통곡의 벽 .....	95
[그림 83] 남경대학살 기념관 실내전시장 .....	96
[그림 84] 남경대학살 기념관 공모전 포스터 .....	97
[그림 85]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위치 .....	100
[그림 86]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지도 .....	102
[그림 87]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동관 공간 구성(1층) .....	103
[그림 88]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동관 공간 구성(2, 3층) .....	103
[그림 89]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본관 공간 구성 .....	103
[그림 90]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Permanent exhibition (2020.07.29.기준) .....	104
[그림 91]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Special exhibition (2020.07.29.기준) .....	105
[그림 92]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조형 전시물 (2020.07.29.기준) .....	105
[그림 93]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조형 전시물 (2020.07.29.기준) .....	106
[그림 94] 다하우 수용소 위치도 .....	112
[그림 95]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istory online : Survivors Speak .....	114
[그림 96]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istory online : Topography Project (1) .....	114
[그림 97]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istory online : Topography Project (2) .....	115
[그림 98]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istory online : Topography Project (3) .....	115
[그림 99]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전시품 .....	116
[그림 100]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지도 .....	117
[그림 101]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 부지 외부 시설 .....	118
[그림 102]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주요전시회 .....	120

[그림 103]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특별전시회 .....	120
[그림 104]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 부지의 상징적 기념물 .....	121
[그림 105]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온라인 워크숍 .....	122
[그림 106]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위치도 .....	125
[그림 107]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	127
[그림 108]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교육자료 .....	127
[그림 109]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층별 단면도 .....	128
[그림 110]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수직적 공간감 .....	129
[그림 111]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순환적 공간구성 .....	130
[그림 112]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 Daniel' s Story ·	131
[그림 113]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전시·체험 콘텐츠 1 .....	132
[그림 114]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전시·체험 콘텐츠 2 .....	133
[그림 115]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온라인 교육·학술연구자료 .....	134
[그림 11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부지 선정과정 .....	140
[그림 117]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위치 .....	142
[그림 118]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	142
[그림 119]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위치 .....	143
[그림 120]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	143
[그림 121] 중앙공원 항공사진 .....	144
[그림 122]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좌)와 중앙공원 제9지구(우) .....	144
[그림 123] 인하대 옆 공터 위치 .....	145
[그림 124] 인하대 옆 공터 .....	145
[그림 125]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위치 .....	146
[그림 126]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	146
[그림 127] 비룡쉼터 위치 .....	147
[그림 128] 비룡쉼터 .....	147
[그림 129]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위치 .....	148
[그림 130]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	148
[그림 131] 부평공원 위치 .....	149
[그림 132] 부평공원 일부 .....	149
[그림 133] 월미공원 내 위치 .....	150
[그림 134] 월미공원 일부 .....	150
[그림 135] 북부근로자복지회관(민주노총인천본부) 위치 .....	151
[그림 136] 북부근로자복지회관(민주노총인천본부) .....	151
[그림 13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부지 순위(1차 설문결과) .....	156

[그림 138]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부지 순위(2차 설문결과) .....	158
[그림 139]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호도(3차 설문결과) .....	160
[그림 140] 건축의 10가지 기본 개념 .....	165
[그림 14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정체성 .....	168
[그림 14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지향점 .....	171
[그림 143] 기념관의 문화프로그램 .....	172
[그림 144]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실내 공연극장(좌)과 야외극장(우) .....	173
[그림 145]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	174
[그림 146] Martin Luther King, Jr. 국립역사공원 .....	175
[그림 14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콘셉트 .....	177
[그림 148]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공간주제 설정 .....	179
[그림 149] 오픈 스페이스 사례 .....	182
[그림 150] 상설전시실 사례 .....	184
[그림 15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전시 .....	184
[그림 152] 기념품샵 사례 .....	185
[그림 153] 북카페 사례 .....	186
[그림 154] 로비 사례 .....	187
[그림 155] 체험학습실 사례 .....	188
[그림 156] 문화공연실 .....	188
[그림 15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동선 .....	189
[그림 158]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관람객 전시경험 .....	190
[그림 159]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관람객 경험설계 .....	191
[그림 160]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비전 및 전략 .....	201
[그림 16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업(웹 홍보물) .....	210
[그림 16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영역 .....	210
[그림 16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 설계 및 운영 기본방향 .....	211
[그림 164]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서별 사업 및 조직(안) .....	212
[그림 16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 구성(안) .....	212
[그림 16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도(안) .....	214
[그림 167] 부평 캠프마켓 소유자 현황 .....	247
[그림 168] 부평 캠프마켓 도시관리계획 현황 .....	247

# 제 1 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수행체계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2001)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이 법을 근거로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sup>1)</sup>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인천은 서울, 광주·전남, 부산·마산 지역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이어온 도시임.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서 인천5·3민주항쟁 등 인천지역의 사건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조망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민주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6)는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
-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관련 법령 등은 준비되어 있으나 사료수집이나 편찬 작업이 미진한 관계로 인천민주화운동사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인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2019년에 『인천민주화운동사』를 발간하였음.
- 인천시 민주화운동의 체계적인 기록 보존과 연구·전시, 체험,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다양한 기념·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함.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부지에 따른 조성형태, 공간계획 등을 검토하는데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방안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념공간의 비전, 조직규모, 사업계획,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 결과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조성부지 선정, 조성형태의 적정성,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 기념공간 조성 방향 및 운영방안에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개념정리를 위한 토론회>(2019.6.2.)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사료관, 전시관, 열람실, 도서관, 교육실, 회의실과 세미나실, 문화공연장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의 네트워크, 민관교류협력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24년
- 내용적 범위
  - (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필요성 분석 및 평가
    - 인천 민주화운동의 개념(정의)제시
    - 민주화운동 관계자 면담 및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가치분석 및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의 필요성 분석
    - 기념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 국내·외 민주화기념공간 사례분석
    - 국내: 부산민주공원/2·28민주운동기념회관/5·18민주화운동기록관/민주인권기념관
    - 국외: 난징학살기념관/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뮌헨 다하우수용소/워싱턴 홀로코스트기념관
  - (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 부지(장소)검토 및 조성형태 등 공간 계획 방향제시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적정 부지(장소)검토결과 및 규모 제안(면적)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 조성 형태 제안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운영 및 관리방식 검토
  - (4) 기본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수립
    -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설정
    - 사업운영계획: 차별적 프로그램 운영방향 제시
    - 조직구성계획: 효율적 조직 구성안 제시
    - 인력운영계획: 필수 인력운영 및 배치 계획 수립
  - (5) 종합검토 및 제언
    - 운영방식검토: 공간 관리 및 운영방식 검토
    - 재정운영검토: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제시
    - 정책제언

## ■ 연구 방법

### ○ 문헌조사

- 민주화운동기념 관련 법률 및 조례
- 민주화운동기념 관련 사업 사례
- 민주화운동기념시설 운영 현황
-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

### ○ 설문조사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지 관련 의견수렴

### ○ 관계기관 자문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지 적정성 검토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운영사업 방향 자문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건축방향 자문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활동사항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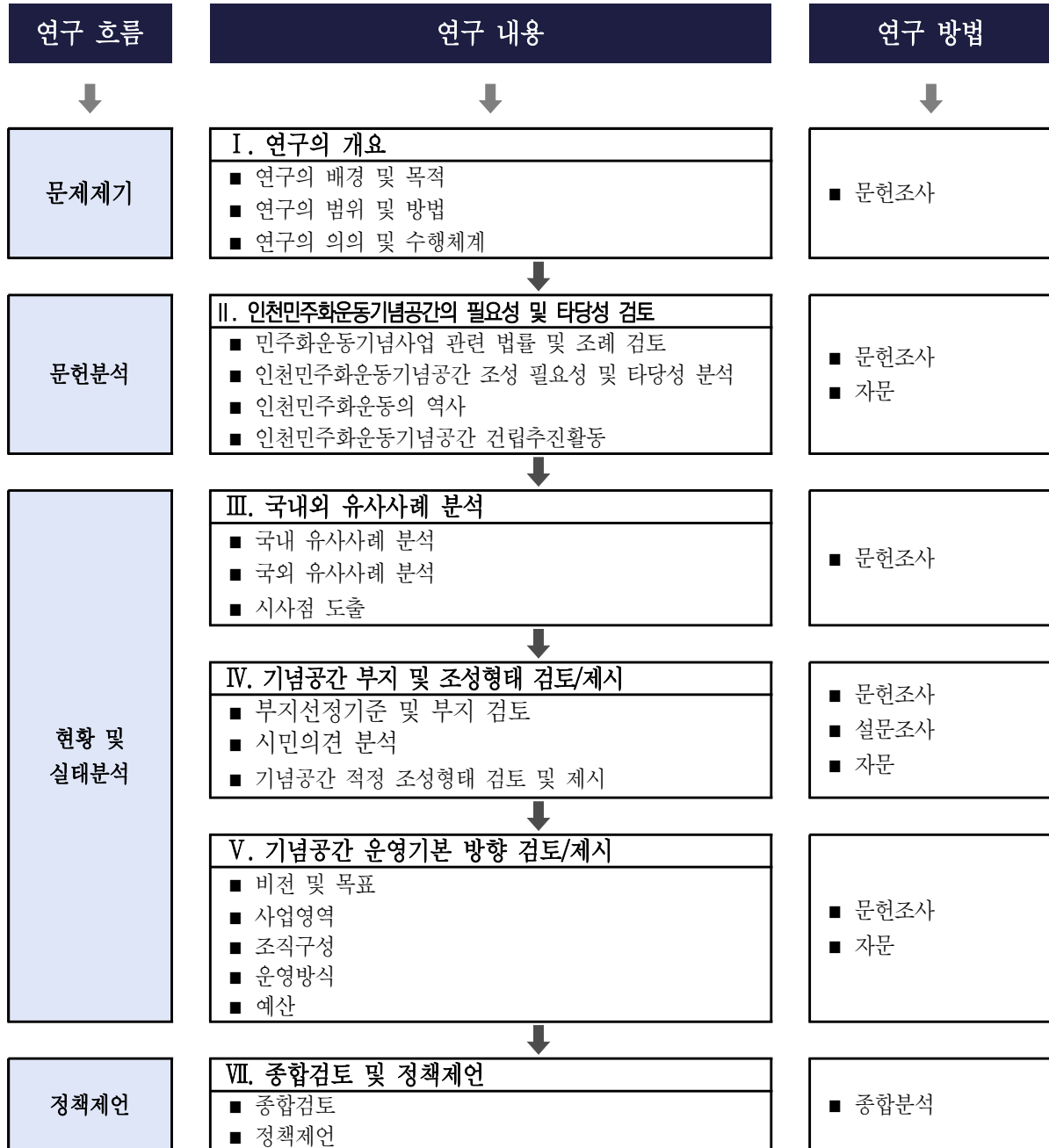
###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수행체계

#### ■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비전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임.
- 본 연구는 인천 민주화운동 기록을 연구 및 보존하고 관련 중요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전시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임.
- 본 연구는 조성 공간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관련 문화사업을 통해 즐겁고 의미 있는 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임.
- 본 연구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에 필요한 적정 부지와 공간 조성 형태를 검토하여 실제 공간 조성에 필요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임.
- 본 연구는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 연구추진과정

- 연구의 흐름
  -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 관련 법률 및 조례,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외 민주화운동기념시설 조성 사례를 검토 및 관련기관 자문을 통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함.
  -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비전 및 추진전략과 조성기본계획 및 운영기본계획을 제시함.



[그림 1] 연구 흐름도



# 제2장

## 인천 민주화운동 의의 및

## 기념공간의 필요성

제1절.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

제2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활동

제3절. 소결



## 제1절.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

### 1. 인천 민주화운동의 흐름

- 인천 민주화운동이란 인천시민들과 민주화운동세력이 전개해온 지역 차원의 민주화운동임. 인천 민주화운동은 기본적으로 비민주적 정권의 퇴진, 헌법 및 법률 개정과 같은 국가 수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한국 민주화운동이라는 보편적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지만, 지역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산업구조, 도시의 지리 문화적 배경, 계급과 계층 구성과 같은 요소도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시민들과 민주화운동단체들은 해방 후 지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왔음. 시기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이후 노태우 정권의 제6공화국 말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4월혁명, 종교계의 6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 학생들의 긴급조치 철폐운동, 비상계엄하의 투쟁, 인천5·3민주항쟁,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등이 중요한 운동이었음.

〈표 1〉 시대별 인천의 민주화운동

시대별	인천의 주요 민주화운동
1950~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지역의 4월혁명</li> <li>• 196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 (카톨릭노동청년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li> </ul>
유신체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문 강제 통폐합</li> <li>• 인천 종교계의 민주화운동</li> <li>• 긴급조치 철폐 운동 (학생)</li> </ul>
1980년대 신군부체제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계엄하의 저항</li> <li>• 전두환 정권과 반독재 투쟁</li> <li>• 인천5·3민주항쟁</li> </ul>
6월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민주항쟁</li> <li>• 노동자대투쟁</li> <li>• 노태우정권말기의 민주화운동</li> </ul>

## 2. 인천 민주화운동의 특성

### ■ 노동운동의 선구지, 인천

- 인천은 대표적 산업도시로 4·5·6공단과 같은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음. 목재공단, 주물공단 등에는 영세사업체와 향만을 중심으로 향운, 제분, 철강 등의 국가기간산업이 입지하고 있었음.
- 80년대 당시 노동자는 인천시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인천은 70년대 동일방직과 반도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 축적되어 있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산선)와 카톨릭노동청년회(JOC)등의 활동 성과로 노동자 권리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음. 또한 인천은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대거 이전하여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사업장별 투쟁을 지역적 연대로 확산시켜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적인 도시로 인식되었음.
-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전개된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만석동 동일방직과 부평4공단의 반도상사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 80년대 초 대우자동차 노조민주화운동과 임금인상 투쟁은 인천·부천지역의 노조결성투쟁, 노조민주화운동, 노동조건 개선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그림 2] 동양방직 여공(좌),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우)

출처: 오픈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archives.kdemo.or.kr>)

- 84년부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노동운동 탄압저지투쟁위원회(이하 노투),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이하 노복), 인천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이하 3권투위) 등을 결성하여 지역 내 연대투쟁을 전개하였음.

- 86년 2월에는 80년대 초에 진행된 노투, 노복, 노동3권투위를 비롯한 인천지역 노동자 투쟁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하 인노련)을 결성하여 지역 내 연대투쟁을 선도하고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과 공조하면서 노동운동의 연대도 모색하였음.

## ■ 6월항쟁의 도화선, 인천5.3민주항쟁

-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을 비롯한 전국반과소민주투쟁학생연합(민민학련), 서노련, 인노련 등의 재야 단체와 인천시민 5만여 명이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시도지부 결성대회’(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열리는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저녁 10시까지 옛 시민회관사거리를 중심으로 주안역, 제물포역, 동인천 일대에서 군부독재 퇴진, 민주 헌법 제정 등의 민주화 조치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만 명의 진압경찰에 맞서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었음.



[그림 3] 인천5·3민주항쟁 당시 모습 (좌, 우)

출처: 오픈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archives.kdemo.or.kr>)

- 인천5.3민주항쟁이 6월항쟁의 맹아로 평가되는 것은 인천5.3민주항쟁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한 6월항쟁의 정신과, 노동3권을 비롯한 민중생존권 요구라는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 투쟁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인천5.3민주항쟁 이후 경찰과 공안기관들이 배후인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전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듬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더욱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 사건들은 마침내 한국민주화운동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6월항쟁으로 이어져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성취하는 성과를 거둠.

## ■ 민주화 이후의 시민운동

-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투쟁에서 부문운동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도적 민주화 운동에서 경제민주화, 양성평등, 환경생태, 교육과 문화, 주민자치 분야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분화와 이행이 이뤄지고 있음.
- 인천의 시민운동은 굴업도핵폐기장반대투쟁, 계양산살리기운동과 같은 환경운동분야와 선인학원 시립화투쟁과 같은 교육민주화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남겼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자치운동, 마을만들기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제2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

### 1. 관련법 제정 및 개정 활동

####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5·3민주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1-05>

##### 제3조(기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개정 2018-11-05>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교육사업 <개정 2018-11-05>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신설 2018-11-0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05>

#####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 ①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노력

- 시민단체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2018년 9월 윤관석 의원 등 12명은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인천 5·3 민주항쟁’과 ‘부·마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안을 발의함.

<p><b>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b> (윤관석의원 대표발의)</p> <p>의안번호 15738</p> <p>발의연월일 : 2018. 9. 21.</p> <p>발 의 자 : 윤관석·안도영·김경철·최찬호·이원철·송영길·박완태·이원철·주미애·유동주·신동근·양성규의원(12명)</p> <p><b>제안이유 및 주요내용</b></p> <p>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18대전민주투쟁,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p> <p>인천 지역에서도 1980년 5월 3일 김연남 재향유공회원과 인천장기현상대책기 회장 재영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책실 노동자 등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p> <p>그러나 ‘인천5·3민주항쟁’은 항의과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불합치하고 있는 실정므로, 이에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p>	<p>- 2 -</p> <p>법원에 보충사업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p>	<p>법률 제 호</p> <p><b>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b></p> <p>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중 “부·마항쟁”을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3 -</p>
---	--	--

[그림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11월 “인천 5·3 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이다”를 주제로 <민주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그림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18년 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및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시민단체 59개 참여).



[그림 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기자회견

- 국비지원이 가능한 기념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윤관석 의원 외 13명의 21대 국회의원들이 2020년 6월 5일 다시 발의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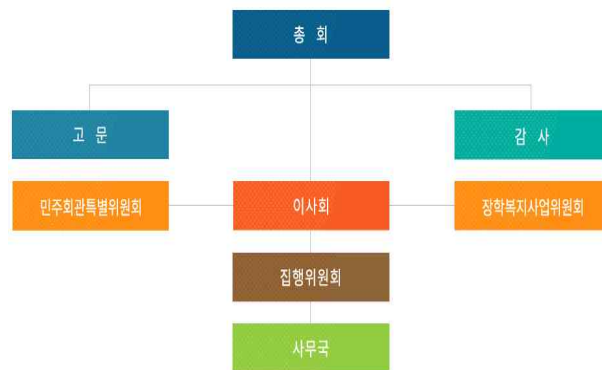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활동

### ■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2000)

-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지역연대 조직으로 창립됨.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1.12제정),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00.1.15제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2000년 4월에 발족됨.
  -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지역조직으로 2000년 12월에 창립됨.
-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는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정신계승을 위한 활동을 이어감.
  -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의 주관으로 2002년 10월 인천에서 처음 열린 <2002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합동추모제>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됨.
  - 2004년 인천 5·3민주항쟁기념식과 함께 <민주화명예회복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2006)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에서 전환된 단체임.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목적으로 하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을 현재화, 대중화하는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 및 건강한 문화창달을 목표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가 2006년에 설립함.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2020년 5월 11일 계승사업회 총회를 통해 이사장단을 새롭게 선출함. 이사장 이우재, 부이사장 송경평 외 2명, 감사 배영철 외 1명, 이사 강병수 외 81명, 집행위원 이성수 외 2명, 장학복지사업위원장 송경평 외 15명으로 구성됨.



[그림 7]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조직도

출처: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홈페이지([www.idf.or.kr](http://www.idf.or.kr))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역사 정리 및 홍보 조사 연구 활동
  - 인천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 인천지역 민족민주노동열사 및 희생자 합동 추모 사업
  - 인천지역 열사 묘역 정비 및 추모 사업
  - 민주화와 노동운동 관련자 장학복지사업
  - 민주발전과 평화,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 민주공화시민정신을 육성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 등



[그림 8] 제28주년 인천5·3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2013)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함.
- 인천시 강병수 시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12월 2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2012년 1월 16일 제정되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인천광역시는 2013년 3월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함.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 합동추모제 개최,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주관,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사료 수집 및 편찬, 유가족 장학복지사업 등을 진행함.



[그림 9]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개소식

출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 (<https://idph.kr/>)

##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2019)

-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들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자 2018년 2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 2019년 3월 26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함.
- 인천지역 83개(2020.11.06.기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민공감대를 넓히는 활동으로 사진 전시회, 기념공연, 기자회견 등을 진행함.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ROTC민주포럼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강화시민연대	민주평화초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사)나눔과함께
국민tv인천협의회	사)노동희망발전소
남동희망공간	사)시민과대안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노동자교육기관	사)인천민예총
노동희망발전소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사)인천불교총연합회
동보전기동지회	사)인천시민재단
목요회	사)자치와공동체
서구민중의집	사)함께걷는길벗회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아줌마포럼	인천노동정치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YMCA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천YWCA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인천행동하는앙심
인천노사모	인천행복교육커뮤니티 징검다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인천대 학원민주화기념사업회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인천본부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참살이문학
인천빈민연합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인천시민의힘	청솔의집
(사)인천여성노동자회	통일민주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여성회	평등세상을향한집밥
인천작가회의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풍물패 더늠
인천참여론시민연합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행동하는시민모임
인천평화복지연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미추홀학부모넷	



[그림 10]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출범식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추진위원회 조직과 모금활동
  - 해외 및 국내 기념회관 사례연구 활동
  -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에 인천5·3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활동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캠페인 및 토론회
  - 인천시, 인천시의회, 국회의원, 정부 등 협력활동

## ■ 인천민주화운동센터(2016)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2016년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1.16.제정)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6.9.29.)가 제정됨. 이 조례의 “제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본다.”에 근거하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가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개칭됨.
-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장 오경종, 사무처장 이은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이우재 외 9명, 총무팀, 교육팀, 홍보팀으로 조직되어 있음.





[그림 1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조직도

출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 (www.idph.kr/)

-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발전시켜 성숙한 시민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2016.9.29.제정)의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개정 2018-11-05>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교육사업 <개정 2018-11-05>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신설 2018-11-0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05>

-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 ①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사료실 운영사업
- ②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 ③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사업
- ④ 민주역량 강화사업
- ⑤ 홍보 및 단체 네트워크 사업

〈표 2〉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연도별 주요 활동내역

연도	주요 활동 내역	사진
정례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5·3민주항쟁 기념식</li> <li>인천지역 민족민주노동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li> <li>인천지역 민족민주노동열사 유가족 치유의 날 행사</li> <li>민족민주노동열사 묘역정비 및 추모제</li> <li>인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및 장학지원 사업</li> <li>청소년 민주시민교육</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민주화운동 인물열전』 편찬사업</li> <li>인천5·3민주항쟁 31주년 계승대회</li> <li>6월민주항쟁 30주년 사업</li> <li>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회</li> <li>인천청소년인문학토론광장</li> <li>청소년민주주의체험마당</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원로 간담회</li>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운동 돌입 기자회견</li> <li>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기념 인천행사</li> <li>민주시민교육 등 민주역량강화사업</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민주화운동사』 발간</li> <li>『열전, 18인의 인천민주화운동가』 발간</li> <li>민주화운동가 토크쇼 - 내가 살아온 이야기</li> <li>인천지역 민주화운동 발생지 표석설치작업</li>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li> <li>인천민주화운동사 사진전</li> <li>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li> <li>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li> <li>청소년인문학토론광장</li> <li>청년민주주의 체험탐방</li> <li>3·1운동 100주년기념 인천역사포럼</li> <li>32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행사</li> </ul>	 
2020 (6.29.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수 사료 분류, 등록</li> <li>내가 살아온 이야기 진행(3차)</li> <li>4·19혁명동지회 간담회</li> <li>제40주년 5·18민주항쟁 인천 참배단</li> <li>제34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li> <li>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li> <li>인천5·3민주항쟁, 5·18민주항쟁 사진 전시회</li> <li>민주시민교육(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li> <li>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라례이 캠페인, 타 지역 사례 탐방)</li> </ul>	 

### 제3절. 소결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2016) 제정 등 관련 법령은 준비되어 있으나 사료수집이나 편찬 작업이 미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의 민주사적 의의 등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음.
- 인천5·3민주항쟁은 6월항쟁에 도화선이 된 민주화운동이었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고 민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기념공간이 부재함.
-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체계적인 기록 보존과 연구·전시, 체험,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다양한 기념·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민주화 정신 계승과 숙의 민주주의 가치 확산이 필요함.



# 제3장

## 기념공간 사례 분석

제1절. 기념공간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제3절. 해외 유사사례 분석



## 제1절. 기념공간의 개념 및 유형

### 1. 기념공간의 개념

#### ■ 문화학에서의 기념공간 개념

- 기념공간은 Memorial space 또는 Commemorative space로 표기됨. 기념을 의미하는 용어인 Memorial과 Commemorative가 혼용되고 있으나 기념대상과 목적에 따라 용례를 구분해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memorial은 상실이나 추모에 대한 기억과 애도 등을 위한 조형물로 파악 (Aldeman & Dwyer; 2009)
- memorial은 추모, 회고와 치유, 의식, 집단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서 지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영혼을 위로하고 공동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Wasserman; 1998).
- commemorative는 축하할 만한 사건이나 업적, 영웅적 인물을 기린다는 의미가 강함. 따라서 commemorative space는 memorial space보다 비교적 축하와 칭송, 찬미를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 Memorial과 Commemorative 용어 비교

용어	Memorial	Commemorative
의미	기념비(적인 것), 기념하는, (죽은 사람을)추모하는, 추도의	(중요 인물·사건을)기념하는, 경축하는
용례	The Memorial Hall for Incheon Landing Operation (인천상륙작전기념관) The War Memorial of Korea (전쟁기념관) Memorial day (현충일) The 9/11 Memorial Museum (9/11 메모리얼 박물관)	Toyota Commemorative Museum of Industry and Technology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Arizona Commemorative Air Force Museum (애리조나 공군기념관) Commemorative Museum (구조기술사 오쿠무라 기념관) Commemorative Monument of the Victory of Rivoli (리볼리 승전기념비)
주요기념 대상	희생자, 아픈 역사적 사건	업적, 축하할 만한 사건
기념목적	추모, 추도, 애도, 위령, 기억	축하, 찬미, 칭송, 기억

## ■ 조경에서의 기념공간 개념

- 기념장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로 기념할 대상과 주제에 대해 국가나 지역사회와 같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상징적 의미를 물리적 형태로 제작하여 배치한 공간을 의미함. 기념장소는 과거를 기억하고 국가나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조성함.
- 기념장소는 기념대상에 따라 개인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개인적 기념공간과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의 기념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이상석; 2001)
- 기념장소에는 기념비, 예술작품, 건축물, 수목, 수경공간, 조명, 기념식수, 역사적 물건 등을 도입해 상징적 의미를 구현함.
- 역사 기념장소는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되기도 함.



## 2. 기념공간의 유형

### ■ 건축물(기념관)형

- 건축물이 기념장소가 되는 경우이며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건립함.
-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군산지역 만세운동(군산 3·5만세운동)이 시작된 옛 군산 영명학교의 모습을 재현하여 건립함.
- 기념관은 1층 추모기록실(독립의 빛), 2층 역사재현실(그날의 함성 속으로) 3층 체험교육실(그들과의 이어짐)로 구성됨.



[그림 12]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외부(좌)와 내부(우)

출처: 전라북도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jbgokr>)

### ■ 광장형

- 기념비, 기념탑을 중심으로 광장을 함께 조성하며 주로 도심이나 교외에 위치함.
-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은 1805년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이 프랑스·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무찌른 트라팔가 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4마리의 사자동상이 떠받치고 있는 높이 52m의 넬슨 제독 기념비와 2개의 분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3] 런던 트라팔가 광장 전경(좌)와 넬슨 제독 기념탑(우)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ourpuzzle/221594221743>)

## ■ 공원형

- 기념비, 기념탑, 건축물(기념관), 조명, 역사적 물건 등 다양한 조형물을 도입하여 넓은 공간에 조성함. 공원형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조성하기도 함.
- 광주 5·18기념공원은 5·18의 교훈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조성된 시민 휴식공간으로 5·18 자료실, 공연·행사시설을 갖춘 5·18기념문화관, 시민군조각상·추모공간 등으로 구성된 5·18 현황조각 및 추모승화공간, 원형 분수를 갖춘 대동광장, 5·18민주화운동학생기념탑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원 정상에 전망대 역할을 하는 누각 오월대, 사찰 무각사와 잔디광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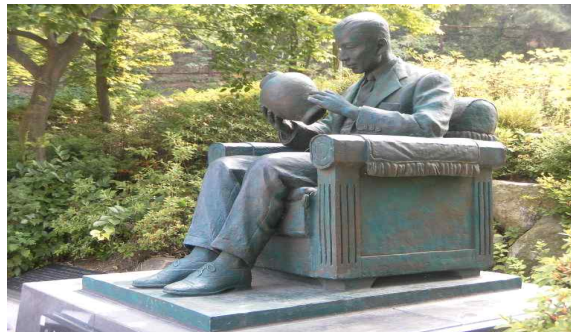


[그림 14] 5·18기념공원 대동광장(좌), 추모공간(중), 오월대(우)

출처: 전라남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reenjeonnam>)

## ■ 기타

- 기념장소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조각, 기념비, 기념탑, 표지석 등을 독립된 형태로 기념 장소에 설치함.
- 인천 창영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는 인천지역 3·1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학생들의 만세 의거를 기리기 위하여 광복 50주년인 1995년 3월 6일에 건립됨.
- 인천시립박물관 광장에 위치한 우현 고유섭선생 동상은 인천출신 미술사가이자 미학자인 우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92년 제작·건립됨.




[그림 15]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좌)와 우현 고유섭선생 동상(우)

출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main.do>)

### 3. 기념공간 도입요소의 개념과 종류

- 기념공간에 도입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요소는 예술적인 작품, 건축물, 기념벽, 수목, 폭포, 조명, 기념식물, 야생동물, 역사적인 물건 등이라고 정의함(Wasserman; 1988).
- 기념장소의 도입 요소는 기념장소를 구성하는 조형물로 기념할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음.
- 기념물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상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없는 과거 역사를 현재 속에 재현해 주는 기능이 있음.

〈표 4〉 기념장소 도입 조형물의 종류

구분	내용	사례
기념비 (記念碑)	기념비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비로 기념할 사건과 인물은 국가적인 것, 지방적인 것, 개인적인 것 등이 있으며, 사건의 본말과 인물의 행적을 견고한 소재의 비에 기록하여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짐.	 인천, 인천5·3민주항쟁장사기념비
기념탑 (記念塔)	기념탑은 기념비와 같이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를 기념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지며,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건립되기도 함.	 대구, 2·28학생의거기념탑
상징조형물	상징조형물이란 작가가 해석한 기념의 의미를 창의적인 형태로 제작하여 감상자인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형예술작품을 의미함.	 전남, '피어나다' 상징조형물
기념벽	기념벽은 기념비나 기념탑처럼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현하는 조형물로 기념벽은 벽면에 반입체적으로 표현한 부조방식으로 많이 제작됨.	 서울, 4·19민주묘지 기념벽
건축물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는 기념관이나 관련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건립하는 전시관 등과 같은 건축물도 기념장소 조성 시 도입할 수 있는 조형물임.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기타조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수: 기념 장소의 분수는 물의 연출효과를 이용하여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음</li> <li>• 수목과 화단: 수목과 화단을 이용해 기념 장소의 상징성을 연출</li> <li>• 역사적 관련물: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깊은 물건이나 자료를 통해 기념 장소의 상징성을 연출</li> <li>• 역사연표 등</li> </ul>	 광주, 5·18민주광장 분수대

##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 1. 2·28민주운동기념회관

#### ■ 개요

- 3·15 마산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발상지에 기념회관을 건립함.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연면적 2,847.98㎡ 지하1층/지상4층의 건물로 2013년에 개관함.
- 1층에 2·28민주의거 당시 사료와 체험공간으로 구성된 전시실과 2~3층은 도서관, 4층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이자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사업 조례」(제정 2005년, 전부개정 2019년)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2월 6일 2·28민주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

〈표 5〉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41968)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동 2113-10)
설립목적		• 2·28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발상지에 기념회관 건립
개관		• 2013.2.28.
규모	부지면적	• 연면적 2,847.98㎡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사업비		• 총 10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20억 원)
운영 및 관리		• (사)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위탁운영)
운영시간		• 월 : 휴관, 화~금 : 1,2층-09:00~18:00, 3층-09:00~21:00, 토~일 : 09:00~17:00
관람료		• 무료
공간구성	지하1층	• 주차장(13면), 보존서고, 기계·전기실 (면적 : 633.78㎡)
	지상1층	• 전시관, 기획전시실, 통신실 (면적 : 557.45㎡)
	2층	•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북카페 (면적 : 565.15㎡)
	3층	• 일반/특화자료실, 사무실, 세미나실 (면적 : 528.42㎡)
	4층	• 회의실, 문화강좌실, 2·28기념사업회 (면적 : 528.42㎡)
주요사업		• 2·28기념사업 • 각종 자료수집, 조사, 연구 활동 • 회보발간, 출판, 문화행사, 장학사업
관계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		• <a href="http://228.or.kr/front/">http://228.or.kr/front/</a>

출처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식홈페이지 (<http://228.or.kr/front/>)

## ■ 건립과정 및 연혁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총 100억 원(국비 80억, 시비 20억)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함.
- 2009년 12월 29일 「2·28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고 (2·28민주화운동의 민주화운동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2010년 2월 4일 이 법이 공포된 이후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50년사”를 발간하였고, 2011년 7월 22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함.
- 2013년 2월 제5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과 함께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식을 개최함.

〈표 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추진 경과 및 연혁

구분		주요 내용
1960.	02.28	• 2·28대구학생 민주의거(3·15의거 → 4·19혁명 → 이승만 대통령 하야)
1961.	04.	• 2·28민주의거 기념탑 건립(대구, 명덕네거리/시민성금)
1990.	02.02	• 2·2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발족
	02.28	• 2·28민주의거 30주년 기념행사, 2·28 기념탑 두류공원 이전(제막식)
1999.	06.22	• 2·28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창립 총회(대구문화예술회관)
		• 공동의장 : 문희갑(대구광역시장), 최용호(경북대학교 교수) 선출
2000.	01.11	• 2·28노래(2·28찬가) 작사, 작곡 현상 공모·제정, 성악가 이화영, 이익춘 교수 녹음·취입(임우상 작곡)
	01.22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a href="http://www.228.or.kr">http://www.228.or.kr</a> )
	02.25	• “2·28민주운동사”(전3권) 출판 기념회 및 국제 학술 대회(동대구H)
	02.28	• 2·28민주의거 40주년 기념식(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참석)
	03.02	• 2·28민주운동 초등교과서 수록(사회과 탐구, 대구의 생활 4-1)
	05.08	• 2·28민주운동 홍보 및 교육용 비디오 제작 배포(1,000개)
	11.29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설립(공동의장 선출 :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제3대 의장 홍종흠 선출)
	12.28	• 사단법인 설립허가(대구광역시장)
2004.	04.01	• 2·28 기념 중앙공원 개원
2005.	02.28	• 김윤식(金潤植)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시비 제막 「2·28 기념 중앙공원」
	12.30	•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에 관한 조례 공포(대구광역시조례 제3748호)
2010.	02.04	• 법률 제10007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법률 공포
	02.28	• 제50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및 2·28퍼포먼스 퍼레이드
	12.30	•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행
2011.	07.22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기공식
	12.29	• 2·28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기재부공고 제2011-261호)
2012.	12.26	• 2·28민주운동 집결지 표지 동판 제막(대구반월당)
2013.	02.28	• 제5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및 기념회관 개관식
2014.	02.28	• 제54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016.	02.28	• 제56주년 기념식 및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선포
2018.	02.06	•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행정안전부 관보 게시)
	02.28	• 2·28 찬가 노래비 제막
		• 2·28 민주운동 제58주년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참석
	07.18	•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체제 출범

출처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228.or.kr/front/>)



## ■ 입지여건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민주화운동과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명덕초등학교 내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건립되었음.
- 주변에 도시철도 1·2·3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반경 1.5km 이내에 역이 다수 위치함.
  - 명덕역에서는 약 100m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3분 이내에 접근 가능함.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주변으로 다수의 교육기관이 분포함.
  - 반경 1.5km 이내에 초, 중, 고, 대학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음.
- 또한 2·28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들 시설들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이 용이함.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2·28기념 중앙공원과 약 1.5km 떨어져있고, 2·28기념탑과는 약 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함.



[그림 1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위치도

## ■ 조직 및 운영관리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재산권은 대구광역시에서 보유하고 대구광역시 산하 조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함.<sup>2)</sup>
- 사업의 운영주체는 (사)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서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5개 팀(교육실, 총무국, 기획홍보국, 도서관, 자료실), 직원 수는 관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7]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

2) 김현진(2013),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대구경북연구원. p.44.



〈표 7〉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부서와 주요업무

부서	인원(명)	주요업무
총무회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회 관리전반</li> <li>• 총무·회계</li> <li>• 총무업무 총괄</li> </ul>
기획홍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홍보·언론 국장</li> <li>• 기획·홍보·언론 담당</li> <li>• 전시관 안내·해설 및 관리</li> <li>• 기획·홍보·언론 담당</li> </ul>
도서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업무 총괄, 일반·특화 자료실 운영관리</li> <li>• 어린이·디지털 자료실 운영관리</li> </ul>
2·28연구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8연구원장</li> <li>• 자료조사실장</li> <li>• 기획연구부장</li> </ul>
평생교육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원장</li> <li>• 문화프로그램 및 위원회 업무 담당</li> </ul>

출처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홈페이지 (<http://library.daegu.go.kr>)

- 운영예산 내용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예산은 2019년 703,000천 원, 2020년 753,000천 원으로 50,000천 원 약 7.1% 증액함.

〈표 8〉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예산

시설명	운영예산		비고
	2019년	2020년	
2·28민주운동기념회관	703,000	753,000	50,000

출처 : 대구광역시, 「2020 세입세출예산서」

## ■ 공간구성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1층에 2·28기념전시실이 위치해 있고, 2~3층은 열람실로서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층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됨.
- 지하1층 : 주차장(13면), 보존서고, 기계·전기실
- 지상1층 : 전시관, 기획전시실, 통신실
- 지상2층 :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북카페
- 지상3층 : 일반/특화자료실, 사무실, 세미나실
- 지상4층 : 회의실, 문화강좌실, 2·28기념사업회

〈표 9〉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층별 배치도

구분	배치도
1층	
2층	



출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식홈페이지 (<http://228.or.kr/front/>)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층에는 디지털 자료실과 어린이, 유아자료실, 북카페, DVD 상영관 등이 있음.
  -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인터넷 검색, 멀티미디어, 문서 편집, DVD 감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회원가입한 후 예약 PC에서 예약을 해야만 PC를 이용할 수 있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층에는 문학 자료를 비롯한 전 주제 분야의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고, 정기간행물과 신문, 민주운동과 관련된 특화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 ■ 주요 전시 및 콘텐츠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전시관(2·28 기념 전시실)은 1층에 위치함.
- 전시실은 민주주의 발원, 민주주의 잉태, 타오르는 횃불, 불꽃 계양, 사료관, 영상관,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구에는 횃불 모형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시위하는 동상이 있음.
- 벽면에는 3개의 해설지가 있으며 2·28 ~ 3·15 ~ 4·19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2·28 당시 경북도청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의 모형 또한 전시되어 있음.
- 크로마키를 이용한 포토존 또한 비치되어 있으며, 크로마키 기법을 통해 2·28당시 사진이나 대구 풍경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음.



[그림 18] 2·28 기념회관 1층 전시실 안내도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상설전시는 기념관의 가장 대표적인 전시공간으로 기념관의 기본 정신과 운영 방향이 반영되며 주제와 분야에 따라 공간배치를 하나 각 부분이 연계성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표현되며 아래 사진과 같음.



햇불 조각 작품



2.28민주운동 벽화

[그림 19]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입구 조형물

출처: <http://blogs.chosun.com/>



전시실 내부 전경



1960년대 도청 전경 미니어처

[그림 20] 2·28 기념회관 상설전시 콘텐츠

출처: <http://blogs.chosun.com/>

- 기획전시는 특별한 주제나 내용으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시로 상설전시  
에서 관람객들의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부분을 보완하여 관람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는 특별 전시콘텐츠로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  
를 북돋아 주고자 매달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고 있음.



[그림 21] 2·28기념회관 특별 전시 ‘그림책 원화’

출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식홈페이지 (<http://228.or.kr/front/>)

## ■ 사업 및 행사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는 평생교육, 독서문화행사,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황임.

〈표 10〉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견학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단체는 모두 가능</li> <li>인원 : 1회 30명 이하</li> <li>견학가능시간 : 매주 화~금요일(오전 10:00 ~ 12:00)</li> <li>내용 : 2층 유아·아동열람실 독서 및 4층 문화강좌실 DVD상영 등</li> <li>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날짜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최소 견학 1일 전에 신청해야하며 취소도 하루전까지 가능)</li> <li>소요시간 : 1시간 내외</li> </ul>
견학신청방법	<p><b>온라인 신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에서 30일 전부터 예약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신청 및 취소는 이 용날짜 하루 전까지 가능)</li> <li>희망일의 신청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li> <li>신청서 작성</li> <li>접수확인에서 결과확인(접수현황이 접수완료이면 견학신청 완료)</li> <li>신청취소 : 신청확인을 클릭하셔서 취소</li> </ul> <p><b>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루에 한 기관만 신청 가능합니다.</li> <li>견학신청은 다음날부터 1개월 범위 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li> <li>신청취소는 신청확인을 클릭하셔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li> <li>문의사항 : 053)257-2280,2</li> </ul>

- 그 밖에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개최된 사업으로는 2·28민주운동 기념식, ‘2·28 폰트’ 라이선스 업무 협약식, 학생 글짓기 및 공모전 등 2·28 학생 연계사업이 있음.
- 2·28민주운동 기념식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매년 2·28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음.
  - ‘2·28체 폰트’ 라이선스 : 2020년 02월 19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 60주년을 맞아 다운커뮤니케이션과 ‘2·28’체 라이선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으며, 2·28체는 공익사업 차원에서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됨.
  - 2·28 학생 연계사업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매년 2·28민주운동과 관련된 학생글짓기/학생그림 공모전을 진행하여 시상하고 있음.





제5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포스터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특별사진전

## [그림 22] 2·28 민주운동 기념식 및 특별사진전 포스터

출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식홈페이지 (<http://228.or.kr/front/>)

제18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우수작 (1)



제18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우수작 (2)

## [그림 23] 2·28 기념회관 학생연계사업 글짓기/그림 공모전

출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식홈페이지(<http://228.or.kr/front/>)

2·28체 폰트 라이선스 업무 약정식



2·28민주화체

## [그림 24] '2·28체 폰트' 라이선스

출처: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938>)

## 2. 부산민주공원

### ■ 개요

- 4·19 민주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및 6월항쟁으로 이어져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공원을 조성함.
-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됨.
- 이를 통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으며, 민주화의 산실인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 부산민주공원은 부지면적 20,338㎡이며, 민주항쟁 기념관은 연면적 5,272㎡ 지하1층/지상3층의 건물로 1999년에 개관함.
- 1층에는 대관이 가능한 공연시설(큰방, 작은방)이 있으며, 2층에는 민주주의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서 상설전시실, 3층에는 다양한 전시와 퍼포먼스 등을 위한 공간인 기획전시실과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사료를 전시 및 열람할 수 있는 민주주의자료 보존실이 있음.
-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음.

〈표 11〉 부산민주공원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일원
설립목적	•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
개관	• 1999.10.16.
규모	부지면적
	• 부지면적 20,338㎡, 연면적 5,272㎡ (1,600평)
규모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사업비	• 총 16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
운영 및 관리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위탁운영)
운영시간	• 09:00~18:00
관람료	• 무료 (공연장은 대관료 있음)
공간 구성	기념관 1층
	• 큰방(중극장 419석), 작은방(소극장 116석)
	기념관 2층
	•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
공간 구성	기념관 3층
	•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민주주의자료보존실
공간 구성	외부시설
	• 장승터, 야외극장, 추모조형물, 민주촛불과 램프, 전망대, 4.19 광장 등
주요사업	• 문화, 학술 활동 공간 제공(강연회, 토론회, 문화공연 등) • 민주항쟁 관련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 연구 및 사회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계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홈페이지	• <a href="http://www.demopark.or.kr/main/">http://www.demopark.or.kr/main/</a>

출처 :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 (<http://www.demopark.or.kr/main/>)



## ■ 건립과정 및 연혁

- 1995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산의 민주화 운동사를 기리고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기념탑 · 부산민주항쟁기념관 · 부마민주항쟁기념 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결의하고, 1996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광역시가 함께 ‘부산 민주 공원조성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음.<sup>3)</sup>
- 민주공원은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996년 7월~1999년 10월까지 사업비 16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으로 건립이 추진되어 1997년 착공 이후 세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일인 1999년 10월 16일 개관하였음.

〈표 12〉 부산민주공원 건립과정

구분		주요 내용
199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회 이사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탑,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결의함</li> <li>(재정 계획 - 국비, 시비, 모금 등으로 약 200억 원 예상)</li> </ul>
	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시장 면담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할애 요청</li> </ul>
199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일보/국제신문/부산매일신문/KBS/MBC/PSB/CBS/BBS 등 부산지역 언론사를 방문하여 시민모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li> <li>(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시 간에 간담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키로 함</li> <li>예산법상 공사 시행처는 부산시로 하고 추진위원회 내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구상과 제반 결정은 집행위에서 하도록 하고 실무 집행을 부산시에서 하기로 함</li> <li>부지는 중앙공원 내 일원으로 확정</li> <li>예산은 국비 100억 원 / 시비 70억 원 / 시민모금 30억 원으로 책정</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li> <li>- 추진위원장 : 부산광역시장 문정수</li> <li>- 집행위원장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송기인</li> <li>- 추진위원회 : 각계 인사 및 항쟁 관련자 등 428명으로 구성</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모금금지법에 의해 시민 모금이 불가능하여 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으로 예산 계획 편성</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민주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50여 아이디어 접수)</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민주공원 설계 경기 공모 - 설계사 선정, 조경 - 부산환경 컨설턴트, 건축 - 경봉건축, 조형물 - 엠조형</li> </ul>
199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처 선정 : 건축토목 - 경보종합건설, 조경 - 국제종합 토건, 감리 - 하우엔지니어링</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공식과 공사 시작</li> </ul>
199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 부문 공사처 선정 : 전기 - 수렵전기/대성종합전기공사, 감리 - 상지엔지니어링 전력기술단</li> </ul>
199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공원 운영과 관련한 공청회(기념사업회 회원 대상)</li> <li>민주공원 운영과 관련한 공청회(시민사회단체 대상)</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공원 개관식</li> <li>민주공원 개관 기념행사 및 부마민주항쟁 20주년</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공원 운영 위탁 계약 체결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li> </ul>

출처 :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 ([http://228.or.kr/front/index.php?g\\_page=intro&m\\_page=intro02](http://228.or.kr/front/index.php?g_page=intro&m_page=intro02))

3)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 ■ 입지여건

- 부산민주공원은 부산 시내 멀리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산 정상에 조성되었으며, 중앙공원의 로도 많이 알려져 있음.
- 민주공원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위상을 높이는 건축물로 2003년 ‘부산다운 건축상’ 야간 경관 조명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음.
- 산 정상에 입지하고 있지만, 지하철(초량역, 부산진역, 부산역 등), 택시, 버스(38번, 43번, 508번 등) 등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또한 공원 안에는 조경이 잘 조성되어 봄에 겹벚꽃, 여름에 배롱나무꽃을 보러 가는 등 일상적인 산책, 소풍을 위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



[그림 25] 부산민주공원 위치도

- 부산민주공원은 부산의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림과 아울러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구현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표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 조직 및 운영관리

-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인권노동정책담당관)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조직은 2팀 1실로 구성, 직원 수는 관장 포함 23인임.



[그림 26] 부산민주공원 조직도

〈표 13〉 부산민주공원 부서와 주요업무

부서	인원(명)	주요업무
경영지원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회 관리전반</li> <li>총무·회계</li> <li>총무업무 총괄</li> </ul>
교육문화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홍보·언론 국장</li> <li>기획·홍보·언론 담당</li> <li>전시관 안내·해설 및 관리</li> <li>기획·홍보·언론 담당</li> </ul>
학술자료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관 업무 총괄, 일반·특화 자료실 운영관리</li> <li>어린이·디지털 자료실 운영관리</li> </ul>

출처 :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http://www.demopark.or.kr/>)

- 운영예산 내용 : 부산민주공원 운영예산은 2019년 1,565,000천 원, 2020년 1,565,000천 원으로 41,000천 원 약 2.6% 감액함.

〈표 14〉 부산민주공원 운영예산

시설명	운영예산		비고
	2019년	2020년	
부산민주공원	1,565,000	1,524,000	△ 41,000

출처 : 부산광역시, 「2020 세입세출예산서」

## ■ 공간구성

- 부산민주공원은 내무시설인 민주항쟁기념관과 야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주항쟁기념관은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큰방(중극장), 작은방(소극장) 등으로 구성
  - 야외공간은 넓기림마당(추념의 장), 가리사리마당(인식의 장), 어렵사리마당(고난의 장), 올바름마당(정의의 장), 바람의 마당(염원의 장), 바깥놀이마당(야외극장), 들꽃나무뜰(수목원) 등으로 구성
  - 기타 시설로는 민주의 횃불(상징조형물), 민주공원 추모 조형물,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민주열사 추모비 등이 있음.



[그림 27] 부산민주공원 조감도

출처: <http://www.demopark.or.kr/main/>

- 민주항쟁기념관은 1층 공연공간, 2~3층 전시공간, 3층 민주주의자료 보존공간으로 구성됨.
  - 1층 공연 공간의 큰방(중극장)은 1층, 2층 그리고 장애석을 포함하여 모두 419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어 중간 규모의 학술 행사 각종 학예발표회 등의 용도에 적합하며, 약 198.34㎡(60평)의 무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시니엄 무대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영화상영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임.
  - 1층 공연 공간의 작은방(소극장)은 덧마루를 활용한 실험용 소극장으로 설계하여 그 활용을 일정 범위로 한정하였는데, 주로 연희자와 관객이 서로 몸이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마당극과 마당 출판, 노래 공연 등 실험적인 작품에 적합한 공간임.



큰방(위)과 작은방(아래)

1층 개요도

[그림 28]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1층 공연 공간

- 2층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은 민주주의 역사와 개념에 충실하며 민주주의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함.



전시실 내부 전경

늘펼쳐보임방 개요도

[그림 29]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2층 상설전시실

- 3층 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은 민주공원의 성격에 맞는 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와 퍼포먼스 등을 위한 공간으로 특별 및 기획전시 장소로서 부채꼴 모양의 형태이며, 민주공원의 기획전시를 비롯한 작품전시 등 대관 전시도 가능한 공간임.





전시실 내부 전경



민주주의 자료보존실 개요도

[그림 30]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기획전시실

- 3층 민주주의 자료보존실은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사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시민, 학생, 연구자들에게 전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과제를 마련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됨.



자료보존실 내부 전경



민주주의 자료보존실 개요도

[그림 31]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민주주의 자료보존실

- 부산민주공원의 야외공간은 장승터, 야외극장, 추모조형물, 민주횃불과 램프 등으로 구성됨.
  - 장승터 : 민주부산의 '소도'로서 1999년 '민족통일대장부'와 '민족평화여장부' 두 장승이 민주공원 입구에 세워졌고, 2008년 정월대보름에 '민주평화여장군'과 '민주통일대장군'이 두 번째로 세워졌음.
  - 야외극장 : 행사나 공연, 발표회의 내용에 따라 바깥놀이 마당(야외공연장)과 어렴사리 마당(고난의 장), 원형램프 1층 원형무대, 장승터, 바람의 장(옥상 전망대) 등 여러 장소에서 갖가지 행사가 열림.



장승터



야외극장

[그림 32] 부산민주공원 장승터와 야외극장

- 추모조형물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한 인물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2003년 7월 20일 준공되었음.
- 민주촛불과 램프 : 내부에 수많은 반사재질의 작은 조각들을 설치하여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이름없는 별들을 형상화한 것임.



추모조형물 '민주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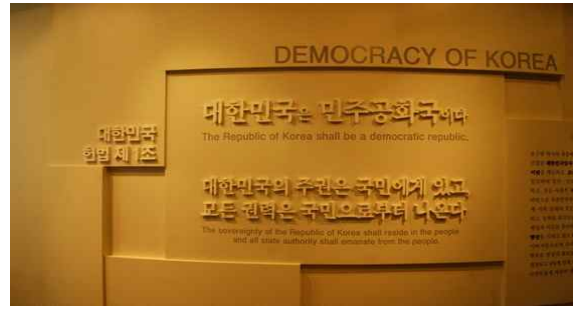
민주촛불과 램프

[그림 33] 부산민주공원 추모조형물과 민주촛불

## ■ 주요 전시 및 콘텐츠

- 민주항쟁기념관 2층 늘펼쳐보임방은 상설전시실로, 1999년 민주공원을 개관한 이래 두 차례(2003년, 2011년)의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과 체험이 연계된 전시들을 마련하였음.
- 늘펼쳐보임방은 앞마당, 민주의 길머리, 민주항쟁의 현장, 억압과 통제의 감옥, 질곡을 넘어 승리로, 희망의 너른 품, 비침마당, 세상 속으로 등 8개의 열개로 구성되었음.<sup>4)</sup>

4) 늘펼쳐보임방 전시를 이루는 8개의 열개는 다음과 같음.



[그림 34] 부산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 내부 사진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lka74&logNo=220989621040&proxyReferer=https://www.goog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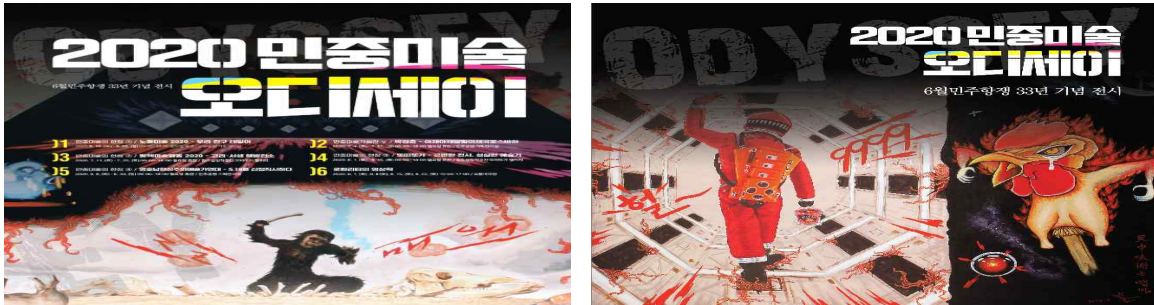
[그림 35] 부산민중공원 늘펼쳐보임방 전시작품 및 참여마당

출처: <https://geodaran.com/2915>

구분	주요 내용
앞마당	달팽이길을 따라가다 늘펼쳐보임방에 들어서면 ‘민중미술 파사드(facade)’가 방문객을 맞이하며, 근현대사 속에서 스러지고 다시 일어서며 곳곳이 살아가는 민중 삶의 씨줄과 날줄이 오늘의 우리를 향쟁의 자리로 이끈다.
민주의 길머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부산민주항쟁 길눈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선다.
민주항쟁의 현장	민주를 위해 살아왔던 항쟁의 숨소리를 속속들이 만나본다. 해방 이후 1960년 4월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21세기 이후의 촛불시위까지 당당하게 이어지고 있는 항쟁의 산맥을 만난다. 굽이굽이 민주의 불씨는 햇불에서 들불로 다시 촛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억압과 통제의 감옥	우리 근현대의 다른 면은 억압과 통제의 마당이었다. 그 마당을 독재가 굽어보고 있었으며, 독재정권은 감옥이라는 틀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씨알들을 억누르고 가두었음. 독방의 체험으로 우리 근현대의 아픈 기억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질곡을 넘어 승리로	어두운 굴속에 들어선다. 먼저 항쟁의 거리에서 늘 메아리치던 구호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굴의 한 쪽 벽에는 갖가지 숫자와 문자들이 빛을 내며 흘러간다. 다른 쪽 벽에는 거리에서 싸우던 민주 시민들의 영상이 미끄러진다. 우리 근현대사를 살아왔던 민중들의 만다라가 저 너머 ‘검은 산 붉은 강’에 오롯이 살아있다.
희망의 너른 품	민주의 희망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민주의 갖가지 실타래에 우리 몸을 던져본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못생명이 어울리는 세상, 누구나 귀한 세상을 꿈꾸어 본다면, 서로 손 마주잡고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의 너른 품에서 놀고 놀다가 소감 한 마디는 필수!!
비춤마당	세상을 울곧게 살려낸 이들의 노랫소리는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민중가요와 함께 하는 노래마당은 우리의 어제를 떠올리고 오늘의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내일을 맞이하는 노래의 성전이다.
세상 속으로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간다. 항쟁의 거리에서 빛나던 들불이, 햇불이, 촛불의 몸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살아 꿈틀거리는 촛불의 몸등을 타고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펼쳐보임방은 기획전시실로, 다양한 전시와 퍼포먼스 등을 위한 특별 및 기획전시 장소임.



2020민주미술 오디세이(2020.6~8) 6월민주항쟁 33년 기념전시

[그림 36] 부산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 특별전시

출처: <http://www.demopark.or.kr>

- 잡은펼쳐보임방은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3월부터 다양한 전시를 갖고 있으며, 4월, 5월, 6월, 10월에는 항쟁기념일에 맞게 기획전시를 마련하며 어린이, 여성, 도시,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문화적 코드와 대상을 결합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음.

## ■ 사업 및 행사

- 부산민주공원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한 ‘민주주의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 자료는 유형별 분류(문서류, 도서간행물, 영상음성류, 사진필름류, 박물류 등)와 시대별 분류(1950년대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으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음.
  -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main>)와 5·18기념재단 아카이브([http://www.demopark.or.kr/Archive/518judge\\_01.asp](http://www.demopark.or.kr/Archive/518judge_01.asp))를 연동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함.



[그림 37] 부산민주공원 민주주의 아카이브

- 부산민주공원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늘펼쳐보임방 전시해설, 민주공원 탐방, 골목길 역사 탐방, 숲 체험 등의 체험학습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음.
- 늘펼쳐보임방 전시해설은 '민중, 민주를 말하다'를 주제로 상설전시실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민주공원 탐방은 민주화운동의 상징공간인 민주공원의 곳곳(장승터, 뉘기림마당, 가리사리 마당, 전망대 등)을 탐방하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을 둘러보는 것임.
- 골목길 역사 탐방은 부산 원도심의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며 북병산, 가톨릭센터, 보수동 책방골목, 초량왜관비 등 골목길에 숨겨진 옛날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임.
- 숲 체험은 민주공원의 숲속에서 수목화를 관찰하며 다양한 놀이와 함께 생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임.



늘펼쳐보임방 전시해설



골목길 역사 탐방

[그림 38]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매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여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민주시민상'을 시상하고 있음.
- 민주시민상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시상을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27회차에는 故윤일성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가 수상, 28회차에는 '감만동 8부두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대책위원회'가 수상함.

- 부산민주공원은 한국원폭2세 피해자 ‘김형률’과 민주열사 ‘박종철’의 추모제를 지내고 있음.
  - 원자폭탄 피해자 2세 고 김형률(1970~2005)은 평생 후유증(면역글로불린 결핍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 원폭2세 문제를 사회에 고발한 인물로, 민주공원은 故김형률의 6주기, 7주기, 11주기, 12주기, 14주기 추모제를 열어 기념하였음.
  - 6월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한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민주공원은 故박종철의 32주기 추모제를 개최하여 기념하였음.



제28회차 민주시민상



김형률 14주기 추모제

[그림 39] 부산민주공원 민주시민상과 추모제

- 부산민주공원에서는 약 5개월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및 청년 자원활동가를 매년 모집하여 역사기행 및 캠프 진행,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학술행사 지원, 민주공원 공연, 전시 및 문화행사 진행, 활동 내용 민주공원 공식 블로그 게시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활동혜택으로는 봉사활동시간 등록, 국내-해외 체험프로그램 우선지원, 전시-공연 관람, SNS활동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수료증 발급 등이 있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대처하여 민주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서와 체험학습지를 보내주는 사업으로 민주공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찾아가는 민주공원” 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접수방법 및 일정 : 6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민주공원 홈페이지 게시글 링크로 신청
  - 키트구성 :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구성

〈표 15〉 부산민주공원 “찾아가는 민주공원” 키트

구분	구성	유의사항
초등학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화로 보는 부산민주운동사 〈민주를 찾아서〉</li> <li>부산사람들의 이야기 〈민주랑 자유랑 노을자〉</li> <li>민주공원 학습지 〈민주주의 여행〉</li> <li>민주항쟁기념관 학습지 〈민주주의 여행〉</li> <li>민주공원 엽서 5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후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 드림</li> <li>개인의 경우 최대 2개(초등용2개 or 중등용2개 or 초등용1개, 중등용1개) 까지 신청 가능</li> </ul>
중등학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공원과 함께하는 〈부산민주화 역사여행〉</li> <li>역사 다시 읽기 1권 (랜덤증정)</li> <li>민주공원 학습지 〈민주주의 여행〉</li> <li>민주항쟁기념관 학습지 〈민주주의 여행〉</li> <li>민주공원 엽서 5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의 경우 최대 30개까지 신청 가능</li> <li>최대수량을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접수 취소될 수 있음</li> <li>후기를 작성하면, 추천하여 민주공원 상주단체의 공연티켓 2개 증정</li> </ul>

출처 : 부산광역시 통합 공지사향 (<http://www.busan.go.kr/nbnews/1438175>)



**접수 일정**  
6월 15일부터 선착순

**접수 방법**  
민주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링크로 신청

**배출 일정**  
7월 3일 ~

**유의 사항**  
신청 후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 드립니다.  
단체의 경우 최대 30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후기를 작성해주시면, 추천하여 민주공원 상주단체의 공연티켓 2매를 드립니다.  
(후기이벤트 관련 내용은 7월 3일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문의**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 790. 7416

[그림 40] 부산민주공원 “찾아가는 민주공원” 키트

### 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 개요

- 광주광역시 세계기록유산 소장 기관으로서 인류의 공동 유산인 ‘5·18민주화운동’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영구 보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에 활용하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설립함.
-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는 ‘항쟁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세계기록 유산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이 있고, 4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5층은 기록보존을 위한 수장고로 활용, 6층은 윤공희 전 천주교 광주 대장교의 집무실을 재현해 놓았음.

〈표 1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광주 동구 금남로 221(금남로 3가, 옛 광주가톨릭센터)
설립목적		• ‘5·18민주화운동’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영구 보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에 활용하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설립
개관		• 2015년 5월 13일
규모	부지면적	• 대지 1,500.5㎡, 연면적 5,450.19㎡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7층
사업비		• 2,736,745천원(국: 125,000천원 /시: 2,611,745천원)
운영 및 관리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시간		• 09:00 ~ 18:00
관람료		• 무료
공간구성	시민광장	• 무대 : 5·18정신의 계승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들을 다양하게 개최하기 위한 무대 조성(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펼쳐지는 5·18 RED FESTA 여름방학 기간 동안 5·18청소년 연극제, 5·18전국 고등학생토론대회 등 관련 행사들이 개최될 수 있는 공간) • 시민광장 벽면 연출 : 벽면 디자인
	지하 1층	• 방재실 / 기계실 / 전기실
	1층	• 상설전시실1 / 시민광장 / 안내데스크(유모차보관소) / 방문자 센터 / 관리실
	2층	• 상설전시실2
	3층	• 상설전시실3 / 기획전시실 / 영상실 / 방명록 코너
	4층	• 자료 열람실 / 어린이 열람실 / 수유실 / 간행물실
	5층	• 수장고
	6층	• 상설전시실4(대주교 집무실, 침실) / 스튜디오 / 관장실 / 사무실
주요사업		• 전시, 기록물 보존 새로운 증언과 숨겨진 자료 수집, 확보, 정리 •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포럼 개최 • 온라인 전시관 운영
관계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홈페이지		• <a href="http://www.518archives.go.kr/">http://www.518archives.go.kr/</a>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518archives.go.kr/>)

## ■ 건립과정 및 연혁

- 1994년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자료실’을 설치해 일기, 연설문, 사진 등 민간 자료부터 계엄포고령, 사태일지, 회의록 등 국가 행정 자료까지 관련 기록물과 유품 등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음.
- 2010년 5·18 기록물의 중요성에 공감한 이들이 모여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1년여에 걸친 심사 끝에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는 총 4,217권 858,904쪽에 달하는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음.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발발, 진압,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과정에서 정부, 국회, 군대, 시민과 단체,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된 방대한 자료들로 구성
- 2012년 5·18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3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해 10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사업비 약 27억 원(국비 약 1억 원, 시비 약 26억 원)으로 건립이 추진되어 2015년 5월 13일 개관하였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성은 기록유산 등재 심사과정에서 유네스코와 약속한 것임.
- 2016년 11월 15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내 꼬마평화도서관을 개관했고, 2020년 9월 1일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하였음.

〈표 1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건립과정 및 연혁

구분		주요 내용
2011	05.25	•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2	09.11	• 5·18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2013	07.01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례제정
	10.01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추진기획단 구성
2014	05.13	• 기공식 개최
2015	05.13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개관
2016	11.15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내 꼬마평화도서관 개관
2020	09.01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온라인 전시관 개관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518archives.go.kr/?PID=031>)



## ■ 입지여건

- 그동안 여러 곳에서 흩어져 보관해 오던 5·18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보존, 전시하기 위해 1980년 5월 역사적 현장이었던 옛 광주가톨릭센터에 2015년 5월 13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조성하였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옛 전라남도청과 300~400m 거리에 있는 금남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7년 광주대교구 신부들이 호헌조치에 저항해 단식 투쟁을 벌인 곳이기도 함.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전일빌딩245, 옛 도청, 녹두서점엠티 등이 있어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 활용 가능성이 큼.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하철 금남로4가역(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함.
  - 금호36, 지원45, 금남59, 마을715 등 70여대 이상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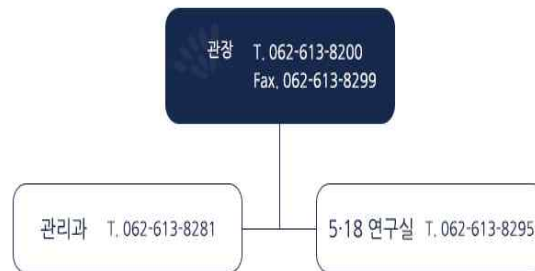


[그림 4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위치도

## ■ 조직 및 운영관리

### ○ 조직 내용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맡음.



[그림 4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직도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직은 1과 1실(관리과, 5·18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직원은 총괄소장 1인 포함 총 27명(2020년 6월 기준)

〈표 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서와 주요업무

부서	인원(명)	주요업무
관리과	12	• 인사, 서무, 운영, 시설 대관 등
5·18연구실	14	• 기록물 관리, 전시실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전시실 안내 등

출처 : 5·18기념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518center/>)

- 운영예산 내용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예산은 2019년 2,576,088천 원, 2020년은 전년대비 약 6% 증액된 2,736,745천 원임.

〈표 19〉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예산

(단위: 천원)

시설명	운영예산		예산사업명	
	2019년	2020년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2,576,088	2,736,745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 1,110,765</li> <li>행정운영경비 : 1,465,323</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 1,201,703 (국 : 125,000 / 시 : 1,076,703)</li> <li>행정운영경비 : 1,535,042</li> </ul>

출처 : 광주광역시, 「2020 세입세출예산서」



## ■ 공간구성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3층에 주요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음.
  - 1층은 항쟁을 주제로 각종 사진과 영상, 조형물 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공간으로 구성됨.
  - 2층의 주제는 기록으로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를 비롯해 구술 증언 기록 등 기록물을 중심으로 5·18 전개 과정을 살피는 공간이며,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을 주로 이곳에서 볼 수 있음.
  - 3층은 유산을 주제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 공간으로, 등재 인증서와 다른 나라의 인권 기록유산을 살펴보면서 인권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됨.



[그림 4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경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4층은 5·18민주화운동 자료 및 도서를 읽고 대여할 수 있는 열람실, 5층은 수장고, 6층은 윤공희대주교실, 7층은 다목적 강당 및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음.
  - 4층은 열람실 방문객을 안내하고 도서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코너로 5·18민주화운동 자료 및 다양한 전문 자료와 일반교양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 열람실 정보검색코너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어린이와 보호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열람실과 수유실이 마련되어있음.



[그림 44] 5·18민주화운동기록관 4층 열람실 내부

- 5층은 수장고 내에 반입될 기록물들을 보존처리하는 공간이며, 지류 기록물 중 복사본을 보존하고 5·18민주화운동 전문 연구자 등의 관련 방문자들의 수장고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 등이 있음. 단, 수장고는 전시실이 아니므로 일반 관람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음.

〈표 2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층 수장고 기능

구분	기능
보존처리실	• 수장고 내에 반입될 기록물들을 분류
1수장고	• 지류 중심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간
2수장고	•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섬유류, 유품 등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간
3수장고	• 각종 문화예술품, 박물류를 보존하는 공간
영점수장고	• 사진, 필름, DVD 등 영상자료를 보존하는 공간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518archives.go.kr/?PID=034>)

- 6층은 대주교집무실, 침실, 기록물전시실(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보관 중인 각종 기록물 전시), 경당/세미나실(천주교 광주대교구의 기록물, 영상물 전시 및 상영)로 구성
- 7층은 5·18관련 세미나, 학술행사 등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과 세미나실로 구성



[그림 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주교집무실과 세미나실

## ■ 주요전시 및 콘텐츠

-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전시실은 1층(상설전시실1), 2층(상설전시실2), 3층(상설전시실3), 6층(상설전시실4)으로 살펴볼 수 있음.
- 1층 상설전시실1에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부의 생산자료, 시민들의 활동과 5·18 정신 계승 투쟁에 대한 문서, 사진, 영상 등 5·18기록물들이 집대성되어 있음.
- 군부독재의 청산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5월 16일의 촛불 대행진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항쟁, 이후 계승 투쟁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함축적으로 재현하고 있음.

〈표 2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층 전시실 전시 안내

주제	주요 내용
민주화 열망	• 군부독재를 청산하고자 평화적으로 행해졌던 5월 16일 햇불대행진을 소개
학살	• 5월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게 학살된 165명의 희생자와 계승·투쟁 과정 중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
저항	•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격렬해진 광주시민들의 모습
투사화보	• 계엄군의 언론검열에 의해 침묵하는 언론을 대신하여 시민 스스로 탄생시켰던 시민언론인 투사화보를 소개
헌혈	• 부상당한 시민군들의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을 했던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소개
어둠의 행진	• 어둠의 행진(역사적 결단) : 무장한 공수부대를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하던 광주시민과 시민군의 모습을 체험
대동세상	• (자치공동체) : 해방광주·대동세상의 상징이었던 〈양은 함지박〉을 소개
미완의 항쟁	• 미완의 항쟁 (행불자 그리고 5월 운동) : 공수부대에 의해 학살당하고 시신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행불자를 기리는 코너
유네스코 등재	•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을 소개
애도, 추모 공간	• 5월 민중항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야외 추모공간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518archives.go.kr/?PID=034>)



[그림 4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층 전시내용

- 2층 상설전시실2에는 민족·민주운동의 전통이 살아있는 의향 광주의 민중항쟁 역사와 광주·전남 지역의 유신체제 저항운동을 비롯하여 항쟁의 전야, 학살과 항쟁, 시민공동체 등 5월 민중항쟁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기록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또한 1980년 5·18민주화 운동 당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들이 계엄군의 잔인한 만행 앞에서 민주주의와 자치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5월 여성활동’ 코너가 전시되어 있음.

〈표 2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층 전시실 전시 안내

주제	주요 내용
의향	• 동학 농민 혁명을 시작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항쟁의 역사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향한 현재까지의 여정을 소개
항쟁의 전야	•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독재의 몰락, 민주화의 봄에 대해 소개
학살과 항쟁	• 신군부의 음모, 비상계엄령확대, 민주인사 및 학생체포, 학살과 만행에 대해 소개
가재! 도청으로	• ‘왜 우리는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패널로 소개
시민공동체	• 나눔과 봉사, 자치, 고립과 탈출, 시민군에 대해 소개
장렬한 산화	• 기록물, 유품 소개
어둠의 행진	• 어둠의 행진(역사적 결단) : 무장한 공수부대를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하던 광주시민과 시민군의 모습을 체험해보는 코너
확산	• 5월 운동 확산지도(해남, 영암, 목포, 무안, 장흥, 강진, 함평, 화순, 완도 등지의 항쟁확산과정 소개), 19일 아침 학생들이 나주, 목포, 해남 등 외지에 광주상황을 알리기 위해 공용터미널 집결 스토리를 패널로 소개
계승 기록	• 시민과 단체기록, 신문 및 자료집, 연구기록물, 공공기관 기록, 보상기록, 해외기록, 문화 예술 기록 소개
5월 여성활동	•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
영상실	• 각종 5·18민주화운동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는 소 영상관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518archives.go.kr/?PID=034>)



[그림 4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층 전시내용

- 3층 상설전시실3에는 5·18기록물과 세계인권기록물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인권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키는 공감의 장이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영국의 대헌장, 뉴질랜드의 여성 참정권 탄원서, 남아공 벨슨 만델라의 재판 기록 등 여러 나라의 민주·인권 기록물이 전시됨.

〈표 2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전시실 전시 안내

주제	주요 내용
세계기록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8민주화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 과정, 세계인권기록물(20개코너)에 대해 설명</li> </ul>
5.18민주화운동기록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8기록관의 주 업무(기록물 관리, 수집 위주) 및 수장고에 대해 소개</li> </ul>
유산, 공감의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와 현재 금남로의 모습을 비교 및 조망해볼 수 있는 창가 통로공간 조성</li> </ul>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람후기(디지털방명록, 아날로그 방명록)를 남길 수 있는 공간 조성</li> </ul>
영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책 '왕이 되려는 나쁜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5·18의 도입부분 풍자. 고등학교 만복과 만복이 짝사랑하는 대학생 영미가 주인공으로 등장. 두 주인공이 5·18의 주요 사건들을 겪어 가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전달</li> </ul>
기획전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전시실 조성</li> </ul>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518archives.go.kr/?PID=034>)



[그림 48]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전시내용

- 6층 상설전시실4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보관 중인 각종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음.
  - 진실의 눈 : “사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 지금도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지나면, 1980년 당시의 윤공희 대주교 집무실과 침실을 복원한 공간으로 그의 일생을 둘러볼 수 있으며, 당시 윤공희 대주교의 시선에서 바라본 5·18민주화운동의 처참한 모습과 계엄군의 만행이 멈출 수 있도록 활동한 기록 등이 있음
  - 또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보관 중인 각종 기록물과 각종 사진 기록물, 영상물들을 전시 및 상영하는 공간이 구성되어있음.



## ■ 사업 및 행사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예약 및 정기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함.
  - 운영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 정기해설은 10시, 11시, 14시, 15시, 17시 30분에 진행
  - 안내언어는 한국어이며, 다른 언어를 원하는 경우 통역사 동행이 필요함.
  - 온라인 및 전화접수 가능하며, 약 40~50분 정도 소요됨.
  - 오디오해설 기기 대여가 가능하며, 4개국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됨.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학예사와 함께하는 기록관 체험, 어린이인권교실,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오월&금남로 답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학예사와 함께하는 기록관 체험은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기록관 4층 자료실에서 학예사와 함께하는 기록관 견학, 학예사의 전문적인 업무, 직업에 관련된 체험학습을 운영함.
  -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오월&금남로 답사는 1코스(5·18민주화운동기록관 → YWCA → YMCA → 전일빌딩 → 5·18민주광장 → 전남도청), 2코스(5·18민주화운동기록관 → 홍남 순변호사 가옥 → 옛광주 mbc → 녹두서점 → YWCA → 전일빌딩 → 전남도청 → 5·18민주광장)를 답사하는 체험프로그램임.



학예사와 함께하는 기록관 체험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오월&금남로 답사

[그림 49]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체험프로그램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함.
  - 2016년 11월 23일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감히! 광주정신, 하필? 광주정신」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주최하고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路가 주관하는 제4회 광주정신 포럼을 개최함.
  - 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아 2020년 6월 11일 아카이브 전시의 기본적인 성격과 기록관 전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예술표현 방식의 접목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중과의 적극적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전시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포럼을 개최함.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홍보관을 통하여 간행물/이달의 도서를 매달 발행하고 있음.
  - 간행물 『기억과 기록』은 5·18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과 자료들/5·18민주화운동관련 소설/MOU소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책들을 추천도서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독서를 권장하고 있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세계기록유산 국가(지역) 간 교류 및 국제적 지원 활동을 수행함.
  - 2017년 5월 광주시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광주와 유사한 민주화항쟁 기록물인 미얀마의 ‘88항쟁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진행
  -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제주4·3평화재단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련업무 및 기록전시·교육·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전시관을 개관함.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선보이는 온라인전시관은 상설전시실(1~3층 및 6층)을 360도 VR과노라마로 촬영한 영상과 2020년 제주전시를 비롯해 5·18기록관이 진행해온 모든 전시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해설을 포함해 공개함.
  - 향후 영어·독일어·프랑스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다국적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임.



[그림 5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온라인 전시관

## 4. 민주인권기념관

### ■ 개요

- 민주인권기념관은(가칭)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 내에 약 6,660㎡ 규모로 조성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258억 원(전액 국비, 행정안전부 직접수행)을 투입해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임.
- 본 기념관은 본래 1970~80년대 대표적인 고문 시설로 악명을 떨치던 남영동 대공분실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새기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재활용 됨.
  - 2005~2018 경찰청 인권센터로 활용, 2018년 12월 (경찰청→행정안전부) 이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위탁 관리함.
- 과거의 유물을 잘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감성적·체험적 접근으로서 관객과의 다양한 소통방식(큐레이터의 전시연계 토크 프로그램, 관객과 일대일 퍼포먼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함.

〈표 24〉 민주인권기념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
설립목적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20년 숙원사업으로 국민청원 및 시민운동을 통해 남영동 대공분실의 민간 활용을 결정함(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건립)
개관		•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 나아가 평화를 포괄할 수 있는 대표 기념관으로 조성
규모	부지면적	•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 공간 그대로 전시, 민주인권기념관은 2022년 개관 예정
	건축규모	• 남영동 대공분실 연면적 3,037㎡, 부지 내 연면적 6,660㎡ 규모로 민주인권기념관 증축 예정
사업비		• 1976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어 사용되었고, 1983년 12월 7층으로 증축되어 현재 모습 갖추
운영 및 관리		• 총 25,871백만 원(국비100%, 행정안전부 직접수행)
운영시간		•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책임, 시민사회와 함께 임시 운영
관람료		• 09:30 ~ 17:30
공간 구성	남영동	• 무료
	대공분실	• 현재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민주인권 기념관	• 분실동(대공 용의자 조사), AMD동(통신 정보 분석업무), 부속동(식당 및 기계보일러실)
주요사업		• 2019년 12월 13일 민주인권기념관 설계안 최종 선정(디아건축사사무소 설계안 최종 당선)
관계법		• 치유의길, 참여전시실, 아카이브실 등 방문객의 자발적 참여 및 체험, 사색 공간 조성 예정
홈페이지		• 시민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 자원봉사단 운영, 7층 강당 대관 사업(시민사회단체 대상 무료 사용 가능)
		• 사료 기증, 고문피해 신고 접수(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록행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a href="https://dhrm.or.kr/">https://dhrm.or.kr/</a>

출처 : 민주인권기념관 공식 홈페이지(<https://dhrm.or.kr/>)



## ■ 건립과정 및 연혁

-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어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로 사용되다가 1983년 7층으로 증축되며 현재 모습을 갖추.
- 2018년 12월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곳의 관리운영 책임을 맡아 시민사회와 함께 임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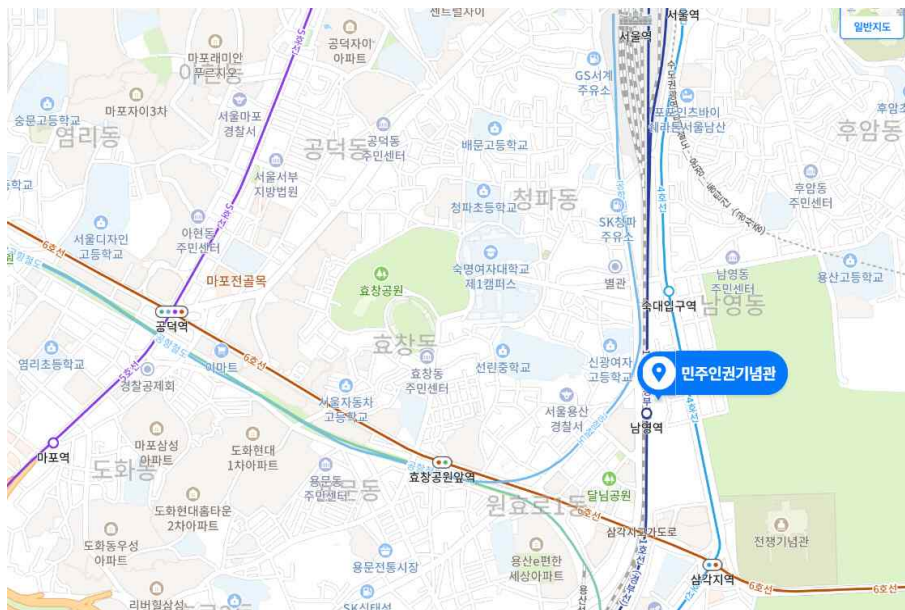
〈표 25〉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정 및 연혁

구분		주요 내용
1976	1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무부 장관 김치열, 남영동 대공분실 발주, 공간건축연구소에서 수주</li> <li>남영동 대공분실 착공(1977년 11월 준공)</li> </ul>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영동 대공분실 증축 설계 및 시공</li> </ul>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보안분실로 변경</li> </ul>
1992	0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 이전 : 내무부 치안본부 → 경찰청</li> </ul>
1995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대동령에 기념관 건립에 관한 보고서 제출</li> </ul>
200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 사업회 주관으로 기념관 사업 추진</li> </ul>
2005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세웅 이사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협의로 경찰청 제안,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 교육센터' 활용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li> </ul>
2007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화문 후보지(서울 덕수초 인접부지) 정부에 요청</li> </ul>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 및 문화재보호단체 민원으로 후보지 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종철 기념 전시실 및 경찰청 인권교육 홍보자료실 리모델링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고문과 가해의 현장이었던 5층 조사실 상당수 변형)</li> </ul>
2008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칭)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6차 회의, 남영동 대공분실 전당 건립부지 의결</li> </ul>
2009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칭)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8차 회의, 남영동 대공분실 포함 여타 부지도 후보지로 함께 검토 의결</li> </ul>
20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장,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청 남산별관(옛 안기부 건물) 제안</li> </ul>
2012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장-서울시장 면담 : 남산별관 장기임대 추진 MOU 체결 합의 (13~14년 예산 미반영 : 광주, 창원지역과의 합의 부재 사유)</li> </ul>
2015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장-서울시장 면담 : 남산별관 남영동에 대한 의견 교환</li> </ul>
2015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장, 행자부 장관에 남영동 부지 협조 요청</li> </ul>
2016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재정부와 업무시설 이전 협의-업무시설 이전('18년 4월)</li> </ul>
2017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대협30주년 행사장에서 서울시장 및 참석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남영동에 대한 의견 청취</li> </ul>
201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기 이사회, 기념관 건립사업 조기추진 의결, 기념관건립위원회 구성과 부지 확정 등에 집중</li> </ul>
2018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재결성 준비 간담회 개최</li> </ul>
2018	0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경찰청 등) 회의</li> <li>남영동 대공분실을 행안부로 이관한 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관리위탁 추진 합의</li> </ul>
2018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 남영동 대공분실을 활용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발표</li> </ul>
2019	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 이전 : 경찰청 → 행정안전부</li> </ul>

출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

## ■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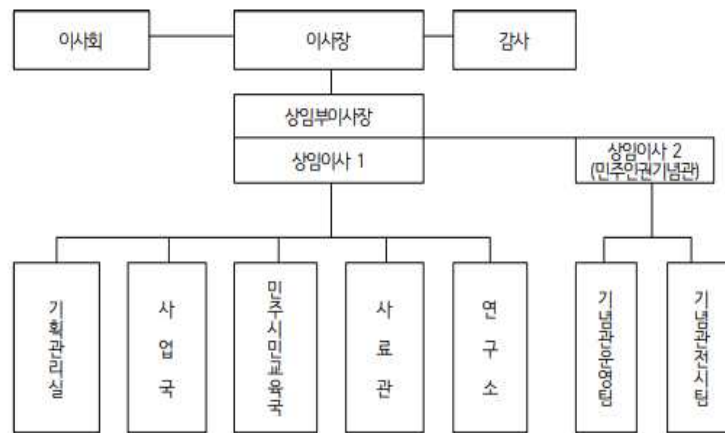
-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신축되어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로 사용되었던 장소로(1983년 12월 7층으로 증축),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00해양연구소’라는 간판으로 위장되었으며, 명목상 ‘국가안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의 전위대였음.
-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났으며, 현재 대표적인 국가폭력의 장소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됨.
- 민주인권기념관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전쟁기념관, 효창공원, 숙명여자대학교 등 주변 문화 및 교육시설과의 연계 활용 가능성이 큼.
  - 민주인권기념관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1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 거리(약 158m)에 위치하며,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삼각지역을 통해 접근 가능함.
  - 또한 남영역에서 03-130번, 03-111번, 03-131번, 03-230번 등 버스로도 이동 가능함.



[그림 51] 민주인권기념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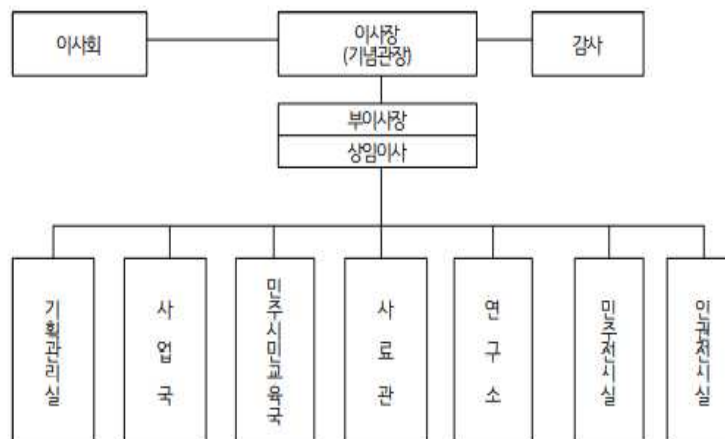
## ■ 조직 및 운영관리

- 민주인권기념관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관리 책임을 맡아 임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개관 이후로는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임.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민주인권기념관에 적합한 조직으로 3개의 안이 제안되었음.
  - 조직 1안 : 상임하는 이사를 2명 두어 기념관장을 상임하는 이사로 보하고, 사업회의 다른 국보다 기념관 조직의 위상을 높게 설정하며, 기념관에 2개 팀을 두어 시민교육국, 사료관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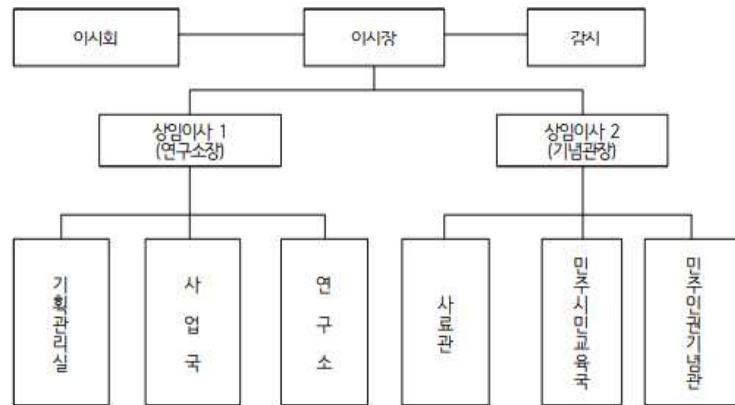
[그림 52] 민주인권기념관 조직도 1안

- 조직 2안 : 이사장이 기념관장을 겸하고, 기념관에 2개 팀을 두어 시민교육국, 사료관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며, 기념관이라는 기구는 별도로 두지 않음.



[그림 53] 민주인권기념관 조직도 2안

- 조직 3안 : 상임이사 2명을 두고 산하에 3개 기구를 각각 설치하며 상임하는 이사 중 1인이 기념관장을 겸함.



[그림 54] 민주인권기념관 조직도 3안

- 또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이후 1년간의 운영비는 기존 사업회 운영비 외 증액 예산을 약 42억 원으로 산출함.

〈표 26〉 민주인권기념관 운영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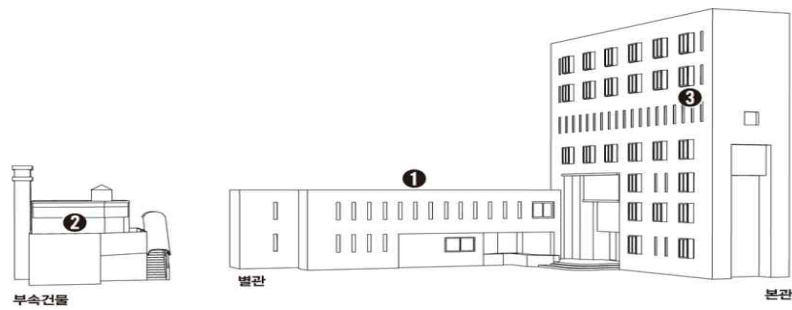
(단위: 천원)

시설명	운영예산	주요세목
	2022년	
민주인권기념관	4,2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2,2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장 1인, 직원 30인, 공무원 10인 인건비</li> </ul> </li> <li>• 행정사무경비 5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회의운영비, 연구개발지 등</li> </ul> </li> <li>• 전시장 등 시설 운영비 1,40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시설비,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 등</li> </ul> </li> </ul>

출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

## ■ 공간구성

- 현재 민주인권기념관은 크게 분실동, AMD동, 부속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중 분실동과 AMD동은 2층까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음.



[그림 55]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 건물 위치도

출처: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소개 (<https://dhrm.or.kr/unlock>)



[그림 56]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 전경

출처: 한국경제매거진 & 한경 잡앤조이 (<http://jobnjoy.com/>)

- 분실동은 과거 대공 용의자를 조사하던 곳으로, 지상1~7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임.
- 지상 1층은 현재 오리엔테이션 룸과 전시실이 주요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공간은 로비와 화장실, 계단실, 창고 등 부속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지상 1층 전시실



지상 1층 원형계단

[그림 57] 분실동 지상 1층 공간

- 지상 2층은 사무실, 휴게실, 시스템실, 서버실, 통신실, 숙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시스템실에는 통신 설비가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1976년 원 도면에서 확인되는 코어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승강기 중 직원용은 전 층을 운행하도록 설계되고, 피의자용 승강기는 1층과 5층만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지만 둘 다 전 층 운행 가능함.



지상 2층 피의자용 승강기



지상 2층 비상계단실 철제 계단

[그림 58] 분실동 지상 2층 공간

- 지상 3층은 5개의 사무실과 2개의 예비실, 그리고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3층에서는 특수조사실이 존재하며 화장실이 독립실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배 이상 넓음. 따라서 3층과 7층은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했던 지휘본부가 위치했던 곳임.





지상 3층 특수조사실 내 화장실



지상 3층 예비실 옆 계단

[그림 59] 분실동 지상 3층 공간

- 지상 4층은 2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그리고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故박종철 유물과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음. 2층 및 3층과 달리 4층은 실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이전과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지상 4층 故박종철 유물 전시실



지상 4층 전시실

[그림 60] 분실동 지상 4층 공간

- 지상 5층은 지상 5층은 15개의 조사실과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 동서 방향으로 위치한 긴 복도를 중심으로 조사실들이 있으며, 남측으로 10개, 북측으로 5개의 조사실이 배치되어 있음. 특히 조사실 15호는 1985년 故김근태 씨가 조사받았던 곳으로, 다른 조사실에 비해 2배나 큰 규모이며, 현재 김근태 씨를 추모하기 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 조사실들은 모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던 상태 그대로 있음.
- 지상 6층은 현재 사무실과 회의실 창고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창고는 두 개가 존재하며 각각 동측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출입이 가능함.
- 지상 7층은 대공분실로 사용될 당시에는 대공부실 책임자의 공간으로 고문과 간첩조직을 지휘한 지휘부가 위치했던 곳이나 현재는 교육장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음.





지상 5층 전시실



지상 7층 대회의실

[그림 61] 분실동 지상 5층과 7층 공간

- 옥탑층에는 기계실과 배풍 및 물탱크실이 존재함.



옥탑층 기계실



옥탑층 물탱크실

[그림 62] 분실동 옥탑층 기계실과 물탱크실 정면

- AMD동은 과거 통신 정보 분석업무를 하던 곳으로, 지상1~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임.
- AMD동은 분실동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신축 당시 도면에 분실동과 AMD동에 각각 숙직실이 존재했던 것으로 미루어 기능적으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AMD동 원 도면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통신 및 정보분석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재 관련 시설이나 장비가 완전히 철거되어 구체적인 실의 사용방법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지상 2층 사무실

지상 2층 계단실

[그림 63] AMD동 지상 2층 공간

- 부속동은 과거 식당 및 기계보일러실이 있던 곳으로 지하1층~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임.
- 부속동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전기 및 기계실이 위치하며, 현재 오일 탱크실로 들어가는 문은 폐쇄되어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이 초기의 모습 그대로 잘 남아있음.
- 부속동의 지상 2층은 식당과 부속실로 구성되어 있음.



지상 2층 사무실

지상 2층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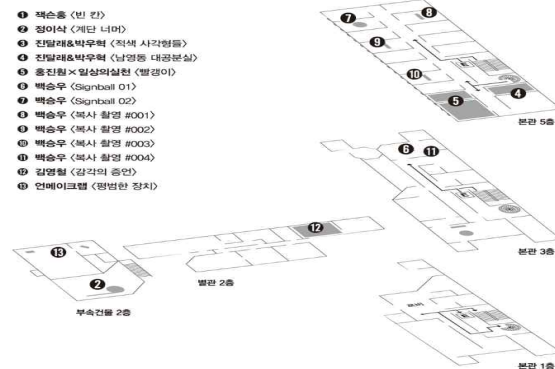
[그림 64] 부속동 지상 2층 식당 및 주방

## ■ 주요전시 및 콘텐츠

- 전시회는 주로 본관(분실동)에서는 1층과 3층, 4층 전시실, 5층 조사실, 별관은 2층, 부속 건물도 2층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음.
- 민주인권기념관에서는 2019년 6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기념관 본관 3층, 5층, 별관 2층, 부속건물 2층에서 <잠금해제> 전시를 개최함.
- ‘기억’이라는 주제가 한국 사회에서 몹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현재, 민주화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함께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해 전시됨.
- 이 전시는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남영동 대공분실의 거의 모든 공간에 다양한 작품과 모습으로 전시됨.



전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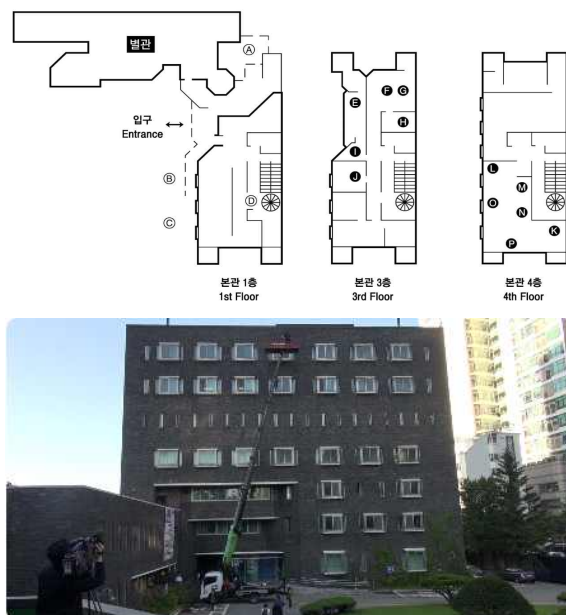
전시 공간

[그림 65]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잠금해제〉

- 또한 2019년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념관 본관 1층, 3층, 4층 외에서 퍼포먼스 등을 포함한 <끝없는 여지> 전시를 개최함.
- 작품들은 장르를 혼합한 퍼포먼스와 영상, 설치 작품 등이며, 작가들 들은 전체주의를 경계함.
- '똑같이' 하라는 요구는 그때의 대공수사관들을 떠올리게 하며, 남영동 대공분실이 감추려 했던 것에서 멀어지지 않기. 쉽게 결론 내지 않기. 이 끝없는 가장자리 속에서 이미지를 구하려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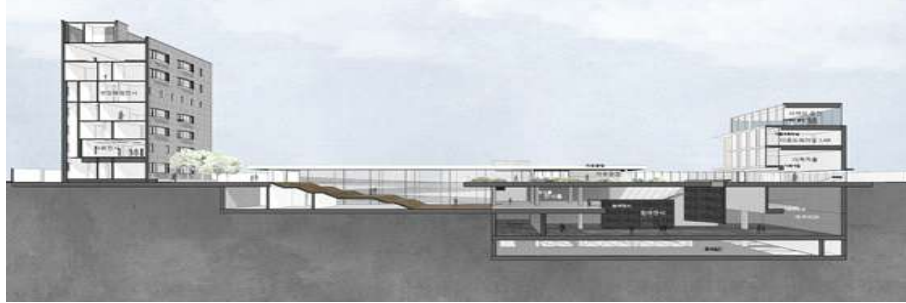
전시 포스터



전시공간 및 퍼포먼스

[그림 66]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끝없는 여지〉

- 민주인권기념관은 기존의 건물과 신축되는 건물, 야외공간을 연계한 종합적인 전시 공간 구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sup>5)</sup>
- 신축 건물의 ‘상설기획참여전시, 자유광장, 치유의 길’(설계공모 당선작) 전시 공간 구성



[그림 67] 옛 대공분실(좌측) 및 신축되는 민주인권기념관(우측)  
단면계획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12.20.)



[그림 68] 신축되는 민주인권기념관 자유광장 및 치유의 길(좌측)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12.20.)

- 또한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는 개념 아래 기존 건축물과 부지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주요 전시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예정이다.

5)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안요청서」(2020.02) 내용 참조





참여전시실



지하 전시 공간

[그림 69] 신축되는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공간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12.20.)

- 대한민국 현대사인 민주화운동의 주요시기 및 주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체계를 구성할 계획임(패널방식 및 연대기 서술방식 지양).
- 시기별, 주제분야별, 지역별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시체계를 구성할 것임.
- 민주와 인권을 돌아보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면서, 청소년들도 쉽고 재미있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시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임.

## ■ 사업 및 행사

- 민주인권기념관은 자료집과 보고서, 사진, 동영상, 카드뉴스, 홍보자료(민주인권기념관을 말한다), FAQ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집과 보고서

카드뉴스

[그림 70] 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콘텐츠

- 민주인권기념관의 강당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09:30~17:30) 시민사회단체에 한하여 구비시설(컴퓨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등)과 함께 대관이 가능함.
- 또한 민주인권기념관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주인권기념관의 자원봉사자(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 남산~남영동 올레길 프로그램 : 일반시민(개인, 단체, 가족)을 대상으로 남산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민주인권기념관까지 해설을 들으며 걷는 역사 체험프로그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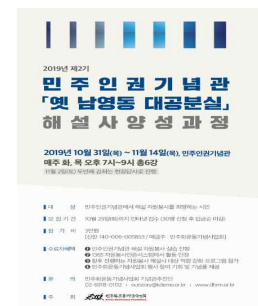


남산~남영동 올레길 체험 프로그램

커리큘럼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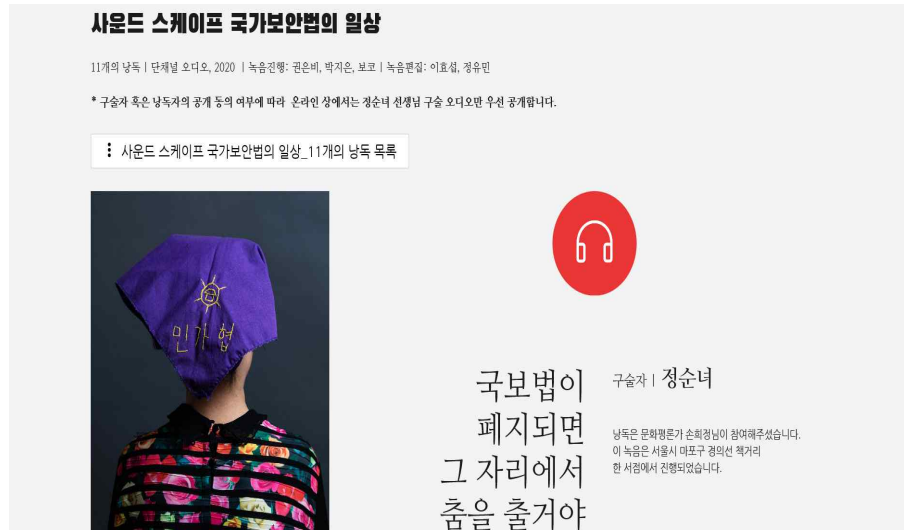
10.31 (토) 10.00	책 책 책	책 책 책
11.01 (토) 10.00	책 책 책	책 책 책
11.03 (토) 10.00	책 책 책	책 책 책
11.05 (토) 10.00	책 책 책	책 책 책
11.07 (토) 10.00	책 책 책	책 책 책
11.09 (토) 10.00	책 책 책	책 책 책
11.11 (토) 10.00	책 책 책	책 책 책
11.13 (토) 10.00	책 책 책	책 책 책

민주인권기념관 해설사 양성과정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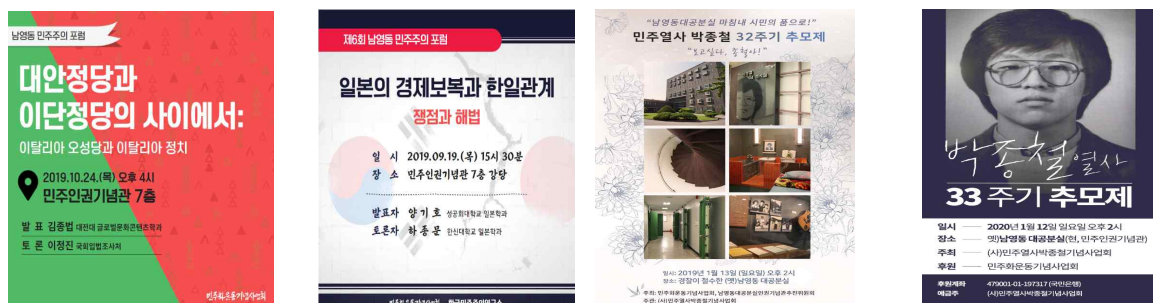
[그림 71] 민주인권기념관 올레길 프로그램과 해설사 양성과정

- 민주인권기념관 해설사 양성과정 :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해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수료자에 한하여 해설 활동시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인정, 해설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등의 기회를 제공함.
- 페이스북 이벤트 :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와 온라인전시 관람 인증샷을 등록하는 이벤트를 통해 민주인권기념관의 온라인 전시 관람을 활성화하고자 함.
- 온라인전시관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픈이 예정된 전시를 온라인 관람으로 전환하여 제공함.



[그림 72] 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전시관

- 민주인권기념관에서는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큰 화를 입은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 포스터

박종철 열사 추모제

[그림 73]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과 박종철 열사 추모제



## 5. 국내사례 시사점

- 국내 기념관은 박종철기념관, 이한열기념관 등 기념의 대상이 인물 개인인 경우와 3·15기념관, 4·19혁명기념관 등 역사적인 사건 또는 개념들을 주제로 하는 경우로 구분됨.
-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2·28민주운동,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임.

〈표 27〉 국내 사례 시사점 정리

	주요 내용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외형, 도심외곽형 (특정 목적으로 찾아감)</li> <li>• 도심형 (문화시설 기능 수행 및 일상생활 연계)</li> </ul>
조직 및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행정, 시설관리 중심 → 다목적 조직체계 변화</li> <li>• 운영 효율화 지향</li> <li>• 학예 전시 기능의 다양화</li> <li>• 시민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li> <li>-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에 따른 수요 반영, 다양한 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 정보센터·자료실 다각적 활용 (아카이브 구축, 연구기능과 연계, 일반인들의 자유열람 가능)</li> <li>•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 네트워킹, 국제사회 공조로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li> </ul>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중심 공간 구성 (편안한 접근 동선)</li> <li>• 나열식 공간사용 지양, 공간별 특성 및 이야기의 흐름 강조</li> <li>• 복합문화공간 지향</li> <li>• 커뮤니티 공간 제공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활동장소 제공)</li> </ul>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나레이션 바탕의 감성적 정보전달 전시</li> <li>• 연구기능과 접목된 프로그램 수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 창출</li> <li>• 세계적,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조명과 연대</li> <li>• 현대적 민주주의 과제 모색</li> <li>• 관람객 참여 확대 (어린이 청소년계층을 위한 영역 확대)</li> </ul>
사업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뮤지엄 활용</li> <li>•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다양한 매체의 활용</li> </ul>

### ■ 입지

- 초기에 조성된 민주화 관련 시설들은 대부분 묘역과 함께 구성되어 추모형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교외나 도심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낮고 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최근 건립된 추모형 기념공간은 도시공원 혹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하고, 추모공간과 기념공간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음.

## ■ 조직 및 운영관리

- 초기에 건립된 기념관의 경우 연구 및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가 적어 프로그램 운영 보다 기념관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 최근 건립된 기념관은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와 전시가 결합, 상설전시와 기획전 개최 등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의 장 특화
- 기념관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세계 민주시민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기여

## ■ 공간구성

- 초기에 건립된 기념관의 건축 공간은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단일 목적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관리 위주의 동선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공간이 부족함.
- 최근 건립된 기념관은 관리공간과 서비스공간을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상가, 휴게실, 자료실, 참여 공간 등을 수요에 맞추어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 전시콘텐츠

- 초기에 건립된 기념관에서는 전시주체 영역의 협소함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Context)적인 정보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초기에 건립된 기념관의 전시기법은 단순한 진열형식의 전시기법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에 건립된 기념관은 체험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시에 접근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고려한 내용도 전개되고 있음.

## ■ 사업 및 행사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한 온라인전시관 활용 및 활성화
- 관람객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감성적·체험적 접근의 다양한 채널 활용 및 다양한 콘텐츠 생산

### 제3절. 국외 유사사례 분석

#### 1. 중국 사례 : 남경대학살 기념관

##### ■ 개요

- 남경대학살 기념관(공식명칭: 침화일군남경대도살우난동포기념관)은 강동문 집단학살 및 ‘만인갱’ 유적지 위에 1985년 건립되었으며, 역사 사료, 건축, 조각, 영상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난징 대학살’의 비극을 전시하는 역사박물관임.
- 일본의 남경대학살을 증거하고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기념관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평화 공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평화추구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관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음.
-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1985년 8월 개관 이후 두 차례의 확장공사를 거쳤으며, 현재의 기념관은 2007년 12월 13일 남경대학살 70주년에 맞추어 조성된 결과임.
- 전시구역, 추모지역, 평화공원과 수장교류 지역을 가진 기념·유적형 역사박물관이자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28〉중국 남경대학살 기념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중국 남경시 강동문 차정동가 195호
설립목적		• 난징대학살의 비극적인 역사를 잊지 않고자 건립
개관		• 1985.08.15 (1995년 보수 및 증축 작업, 2007년 확장 개관)
규모	부지면적	• 부지 7만 4천 평방미터(103,000㎡)
	건축규모	• 건축면적 2만 5천 평방미터 (57,000㎡) / 전시면적 9,800 평방미터 (20,000㎡) • 주 전시관 1개, 보조 전시관 2개
운영 및 관리		• 중국 정부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일요일 08:30~17:3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공간구성	실내전시	• 주 전시관 1곳, 보조 전시관 2곳
	실외전시	• 기념부조벽, 만인갱, 평화의 종, 어머니 상, 남경대학살증인 족형 동판로, 통곡의 벽 등
주요사업 및 행사		• 어린이를 위한 교육 (Programme for Children) 운영 • 국제평화학교 (International Peace School) 운영 • 자원봉사단 (Zijin Grass Voluntary Service Team of Learning form Lei Feng) 운영 • 난징대학살에 대한 역사학회 (Research Society of the History of Nanjing Massacre by Japanese Invaders) 운영 • 난징대학살 교재 발간 및 대중 공모사업 (난징 평화의 도시 우표 국제 디자인 공모전 등)
홈페이지		• <a href="http://www.19371213.com.cn/">http://www.19371213.com.cn/</a>

출처: 남경대학살기념관(<http://www.19371213.com.cn/>);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

## ■ 건립과정 및 연혁

- 1985년 남경시에서 건립하였고, 1997년, 2007년 보수 및 증축, 확장을 통해 재개관함.
  - 1차 완공 : 주 전시관, 계단, 자갈밭 및 조경, 기념부조벽, 유골전시관 완성
  - 2차 완공 및 이후 : 통곡의 벽, 금릉집난 상징공간, 동관조각로, 평화의 종 등
- 2014년 12월 13일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식 개최지로 기념관이 선정된 이후 매년 국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음.
- 현재 기념관은 난징 대학살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활동을 포함해서 학술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 난징 대학살과 관련한 모든 사회 활동의 중심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29〉 중국 남경대학살기념관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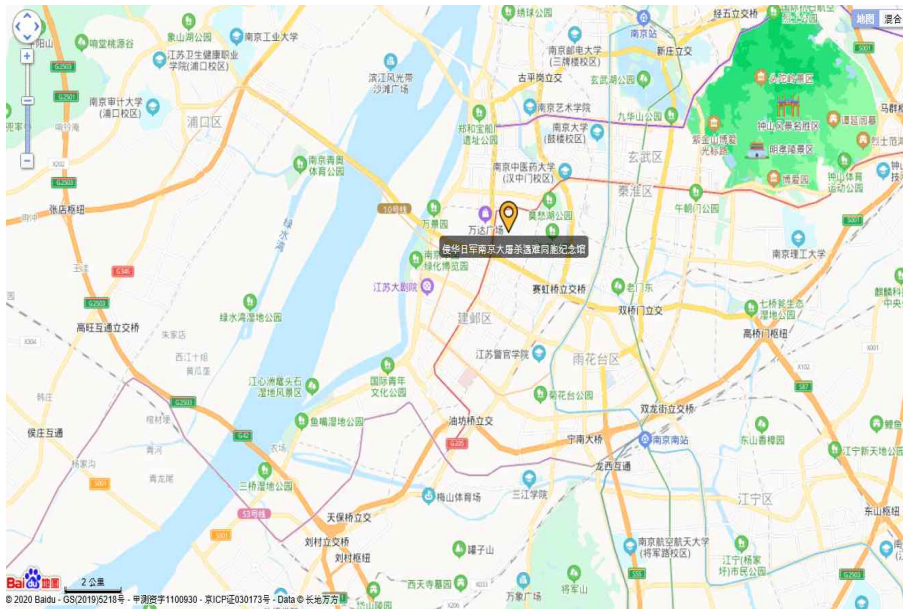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1985.	08.15	• 남경대학살기념관 공식 설립 및 개방
1995.	08.14	• 일본 침략자에 의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연구회(research society) 설립
	08.15	• 남경대학살기념관 2단계 엔지니어링 공사 완료
1998.	04.	• ‘만 시체의 구덩이(the pit of ten thousand corpses)’로 알려진 거대 무덤 발굴
2004.	03.01	• 난징대학살기념관 처음으로 무료 공개
	08.14	• 난징대학살 생존자 지원협회(Aid Society of Survivors from Nanjing Massacre) 설립
2006.	05.25	• 남경대학살기념관 국가주요문화유산 보호시설 선정
2007.	12.13	• 남경대학살기념관 3단계 엔지니어링 공사 완료
2008.	05.18	• 국립 일등 박물관(National-First Class Museum) 선정
2010.	09.08	• 학술위원회 설립
2014.	12.13	• 난징대학살 피해자를 위한 최초의 국립 기념식 개최
2015.	10.09	• 난징대학살 기록보관소 <sup>6)</sup> 세계기록유산 등재
	12.01	• Nanjing Lijixiang Comfort Station 부지의 디스플레이 홀
	12.07	• 남경대학살기념관 ‘세 개의 승리(Three Victories)’ 전시관 공식 공개
	12.13	• 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제2회 국립 기념식 개최
2016.	03.01	• 남경대학살 역사 및 국제평화연구소 설립
	12.13	• 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제3회 국립 기념식 개최
2017.	12.13	• 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제4회 국립 기념식 개최
2018.	09.19	• 국제 평화의 날(International Peace Day Activity) 공동 주최
	12.13	• 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제5회 국립 기념식 개최

출처 : 남경대학살기념관 (<http://www.19371213.com.cn/>)

6) ‘난징 대학살 기록물’은 일본과 중국의 문서 기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상과 사진, 일기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난징에 체류 중이던 미국·독일·덴마크 등의 교사나 선교사, 기자나 시민들이 기록한 난징안전지대(南京安全区)의 파일 등도 포함되어 있음. 이 기록물들은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는 강렬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에게 전쟁의 잔학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heritage.unesco.or.kr/>)

## ■ 입지 여건

- 기념관은 남경시 서부지역 남경시내에 입지해 있음.
- 기념관이 위치한 장소는 실제 대학살이 이루어진 장소로, 역사성과 현장성을 최대한 살린 장소성을 지니고 있음.
- 인위적인 연출효과나 조형적인 효과보다는 현장성에서 느껴지는 진실성이 담겨있음.



[그림 74] 남경대학살 기념관 위치



[그림 75] 남경대학살 기념관 전경

## ■ 조직 및 운영관리

### ○ 어린이를 위한 교육 (Programme for Children) 운영

- 중학생, 초등학생, 전문가 및 학자, 역사 증인 등 현역 및 퇴직 역사 교사를 포함한 자원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풍부한 경험 코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중 연구 및 운영 프로젝트 팀”을 특별히 설립함.

### ○ 국제평화학교 (International Peace School) 운영

- Zijin Grass International Peace School은 난징대학살의 역사적 지식을 대중화하기 위해 일본 침략자에 의해 난징대학살희생자 기념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학교임.
- 2017년 6월 5일 첫 수업이 시작된 이래 Zijin Grass International Peace School은 전문 강의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을 알리고 큐레이터와 의사소통하는 등의 강의와 실습을 결합하여 진행함.
- Zijin Grass International Peace School은 주로 유학생과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소수의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 시간은 매 학기마다 다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설정됨.
- 훈련 내용은 초청 역사가들이 가르치는 난징대학살의 역사에 관한 영어 세미나; Lijixiang Comfort Women Station 부지의 기념관 및 전시관 방문; 그 당시 안전지대의 원래 사이트 방문; 생존자와 대면하는 대화; ‘평화’를 상징하는 수제 Zijin 잔디 북마크 디자인과 같은 예술적 창조에 참여 등임.
- 코스가 완료되면 난징대학살희생자 기념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하며, 2018년 6월 말까지 30개국 이상에서 온 400명 이상의 유학생이 국제평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음.

### ○ 자원봉사단(Zijin Grass Voluntary Service Team of Learning from Lei Feng)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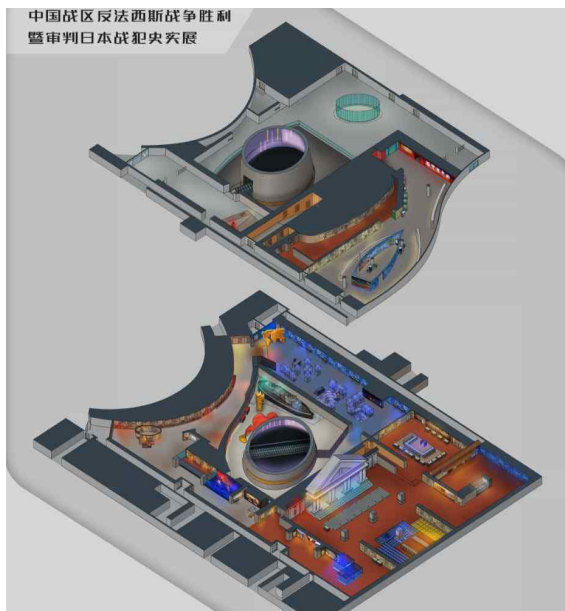
- “사회 교육 부문, 전문 서비스 부문, 보조 관리 부문”의 3가지 주요 카테고리화 "설명 서비스, 문명 안내, 예술 공연, 언어 번역, 문화적 유물 분류, 생존자, 미디어 홍보 및 응급 의료 지원 등을 봉사함.

### ○ 난징대학살에 대한 역사학회(Research Society of the History of Nanjing Massacre by Japanese Invaders)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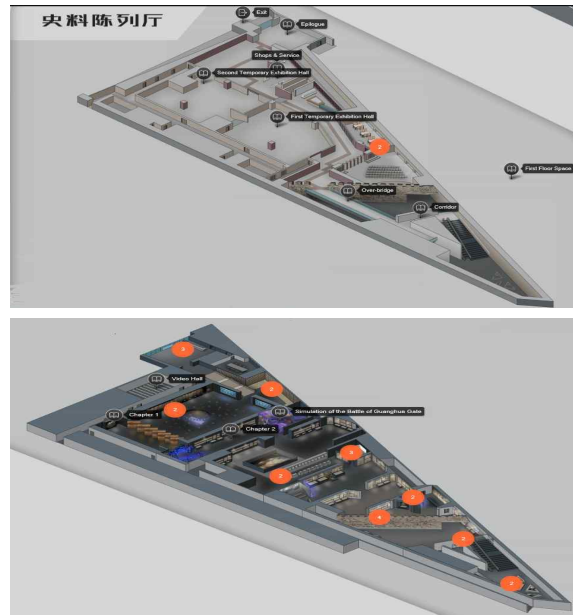
- 난징대학살과 난징 지역의 관련 문제에 관한 역사, 법률, 정치, 사회학, 저널리즘 및 기타 분야의 자발적 전문가, 학자 및 사회 복지사로 구성된 학문적, 비영리 및 지역 사회단체임.
- 본 회의 목적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난징대학살과 일본 잔학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고, 역사적 교육과 국제 교환 프로그램 수행하는 것임.

## ■ 공간구성

- 남경 시내에 입지해 있으므로 좁지만 역사적 공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가급적 인위적인 돌출공간이나 거대 조형공간을 지양했음.
- 난징대학살 기념관은 전반적인 동선체계 상에서 실외, 실내, 반 실내, 기획전시와 휴게실, 다시 실내전시로의 유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간체험을 가능토록 연출하고 있음.
  - 또한 결절점마다 중요한 상징적인 전시물을 배치하여 극적인 효과를 높임.
- 난징대학살 기념관의 주 전시관은 남경대학살의 전모를 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시설로 사진자료 및 설치물, 예술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보조전시관 2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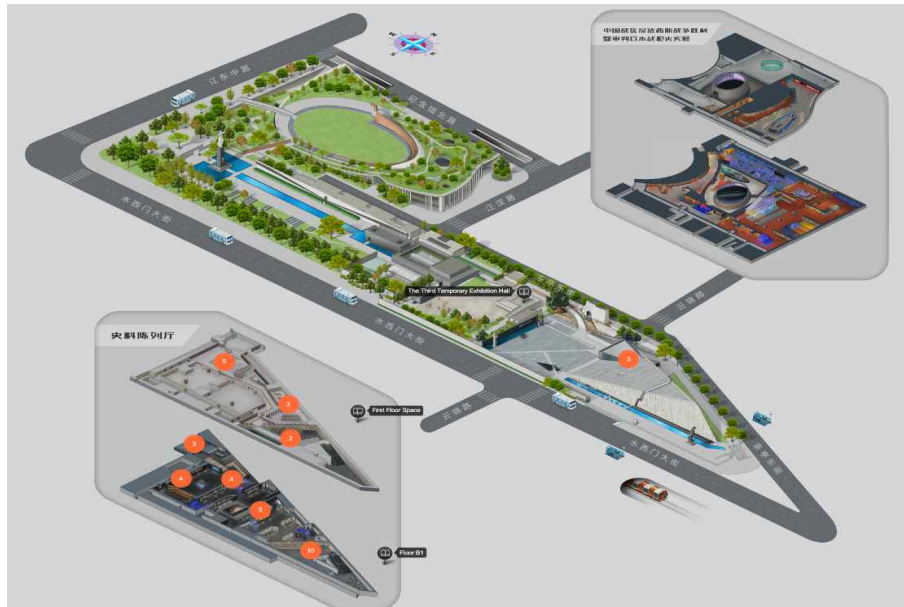


주 전시관 지하1층 지상1층

[그림 76] 남경대학살 기념관 전시관 공간 구성

- 동선체계는 금릉접난의 공간과 주 전시관의 지붕이 되는 넓은 자갈밭 사이에 이르는 계단을 중심으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꾀함.
- 진행 방향에 따라 사건의 전말을 느끼게 했으며 지하의 주전시관을 빠져 나오면 원래 출발했던 계단의 아래로 나와 동판로에 이르게 되어 있어 하나의 동선을 따라 전체 공간을 아우르게 하고 있음.
- 또한 난징대학살 기념관은 주어진 강제 유도 동선상에서도 결절점마다 선택적인 동선과 휴식시설, 복합 공간 영역 등을 두어 관람자의 자유로움을 허용하고 있음.





[그림 77] 남경대학살 기념관 전체 공간

### ■ 주요전시 및 콘텐츠

- 기념관은 야외와 실내로 나뉘어있는데 입장 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실외전시관에는 그대로 보존된 희생자들의 유골과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동상들이 전시되어 있음.
- 금릉겁난 상징조형 공간 : 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일본군들에게 학살당한 30만 명을 가리는 300000이라는 숫자가 각인된 피 묻은 칼을 상징하는 부조물이 있으며, 폐허가 된 남경을 상징 중산문의 잔재, 칼에 잘린 채 절규하는 두상, 생매장당할 때 발버둥치는 손, 파괴된 남경의 벽 등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음.



이름1



이름2

[그림 78] 남경대학살 기념관 금릉겁난 상징조형 공간

- 만인갱 : 외관은 유골을 담은 관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1차 기념관 건설 당시 발견돼 1998년 본격적으로 발굴한 208구의 유골이 학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전시되어 있음.
- 기념부조벽 : 남경대학살의 고통을 겪는 남경시민들의 다양한 현상을 형상화 부조물의 벽으로 길이 50여 미터에 이르는 작품으로 매우 깊은 인상을 주는 작품임. 재난과 학살, 추모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뉘져 있으며, 이 벽은 일본군의 살인, 방화, 겁탈과 같은 잔혹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음.



만인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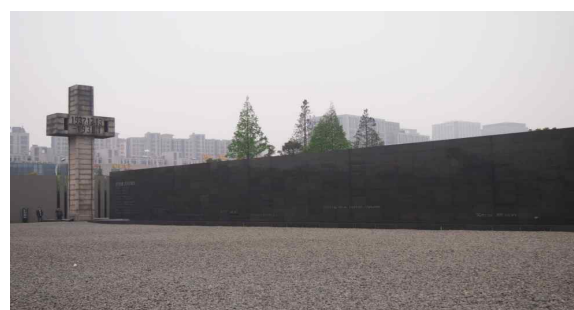
기념부조벽

[그림 79] 남경대학살 기념관 만인갱과 기념부조벽

- 평화의 종 : 2004년 완료한 사업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남경대학살을 추모하여 기증한 대중임.
- 표식비 : 높이 13m에 이르는 십자형의 기념물로서 1937.12.13.~1938.1 이라는 남경대학살의 기간을 십자형 중앙에 판각해 놓은 구조물임.



평화의 종



표식비

[그림 80] 남경대학살 기념관 평화의 종과 표식비

- 어머니 상 : 학살 당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유골 조각을 뒤지려는 듯 손을 내민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인의 모습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탄과 분노를 잘 느끼게 해주는 작품으로 주변의 광장(지하는 주 전시관임) 계단을 내려선 광장에 깔린 조약돌(300만의 무수한 죽음과 유골을 상징함)과 타다만 나무 형태의 조각과 함께 이 기념관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형물임.
- 남경대학살증인 족형 동판조각로 : 남경대학살 당시의 생존자 222명의 족형과 친필서명을 동판으로 떠낸 것을 바닥에 깔아 놓은 조각로, 당시 생존자 중 2, 3인은 전신상 그대로 조각하여 동판로 위에 서 있게 전시하였음.



어머니 상



남경대학살증인 족형 동판조각로

[그림 81] 남경대학살 기념관 어머니상과 동판조각로

- 통곡의 벽(희생자각명단비, 우난자명단비) : 남경대학살 희생자의 명단을 판각한 벽으로 이곳에서 종교적 제례 등이 주로 이루어짐.
- 우화대(雨花臺) : 학살 장소, 거대한 구덩이에 그대로 물을 채워둠으로써 기억과 성찰의 의미를 극대화한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상징적 기념물. 학살된 장소에 담긴 물은 하늘도 비추고 사람도 비추며 명경지수(明鏡止水), 거울 같은 물의 의미로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일은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 가슴에 형상되는 잔상을 남김.



[그림 82] 남경대학살 기념관 통곡의 벽



- 낙숫물 소리 전시장 : 12秒, 12초라는 뜻으로 어두컴컴한 홀 내부에서 12초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전시장, 약 6주에 걸쳐 12초에 한 명 꼴로 희생자들이 죽어 나갔음을 의미하는 장치임. 대학살의 참상과 희생자들의 삶, 유족들의 인터뷰 등 난징의 과거를 생생하게 재현해놓음.
- 실내전시장에는 일본군들의 잔혹한 행위를 그대로 담아낸 사진자료들과 방대한 영상이 전시됨.
- 알파벳 순서로 정렬된 희생자들의 명단 및 그들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파일, 난징대학살에 대한 자료, 현장복원모형, 영상, 유화, 학살에 사용된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음.



[그림 83] 남경대학살 기념관 실내전시장

## ■ 사업 및 행사

- 난징대학살 교훈을 위한 교재 발간
  - 난징대학살 관련 초·중·고교 교재 3종 개발 및 발간
  - 초등학교 교재 '혈화(血火)의 기억', '역사의 진상'이라는 중학교 교재, '난징대학살국가추모 독본' 시리즈 가운데 '경시사고'(警示思考)라는 고등학교용 교재 발간
- 난징·평화의 도시 우표 국제 디자인 공모전(The Stamp International Design Contest of "Nanjing·City of Peace") 개최
  - 디자인 테마는 평화에 중점을 둔 역사, 인물, 사건, 도시, 건물 및 상징 등을 결합하여 설계
  - 카테고리는 ①우표와 우표 용품, ②개인화 된 스탬프로 참가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개 모두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음.
  - 기한은 2020년 8월 20일까지이며, 수상자는 2020년 9월 3일 발표될 예정임.



[그림 84] 남경대학살 기념관  
공모전 포스터

## 2. 일본 사례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 ■ 개요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広島平和記念公園)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에 위치함.
-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조성됨.
- 평화기념공원은 원폭사망자 위령비, 원폭 공양탑, 평화의 종, 원폭 어린이 상 등의 조형물이 있으며, 남쪽에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북동쪽에 1996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원폭 돔으로 구성됨.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원폭돔(전 히로시마 물산장려관)은 인근 지역에서 골조뿐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남겨졌고, 일본정부는 원폭돔을 2년, 3년 주기로 복원공사를 하여 폭발 맞은 원형 그대로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음.
- 평화기념공원은 협죽도(원폭 이후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피어난 꽃) 묘목 배포 등 관람객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원폭 수집 자료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30〉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설립목적		• 세계 최초 원자폭탄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조성
개관		• 1955년 6월 (건설기간 1951년 3월~ 1955년 6월)
규모	부지면적	• 122,100㎡ (37,000坪) ※평화기념공원 면적임
	건축규모	• 건축면적 3,805㎡ (본관 1,315㎡, 동관 2,490㎡) • 연면적 11,930㎡ (본관 1,615㎡, 동관 10,315㎡)
운영 및 관리		• (재)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
운영시간		• (3~7월)08:30~18:00, (8월)08:30~19:00, (9~11월)08:30~17:00, (12~2월)08:30~17:00
관람료		• 어른 (대학생 이상) 200엔 (30명 이상 1인당 160엔), 고등학생 100엔 (20명 이상 무료) •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생 및 중학생 무료
공간구성		•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동관 3층, 본관 2층) - 약 22,800여점 전시자료 (실물자료 19,000여점, 원폭그림 3,800여점) •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 지상1층 국제회의장(6실) / 지상2층 콘서트홀(1,500명 수용) • 평화기념공원 - 사다코의 종이학, 평화의 탑, 평화의 샘, 위령탑, 위령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포함) 등
주요사업 및 행사		• 원자폭탄과 평화에 대한 전시 콘텐츠 서비스 • 평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원폭 체험 강연, 평화 강좌 코스 등) • 평화 데이터베이스 운영 (원자폭탄 및 평화 관련 웹사이트 <a href="http://www.pcf.city.hiroshima.jp/database">http://www.pcf.city.hiroshima.jp/database</a> ) • 지역 고등학교 공동 작업한 원자폭탄 사진 재현, 평화 학습을 위한 유인물 배포 등
홈페이지		<a href="http://hpmmuseum.jp">http://hpmmuseum.jp</a>

출처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http://hpmmuseum.jp> ; 이정현(2007), “일본 평화(원폭)자료관 건립사례와 시사점”, 부산발전포럼, pp.48-55.

## ■ 건립과정 및 연혁

- 1945(쇼와 20)년 8월 6일, 인류 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지역 위로 투하됨.
  - 이 지역 주민은 물론, 당시 이 부근에서 건물 피난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많은 국민의용대나 동원학도가 비명의 죽음을 당함.
- 1949(쇼와 24)년 8월 6일의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건설법」의 제정에 따라, 이 지구 일대는 평화기념 시설이 정비되었고, 1955년 평화기념관이 개관함.

〈표 31〉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연혁

구분		주요 내용
1945.	08.06	•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시 중심에서 약 600m 상공에서 히로시마시에 투하됨
1949.	05.	•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건설법」 만장일치 통과
	08.06	•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건설법」 히로시마시 국민투표 총 투표수 90% 이상 지지로 공표
	09.	• 켄조 탕 (Kenzo Tange)과 다른 사람들의 공동 작업이 평화기념공원 청사진에 대해 결정
1951.	02.	• "원자폭탄 참고 자료 전시실(Atomic Bomb Reference Material Display Room)"이 히로시마시 중앙 커뮤니티 센터에 설립, A- 폭탄 재해 자료의 공개 전시가 시작됨
	08.06	• "평화기념관 본관" 공사 시작
1955.	08.06	•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조례」 공표
	09.24	• 평화기념관 개관 (첫 번째 감독은 나가오카 쇼고)
1958.	04-05	• 원자폭탄 재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은 자원봉사단체인 원자폭탄데이터수집지자협회 (현재의 원자폭탄데이터보존협회)를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에 의해 지원
1958.	04-05	• "히로시마 재건 엑스포"는 평화기념관 등에서 개최
1975.	08.	• 건물의 열화와 자재의 열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실시하고 전시회 내용을 다시 개최
1991.	08.01	• 두 번째 주요 보수 공사에서 대형 모델과 대형 스크린 이미지가 통합되어 새로운 개조 공사 시작
1994.	06.01	• 평화기념박물관은 전시/보관 기능과 평화 학습의 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화기념관 동쪽 건물"로 개조 및 오픈
		- 동관 : 폭격 전의 히로시마, 핵폭탄의 개발, 적화, 핵 시대의 현재 상황, 평화위한 히로시마 노력
1996.		- 본관 : 생존자 전시 및 사진
		•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2006.	07.	• 본관은 전후 건축으로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
2012.	11.	• 제후 전시시설로서 Enami Nihonmatsu, Naka-ku, Hiroshima City에 "스모 오 하우스 (Smooch House)" 오픈
2014.	03.	• 동관과 본관 리노베이션 공사 시작
2017.	04.	• 동관 재개
		- 3개의 구역에 전시 : "소개 전시회", "핵무기의 위험", "히로시마의 역사"
2019.	04.	• 본관 재개
		- 본관 「폭탄의 실제 상황」은「8월 6일 재해」와「폭탄 피해자」의 2개의 존으로 나뉘어짐

출처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http://hpmmuseum.jp/>)

7) 히로시마(廣島) 평화 기념관(원폭 돔)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임. 히로시마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폭발 직후의 모습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음.



## ■ 입지 여건

-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은 원자폭탄으로 죽은 희생자들을 기록하고, 추도함과 동시에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기 위하여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동시에 세워졌음.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일대(나카지마 지구)는, 에도시대 육해의 교통의 요충지임.
- 메이지시대에는 시청사, 현청사외, 히로시마의 물류의 거점이 되는 등, 정치·행정·상업의 중심이었음.



[그림 85]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위치

- 평화기념공원, 히로시마 평화기념박물관 및 원자폭탄 희생자 히로시마 국가 평화기념관에는 개인 차량용 주차 공간이 없음(장애인용 차량 제외).
-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Peace Memorial Park 주변의 유료 주차장 이용 가능함.
- 기차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됨.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초래한 참상을 보여주는 냉혹하면서도 강력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보여주는 유산임.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heritage.unesco.or.kr/>)

## ■ 조직 및 운영관리

-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임.
- 관리인원은 총 103명(재단소속 56명, 시파견 38명, 겸직 9명)으로 국제회의장,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 등을 비롯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운영비는 히로시마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 관리운영비는 33,869만 5천엔(2006.4~2007.3)인 반면, 연간입장료 수입은 3,200만엔에 불과한 실정임.
-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은 국가차원에서 원자폭탄 사망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추도하며,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한편, 원자폭탄의 참화를 전 세계에 알려 그 체험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교육의 장(場) 역할을 하고 있음.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자료관)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자치공동체의 역사를 증거하며, 다른 하나는 핵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기능임.<sup>8)</sup>
  - 자치공동체(지자체)의 역사로서, 사진, 유물, 증언의 전시를 통해 박물관은 원폭투하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음.
  - 히로시마의 원폭 파괴를 핵폭탄 시대의 명백한 순간으로 그리고 있는데, 방문객들에게 핵 과학의 역사, 냉전의 핵무기 경쟁, 지구적 규모로 총체적인 핵 폐기의 내재적 가능성을 알림.

## ■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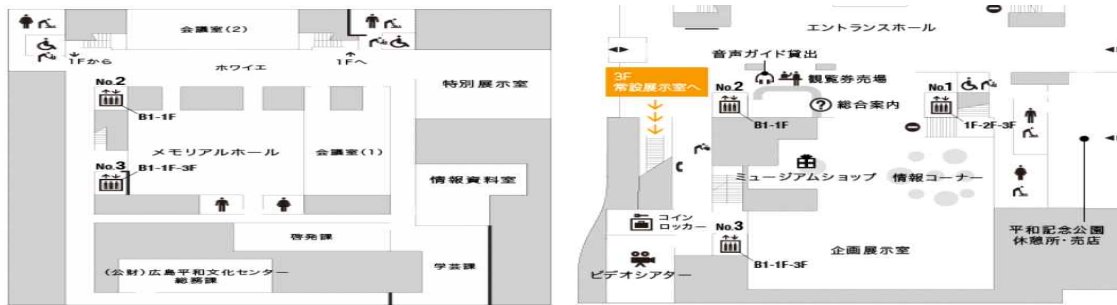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면적은 약 122,100평방미터(약 37,000평(단지))임.
  - 설계는 단게 겐조 도쿄대학 교수 외 3명의 공동작품으로, 설계경기 145점 중에서 입선한 것
- 평화기념공원의 남단에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동쪽과 서관), 그리고 히로시마 국제회의장이 있으며, 평화기념공원 및 그 주변에는 많은 위령비와 기원비가 있음.

8) Lisa Yoneyama(2004), “폐허로부터 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4(1), pp.10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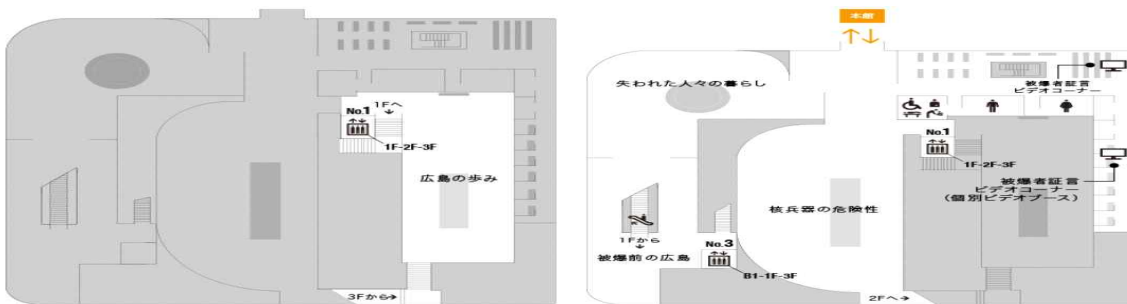
[그림 86]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지도

-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広島平和記念資料館)은 크게 동관과 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관 1층에서 관람을 시작하며 자동적으로 본관까지 연결됨.
- 지하에는 조그마한 전시실이 있는데 무료로 관람 가능함. 히로시마 시민 혹은 어린이들이 그린 원자폭탄 그림, 기획전시들을 하고 있음. 기획전시도 원자폭탄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피폭자의 사연과 그 피폭자의 집, 혹은 사망 위치 근처에서 나온 옷가지, 타지 않는 동전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있음.
- 동관 1층 전시장은 피폭 전의 히로시마와 피폭 후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개발되어 투하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모형(위에 올려둔 모형. 원폭 돔을 옮겨둔 모형도 있다), 사진, 판넬 등으로 소개하고 있음.
- 동관 2~3층 전시장은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히로시마가 어떠한 상황을 겪었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건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사진과 모형, 수기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
- 본관은 히로시마의 여러 사진과 피해를 입은 물건들을 말 그대로 원폭의 무서움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음.



East Building 1st floor (free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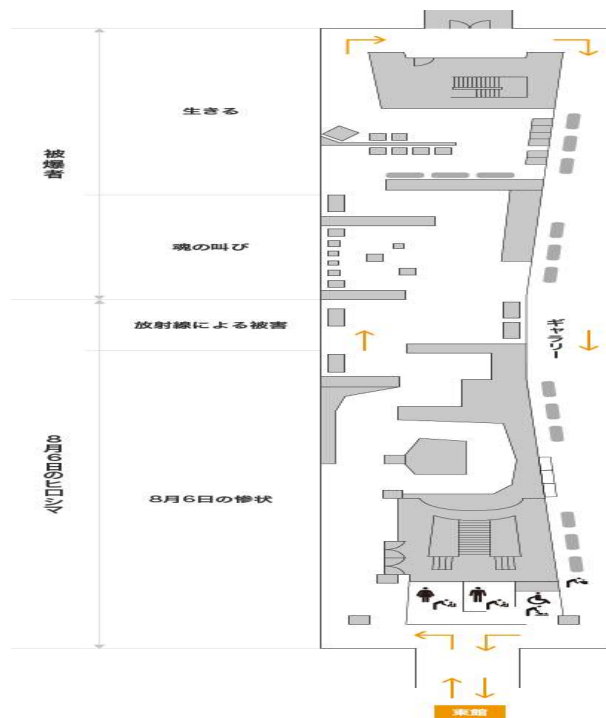
[그림 87]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동관 공간 구성(1층)



East Building 2nd floor (permanent exhibition)

East Building 3rd floor (permanent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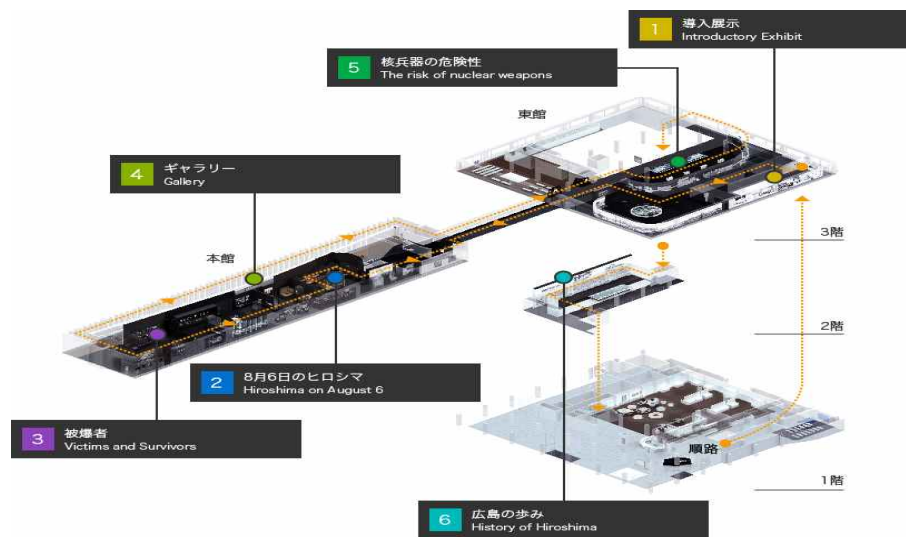
[그림 88]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동관 공간 구성(2, 3층)



[그림 89]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본관  
공간 구성

## ■ 주요전시 및 콘텐츠

-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에서는 죽은 이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해서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폭체험기와 추도기를 모집하여 공개하고, 원폭 사망자의 이름과 사진을 모아서 공개하고 있음.



[그림 90]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Permanent exhibition  
(2020.07.29.기준)

-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자료는 약 22,800여점으로 이 중 실물자료는 19,000여점, 원폭그림(사진 및 영상)이 3,800여점을 차지하고 있음.
- 본관은 지상 1~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기 위해 A- 폭탄 희생자의 생존자와 원자폭탄의 비극을 보여주는 사진 및 사진과 같은 자료가 전시됨.
- 동관은 지상 2층의 단일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폭탄 전후 핵무기의 위험과 히로시마의 역사에 관한 전시회가 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 증언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음.
- 현재(2020년 7월 기준) 상설전시는 동관 3층의 "소개 전시회", "실제 폭격의 실제 상황 및 갤러리", 동관 3층의 "핵무기의 위험" 동관 2층에 있는 "히로시마의 역사" 순서로 볼 수 있음.
- 상설전 외에 1층 특별전시실과 이스트 빌딩 1층의 지하층에서 기간 한정 전시회가 개최됨.



75th A-Bomb Planned Exhibition Ayumi Part 1 of 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lays the foundation

-Footprints of the first director Shogo Nagaoka

날짜 : 2020년 7월 22일 ~ 2021년 2월 23일

위치 : 동관 1층 전시실

히로시마 평화기념박물관은 2020년 8월 65주년을 기념함. 박물관은 개관 이래 원자폭탄을 남기는 재료를 전시했으며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의 실제 상황을 전달했음. 전시회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Shogo Nagaoka였고, 나가오카씨는 재료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에 대한 연구와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의 생명에 대한 실제 피해 상태를 밝히려 노력했음.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최근 나가오카씨 가족이 박물관에 기증한 발자취를 따라 개관과 초기 상황까지 박물관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음.

[그림 91]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Special exhibition (2020.07.29.기준)



신이치의 세발자전거<sup>9)</sup>



사다코의 종이학<sup>10)</sup>

[그림 92]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조형 전시물 (2020.07.29.기준)

9) 데쓰다니 신이치(3세)군의 세발자전거는 집 앞에서 놀다가 피폭당하여 그날 밤 사망했으며 아버지가 자전거와 함께 묻었으나 40년 후(1985년) 여름에 신이치 군은 묘에 안장하고 세발자전거는 평화기념 전시관에 기증함.

10) '사다코의 종이학'은 2살 때 피폭된 사사키 사다코가 10년 뒤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 회복을 간절히 빌며 접은 종이학인데, 사다코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955년에 숨을 거두었으나 천 마리 종이학은 평화와 반전 반핵의 상징이 되었음.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전시콘텐츠는 크게 위령탑, 원폭, 평화 등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위령탑’은 동원학생 위령탑, 사망자 위령비 등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특히 히로시마 원폭으로 피해를 받은 한국인들을 추모하는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가 위치해 있음.
  - ‘원폭’을 맞았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피난 가는 것을 동상으로 만든 것부터 원폭의 어린이상, 원폭공양탑 등 원폭과 관련되어 두려움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동상 및 비석을 세워둠.
  - ‘평화’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많은 조형물들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음. 방문객이 접근하는 다리도 ‘평화대교’이고, 근처에 있는 ‘평화의 종’, 기념물로 ‘평화의 탑’, ‘평화의 샘’, ‘평화의 시계탑’ 등을 볼 수 있음.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sup>11)</sup>



평화의 탑

[그림 93]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조형 전시물 (2020.07.29.기준)

## ■ 사업 및 행사

- 폭력 경험 전달 및 평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 원폭 체험 강연(A-bomb experience lecture) : 원폭 생존자에 의한 경험 증언
  - 원폭 체험 전통 강좌(A-bomb experience tradition lecture) : 원폭 생존자 강의
  - 히로시마 평화 자원봉사(Hiroshima Peace Volunteer) : 평화기념공원 및 전시회 설명
  - 평화 강좌 코스(Peace learning course) : 원폭의 실제 상황과 핵무기 관련 세계상황 설명
- 원자 폭탄과 평화에 대한 온라인 전시 콘텐츠 서비스
  - 전시/엔터테인먼트(Exhibition/Entertainment) : 박물관의 현재 개최 전시회 개요 제공

11) 히로시마시 당국에서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의 평화기념공원 내 건립을 제한했기 때문에 1970년 처음 세워졌을 때는 원폭기념공원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었음. 또한 위령비 명칭문제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의 갈등도 존재했는데, 1999년 2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로 명칭을 합의하여 평화기념공원 내로 이설이 허가되었음.



- 어린이 평화교육(Kids peace station) :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평화 학습 홈페이지로, ‘사다코’의 삶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삽화 활용 설명, 일어/영어 서비스
- 가상 박물관(Virtual Museum) : 2017년 4월 25일 리뉴얼 되기 전 본관 전시물 소개
- 평화 데이터베이스(<http://www.pcf.city.hiroshima.jp/database>) 운영
  - 박물관이 관리하는 원자폭탄 및 평화 관련 데이터베이스(웹사이트)를 공개함
  - 폭력, 평화 관련 작품(음악CD, 도서 등), 원자폭탄 관련 영화, 생존자 증언 비디오, 사진 등
- 정보 자료실(Information Room) 운영
  - 원자폭탄 및 평화 관련 DVD, 책, 잡지, 비디오 자료 검색 가능
- 원폭 전시 및 평화 학습을 위한 자료 대출
  - 평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패넌, 포스터, 사진, 비디오 자료 등 대여 가능
- 원폭 경험 목격자와 모토마치 고등학교 학생들과 공동 제작한 ‘원자폭탄 사진’ 제공
  - 히로시마시 모토마치 고등학생들과 원폭 생존자 증인 함께 작업하여 ‘원자폭탄 사진’ 재현
- 방사선에 노출된 서양 협죽도와 Aogiri II의 묘목 배포
  - 히로시마시는 히로시마의 마음의 평화를 영원히 잊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Oleander’와 ‘A-bombed Aogiri II’의 묘목을 배포
- 평화 학습을 위한 유인물(학습 핸드북) 배포
  -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평화 연구를 위한 소책자 무료 배포(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학습 핸드북(초·중·고생용),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평화 학습 워크북(초·중생용),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평화 학습 워크북(초등학교 교사 및 중학교 교사용), 평화기념공원 투어 등

## ■ 기타

-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의 그라운드제로라는 시공간의 과정이, ‘유일 피폭국’이라는 명제를 통해 일반의 피해자성(victimhood)만을 강조한다거나,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치러온 여러 전쟁과 제국주의적 지배, 그리고 식민주의가 축적된 다중적 시간의 역사를 탈맥락화하는 몰역사적 ‘평화’ 담론을 재생산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전개되어 옴.
- 실제로 자료관을 비롯한 공원 내의 기념조형물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 노약자의 모습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정은 자신들을 전쟁의 책임자로부터 분리, 단지 무고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줌.<sup>12)</sup>

- 현재(2020.07 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음.
  - 열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 곤란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삼가
  - 번호가 매겨진 티켓을 배포하여 전시실 방문객 수 제한(30분마다 150장 티켓 발행)
  -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가 37.5℃ 이상인 온도는 출입할 수 없음.
  - 마스크 착용, 화장실 손씻기와 소독 협력,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 가급적 말하지 않을 것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것을 주의
  - 오디오 가이드 대여 중단, 평화 봉사단 안내 중단, 동관 3층 전시 중단, 직원 안면 가드 및 장갑 착용 등

---

12) 정수희·김봉채·이병민(2019). “도시이미지의 구축에서 공감의 문제: 일본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6(2), pp.171-197.

### 3. 독일 사례: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KZ-Gedenkstaette Dachau)

#### ■ 개요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1933년 3월 10일 독일에 만들어진 최초의 나치 집단수용소로 의학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실험실을 세운 곳으로, 공포와 범죄와 절망의 기간이었던 그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현장보존형 기념관이 만들어졌음.
- 철조망이 쳐져 있는 17만㎡의 수용소 자리에는 2채의 단층건물과 60여 채의 수용소 건물이 남아 있으며, 수용소의 하나였던 입구인 Jourhaus의 문앞에는 ‘일하면 자유로워진다’라는 ‘ARBEIT MACHT FREI’ 문구가 걸려있음.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의 목표는 죄수들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고 나치 범죄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촉진하는 것임.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 연계형 운영조직, 차세대 교육자(연사) 양성과정 운영,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 및 활용의 특징이 있음.

〈표 32〉 독일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KZ-Gedenkstätte Dachau Alte Römerstraße 75 85221 Dachau
설립목적	•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사망한 41,500명의 수감자를 기념함
개관	• 1965년 5월 9일(1933년 3월 22일 다하우 강제 수용소 설립)
규모	부지면적
	• 17만㎡
규모	건축규모
	• 2채의 단층건물, 60여 채의 수용소 건물이 남아 있음
운영 및 관리	• 바이에른 기념재단
운영시간	• 매일 09:00-17:00, 기념관은 12월 24일 문을 닫음
관람료	• 무료입장(기념관 보관소와 도서관은 예약제로 운영, 화요일부터 금요일 09:00-17:00 사용가능) •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시(3월-10월) 주차장 사용 요금 부과
공간구성	• 현장 보존형 기념공원(가시실 사체소장 총살자사, 수용시설 망루, 이중 철조망 등 보존하여 활용) • 기념관 주변 관련 다른 유적과 추모 장소 위치(SS 살상농업시설 SS 사격장 강제 수용소 무덤 등)
주요사업 및 행사	• 강제 수용소 기념관 교육부에서 인증받은 전시 관람 프로그램 제공 - 개별 방문자 가이드 투어, 단체 가이드 투어, 단체 세미나 등 • 기념 사이트 앱(Memorial Site App) 서비스, 다하우 강제 수용소 관련 전시품 및 공예품 수집 • 생존자 증언과 기념과 부자가 변화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 온라인 서비스 - 생존자 이야기(Survivor Speak), 지형 프로젝트(Topography Project) • 강제 수용소 기념관 교육부에서 연사(speaker) 훈련 및 면허 과정 운영→기념관 전시 관람 설명 •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한 온라인 워크숍 개최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반민주주의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의 정당 또는 단체에 대해 기념관 입장을 거부할 수 있음
홈페이지	• <a href="https://www.kz-gedenkstaette-dachau.de">https://www.kz-gedenkstaette-dachau.de</a>

출처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ttps://www.kz-gedenkstaette-dachau.de>)

## ■ 건립과정 및 연혁

- 1933년 3월 22일, 나치 정권은 폐기된 쾨니히리히 바이어리슈 폴버-운트 무니치온스파브릭 다하우(Königlich Bayerische Pulver-und Munitionsfabrik Dachau) 부지에 강제 수용소 설립
  - 12년 동안 운영되었고, 다하우 강제 수용소와 그 하위 수용소에 40개국 이상에서 20만 명 이상의 수감자가 수감, 굶주림과 질병으로 최소 41,500명이 사망했음.
- 1945년 4월 29일 미군 정부는 (구)포로수용소를 실형민 수용소로 사용했음.
- 1948년, 바이에른 주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구)포로수용소를 반환받아 난민 캠프를 설립했음.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Dachau Concentration Camp Memorial Site) 1965년 5월 개관
- 2003년 바이에른 주 정부는 새로 설립된 바이에른 기념재단(Stiftung Bayerische Gedenkstätten)에 Dachau와 Flossenbürg의 기념 유적지에 대한 책임을 양도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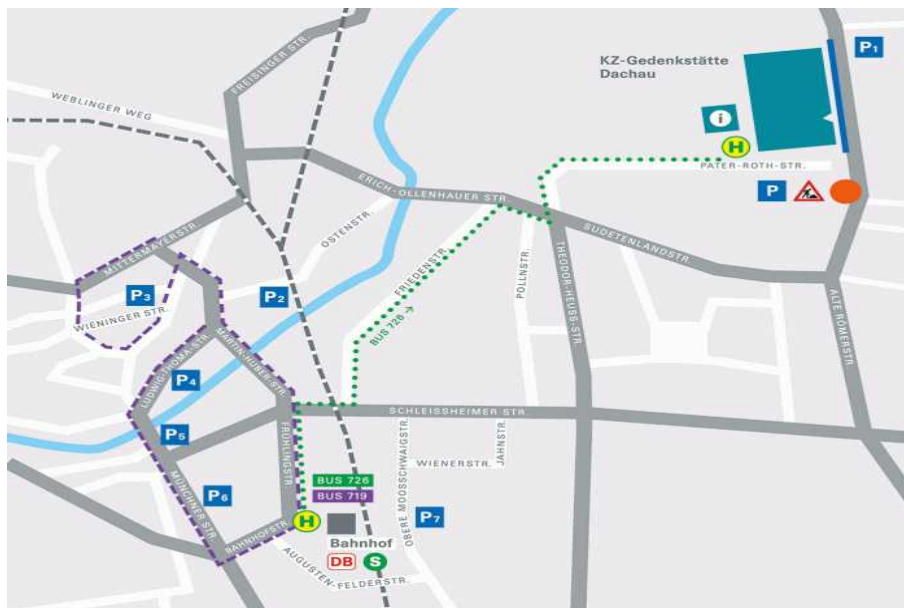
〈표 33〉 독일 다하우 강제 수용소 연혁

구분		주요 내용
1933.	03.22	• 다하우 강제 수용소 설립
1945.	04.29	• 미 육군 부대가 수감자들을 해방시킨 후, 미군 정부 (구)포로수용소를 실행민 수용소로 사용
1948.		• 미군은 (구)포로수용소 부지 반환, 바이에른 주 정부는 난민 캠프(다하우 동 거주지) 설립
1955.		• 국제 캠프 위원회는 Comité International de Dachau (CID)로 전환
1959.		• 공급 교육 기관의 대표와 회원들, 희생자 모임 등은 CID에 기념관 설립 요구
1960.		• 뮌헨의 보조 주교인 요하네스 뉴하슬러(Johannes Neuhäusler)는 (구)포로 수용소 부지에 과거의 고통을 품은 그리스도 예배당 설립 (예배당은 성찬 세계 총회에서 50,000명이 참석하도록 봉헌되었음)
1962.		• CID와 바이에른 주 정부는 (구)포로수용소에 기념관을 짓기로 동의
1964.		• 요하네스 뉴하슬러는 그리스도 예배당의 카르멜회의(Carmelite) 귀중한 피를 봉헌
1965.	05.09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개관
1967.	04.30	• 바이에른 지역 주교인 Hermann Dietzfelbinger는 화해의 의미의 개신교를 봉헌함
	05.07	• 유대인 기념관은 랍비 데이비드 스피로(Rabbi David Spiro)에 의해 봉헌됨
1968.	09.08	• Nandor Glid에 의해 봉헌된 국제적 기념물 공개(CID가 개최한 예술가 경쟁 우승 작품)
1975 -1985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정치 및 시민교육의 장소로 발전함 - 신티와 로마,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와 같은 소외된 희생자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냄
1995.		• 다하우 강제 수용소 해방 50주년 - (구)포로수용소 희생자들과 기념 유적지 작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
	04.29	• 니콜라이 쿠테 포프(Николай Кутепов)가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 봉헌
2001.		• (구)캠프 교도소/“병커”에 새로운 전시 섹션이 개최됨
2003.	05.02	• (구)관리사무소 건물(maintenance building)에 새로운 전시회가 개최됨(“포로의 길”)
2005.		• 다하우 강제 수용소 해방 60주년 기념으로 기념관 입구가 실제 역사적 상황에 맞게 조정됨 - 방문객들은 포로수용소의 하나 뿐인 입구인 Jourhaus를 통해 경내로 진입
2009.	04.29	• 새로운 방문객 센터 개장
2014.	11.01	• Jourhaus 게이트의 역사적 포스터(“Arbeit macht frei”) 도난, 이듬해 복제본으로 대체
2015.		• 다하우 강제 수용소 해방 70주년, 약 130명의 수감자와 해방자들이 가족과 함께 기념식 참석
2017.	02.22	• Jourhaus 게이트의 도난당했던 문 되찾아 복원되었고, 메인 전시회의 일부로 전시됨

출처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ttps://www.kz-gedenkstaette-dachau.de>)

## ■ 입지 여건

- 다하우 수용소 기념관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음.
  - Dachau 역에 도착할 때까지 뮌헨에서 Dachau / Petershausen 방향으로 S2 기차 승차
  - 기차는 뮌헨 중앙역(Hauptbahnhof)에서 약 25분 소요됨.
  - Dachau 기차역에 도착하면 726번 버스를 타고 “Saubachsiedlung” 방면 기념관 입구에 도착



[그림 94] 다하우 수용소 위치도

- 다하우 수용소 기념관은 반민주주의,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또는 바이에른 메모리얼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진술을 한 사람, 정당 또는 단체에 대해 기념관 입장을 거부할 권리를 가짐.
- 다하우 기념관 주최 행사 참석을 거부할 권리 포함

## 조직 및 운영관리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① 다하우가 제3제국 동안과 그 이전에 도시에서 갖는 역할에 빛을 비춘다.
  - ② 당시 다하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통찰력을 제공하며
  - ③ 집단수용소 수용자들의 삶과 고통을 배우며 그들이 비밀경찰에 의해 취급된 방식을 배우며
  - ④ 도시와 수용소 간의 관계를 통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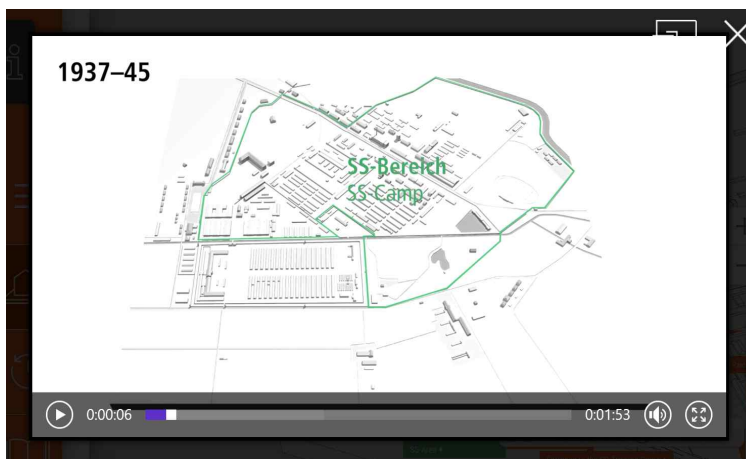


- 이를 위해 수용소 수용자들의 사진, 공식문서, 편지, 인터뷰 등을 찾고 연구하며 평가함.
  - 다하우 시민, 당시 비밀경찰 SS 및 다른 증언자들의 인터뷰, 문학작품, 영화들을 발굴, 연구, 평가하며, 그 연구결과를 출판, 강연, 토론, 세미나 안내 방문 등을 통해 공중에게 알림.
- 다하우 수용소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홀로코스트를 상품화하지 않는다는 것임.
  - 미국이 거대한 홀로코스트 건물로 새로운 문화산업의 유형을 찾았다면, 다하우는 중앙역에서부터 다하우에 이르고 다하우에서 당시 상황을 상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에서 제공하는 전시 관람 프로그램(Tours and Programs)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인증받은) 프로그램으로서 13세 이상의 방문객을 위한 것임.
  - 개별 방문자 가이드 투어: 개별 방문자 대상,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하우 강제 수용소의 역사와 기념 유적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역사적인 건물 및 상설 전시회 일부를 설명함.
  - 여행 안내 책자 서비스: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방문객을 위한 정보 제공, 88페이지 분량의 책자(8유로) 혹은 전자책버전(7유로) 구입 가능
  - 단체 가이드 투어: 집단 및 학교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약 2시간 가량이 소요되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기타 여러 언어로 제공됨.
  - 단체 세미나: 더 자세한 정보나 특별한 주제를 제공하는 집단 및 학교 수업을 위한 세미나
  - 오디오 가이드 : 방문객 센터에서 제공, 보증금(3~4유로)을 내고 사용 가능, 아랍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등 14개국 언어로 서비스 됨.
  - 기념 사이트 앱(Memorial Site App): 기념관 관련 모든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에서 제공함.
  - 다큐멘터리 영화 <다하우 강제 수용소 1933-1945>(1969)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상영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생존자들의 증언 영상과 기념관 부지가 변화되어 온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함.
  - 생존자 이야기(Survivors Speak): (구)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SS 테러에 대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거나 더 이상 생존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경험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캠프 생존자들의 비디오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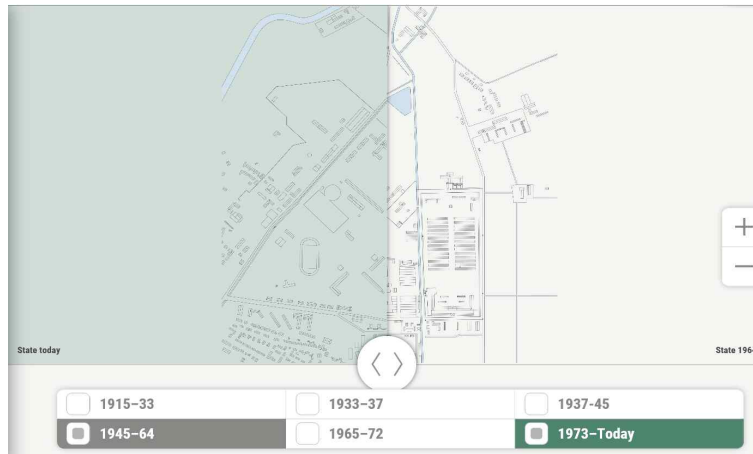
[그림 95]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istory online :  
Survivors Speak

- 지형 프로젝트(Topography Project)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 유적지와 그 주변의 지형 변화상을 3가지 방식의 멀티미디어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제공함.
- ① 건물(Buildings): 항공사진/애니메이션 비행(Aerial photographs/Animated flight), 타임 라인(Timeline), 소개, 맥락 및 개요(Introduction, context, and compendium) 등을 제공함.



[그림 96]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istory online :  
Topography Project (1)

- ② 시간 도약(Time leaps): 시간 단계를 선택하고 계층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함.
- 아래의 영상을 통해 1964년과 현재의 기념관 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음.



[그림 97]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istory online :  
Topography Project (2)

③ 역사(History): 다하우 강제 수용소 역사에 대한 대화식 타임 라인이 포함되며, 독일 역사의 광범위한 맥락을 참조하여 수용소 존재 전후 기간을 포함한 내용이 설명됨.



[그림 98]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History online :  
Topography Project (3)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과 함께 아카이브와 도서관도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아카이브(Archive) : 다하우 강제 수용소와 그 하위 수용소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며, 이 아카이브는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SS 지역에 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아카이브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며, 바이에른 기록 보관법의 보호 규정 및 기념관 사용자 규정이 적용됨.

- 도서관(Library):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도서관은 다하우 강제 수용소 및 그 하위 수용소, 국가 사회주의, 파시즘, 제2차 세계대전, 저항과 박해, 사법 제도와 나치 제도, 기념 문화 등의 주제의 출판물을 수집하고 있고, 현재 17,000여개의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저널이 있고, 현재 약 20개의 저널이 구독되고 있음.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전시품 및 공예품 수집(Exhibits and artefacts collection)함.
  -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서 수집되었으며, SS 강제수용소(Internment: Concentration camp)의 물건, 다하우 기념 유적지의 수많은 기념 표지판 및 물품, 일상 수용소, 작업 배치 및 이전 수용소의 개인 소유물, 미군의 SS 캠프 사용에 대한 유물 등임.



Chess set carved by prisoners



Girl's dress with the Red 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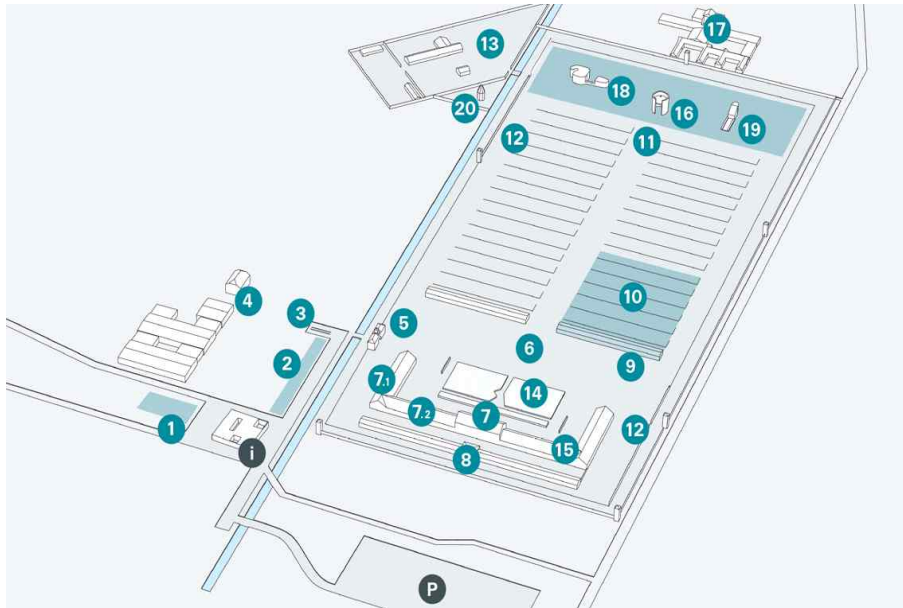
[그림 99]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전시품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현재의 행사, 증인 토론 및 새로운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 공간구성

- 다하우 강제 수용소 부지는 현장 보존형 기념공원임.
  - 현장 보존형은 다하우 수용소가 아직까지 현존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히틀러가 저지른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핍박의 가장 극명한 증거들이 이곳에 모두 존재함.
  - 가스실, 시체소각장, 총살장소, 수용시설, 망루, 이중의 철조망. 그 잔인한 현장을 독일정부와 뮌헨시는 '기억과 환기에 의한 참회의 장소'로 보존하고 있음.
  - 유대교와 신교, 천주교교회 또한 각기대로 죽고 핍박받은 자에 대한 위로와 남아있는 자에 대한 성찰의 공간을 축조해놓았음.
  - 수용소 옆에 작은 십자가가 있는 천주교회와 기념물을 파는 상점도 있음.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수백 평방미터에 이르는 수용소의 규모가 말해주듯이 담벽을 타고 돌면 빠른 걸음으로도 근 3-40분은 걸어야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음.



[그림 100]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지도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부지는 20여 개의 특정한 기억의 장소로 구성되어 있음.

① 메인 SS 가드하우스(Main SS guardhouse)

메인 방문객 센터 서쪽에 메인 SS 가드 하우스 기초의 잔재가 있음. 이 장소는 도착하는 죄수가 수용소에 진입하는 곳으로, 죄수들을 보호하는 캠프 SS가 4분의 1을 차지한 곳임.

② 정치 부서(Political department)

③ 첫 캠프의 잔재(Remnants of the first camp)(1933-1937)

④ SS 캠프(SS camp)

⑤ 캠프 게이트와 Jourhaus(Jourhaus with camp gate)

⑥ 롤 콜 영역(Roll call area)

⑦ 관리사무소 건물(Maintenance building)

(7.1) 분기실(Shunt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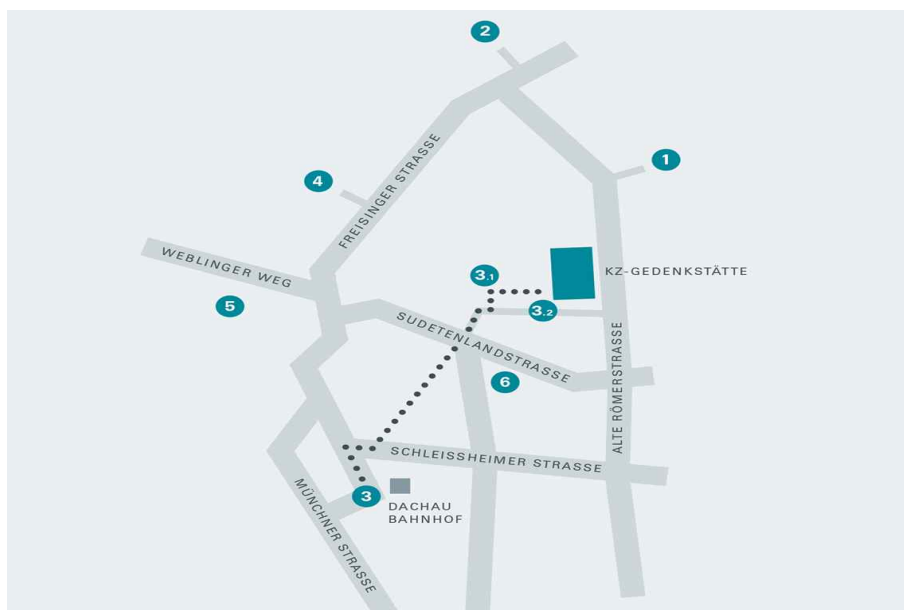
(7.2) 죄수 욕실(Prisoner baths)

⑧ 캠프 교도소(Camp prison)

⑨ 막사(Barracks)

⑩ 의무실(Sickbay)

- ⑪ 기능성 건물들(Functional buildings)
- ⑫ 가드 설치(Guard installations)
- ⑬ 화장터 지역(Crematorium area)
- ⑭ 국제 기념물(International Monument)
- ⑮ 기념실(Memorial room)
- ⑯ 그리스도 예배당의 치명적인 고통(Mortal Agony of Christ Chapel)
- ⑰ 카멜라이트 수녀원(Carmelite Convent)
- ⑱ 화해의 개신교 교회(Protestant Church of Reconciliation)
- ⑲ 유대인 기념관(Jewish memorial)
- ⑳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Russian Orthodox chapel)



[그림 101]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 부지 외부 시설

○ 다하우 강제 수용소와 관련된 다른 유적과 추모 장소는 기념관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① SS 실험 농업 시설 “허브 가든”/“경작지”(SS experimental agricultural facility “herb garden”/“plantation”)
- ② SS 사격장 Hertshausen(SS shooting range Hebertshausen)
- ③ 기억의 길(Path of Remembrance)
  - (3.1) SS 캠프로 이어지는 라인 섹션(Line section leading to the SS camp)
  - (3.2) SS 주거용 토지(SS residential estate)

- ④ 강제 수용소 기념관 라이텐 베르크(Concentration Camp memorial Cemetery Leitenberg)
- ⑤ 숲 묘지에 강제 수용소 무덤(Concentration camp graves at the woodlands cemetery)
- ⑥ 죽음의 행진 기념비(Death march monument)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Dachau Concentration Camp Memorial Site)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Dachau Memorial Site의 버스 정류장은 무장애 공간임(barrier-free).
  - 다하우 기념관의 야외 부지는 자갈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전자 모바일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음.
  - 다하우 기념관의 건물 내부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을 맞췄음.
  - 방문자 센터, 메인 전시실 및 세미나실 근처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있음.

## ■ 주요전시 및 콘텐츠

- 다하우 수용소 기념관은 보존형 전시와 기념물의 조형을 통해 전시의 효과를 증폭시킴으로써 기념시설인 동시에 기억과 성찰의 의미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
  - 다하우 수용소는 세계 홀로코스트기념관 중 대표 격인 아우슈비츠와 달리 자행국인 독일 안에 있음으로써 기억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와 성찰의 의미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
-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은 상설전시회와 단기전시회(특별전시회)를 운영함.
- 기념관의 주요전시회(구 관리사무소 건물)는 죄수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요전시회는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3개의 객실과 영역으로 구성됨.
  - 라이트모티브(leitmotif)는 “수감자의 경로”: 수용소 수용, 수용소 생활, 사망, 해방으로 이어짐
  - 역사적 장소에 대한 설명, 전기(biographies), 수감자에 의한 그림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
  - 배너(수감자와 개별 수감자 그룹에 대한 전기 정보)와 패널(역사적 배경)은 건물 내부 전시회의 주요 디자인 요소임.





Prisoner baths



'Shunt' room

[그림 102]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주요전시회

○ 현재 진행(2020.08.05)되고 있는 기념관의 단기전시회(특별전시회)는 ‘과거의 흔적. Allach Subcamp Complex’ 임.

- 전시회는 10개의 주제 영역으로 나뉨: Allach Subcamp Complex, 건물 및 경비 요원, 강제 노동, 숙박 및 공습 보호, 식품 및 의류, “개인 소지품” 및 개인화 해제, 해방, 근거의 재사용, 발굴, 죽음-기억
- Allach Subcamp Complex의 역사와 고고학을 다루고, 포로들의 생활과 해방을 묘사하며, 1945년 이후 다양한 부지의 용도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103]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특별전시회

○ 다하우 수용소 기념 부지에는 50개의 상징적 기념물들이 설립되어 있음.

- “Arbeit Macht Frei”가 쓰인 유명한 철 대문: “Arbeit Macht Frei”라는 히틀러 국가사회주의의 상징인 노동만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유명한 구호는 베를린 근처 오라니엔부르크 수용소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936년 다하우 수용소가 재건되자 새로운 철로 된 대문에 부조되었음.

- 이전의 관리사무소건물 앞에 세워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존경을 위해 건조된 국제기념물 철조망(wire fence) : 전기가 통하는 철조망에 걸려있는 피골이 상접한 시체모형들로 당시의 잔혹한 수형모습을 상징함.
- 그 밖에 무명수형인의 동상, 유골무덤 위의 유대교 기념석, 그리고 히브리어 등 다섯 개의 언어로 쓰인 “결코 다시는(Keinmal mehr, Never Again)” 벽, 그리고 무명용사유골이 들어 있는 대리석 상자가 전시되어 있음.
- 수용소가 자유를 맞았을 때, 다하우 수용소 안의 시체 소각난로에는 800구의 유골이 있었다고 함.



도둑맞았던 나치 유대인 수용소 철문 복제품



국제기념물 철조망(wire fence)

[그림 104]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 부지의 상징적 기념물

## ■ 사업 및 행사

### ○ 서점 “Literaturhandlung” 운영

- 국가 사회주의, 강제 수용소 시스템 및 Shoah에 관한 다양한 언어의 책을 제공함.
- Dachau 강제 수용소의 역사와 나치 정권에 의해 박해된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전문으로 하며, 유대인 문화와 문학에 관한 도서도 취급함.
- 웹사이트([www.literaturhandlung.de](http://www.literaturhandlung.de))를 통해 예약 주문 및 행사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온라인 워크숍 개최

- Covid-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또는 가상 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워크숍은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줌을 통해 진행되며, Eventrite를 통해 등록 후 참가 가능함. (<https://www.eventrite.de/e/education-and-memory-in-times-of-a-global-crisis-tickets-112635692388>)



[그림 105] 다하우 강제 수용소 기념관 온라인 워크숍

## ■ 기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2020년 5월 11일부터 다시 방문객에게 개방되었음.
- 방문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생 및 안전 규정 준수를 요구함.
  - 다른 방문객들과 최소 1.5m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룹으로 함께 다니지 말 것
  - 모든 건물에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기념관에서 따로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음)
  - 기념관 방문 중에는 수시로 손을 씻을 것, 일반적인 기침과 재채기 에티켓을 준수할 것
  - 폐쇄된 공간에 있을 경우 해당 객실에 허용되는 최대 인원수에 주의할 것

## 4. 미국 사례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US Hmm)

### ■ 개요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위원회를 두고, 이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립을 승인하여 1993년에 개관하였음.
- 본 기념관은 나치 치하에서 희생된 6백만 유대인과 수백만의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박해와 살육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유례없는 이 비극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희생자들을 기념하며 방문객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설립함.<sup>13)</sup>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체험 요소를 극대화하여 관람객들에게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였음(정서적 관여→교육적 영향).
  - ‘기록을 통한 교육’과 ‘기록에 대한 교육’으로 기록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활용을 도모함.

〈표 34〉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소재지		• 100 Raoul Wallenberg Place, SW Washington, DC 20024-2126
설립목적		• 나치와 그들의 협력자들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개관		• 1993년 4월 22일
규모	부지면적	• 연면적 258,000㎡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운영 및 관리		•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
운영시간		• 매일 10:00-17:20, 기념관은 12월 24일 문을 닫음
관람료		• 무료, 3월-8월 동안만 상설전시장 티켓 발권 필요, 기념관 2층과 1층 다른 전시는 티켓 불필요 - 티켓은 기념관이 방문객 수용 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편안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11세 이상 방문객 권장
공간구성		• 기념관 1층 : 특별전시 (특정 주제 혹은 사건에 대한 전시 진행) • 기념관 2-4층 : 상설전시 (홀로코스트에 대한 전시, 2-3층 1940년-1945년, 4층 1933년-1939년) • 하나의 단일화 된 강제 동선 처리 (전시콘텐츠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주요사업 및 행사		•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념과 기억 (관련 자료 수집과 전시) • 대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구기관 설립 운영 - 도서관, 상설-특별전시, 학습센터 운영 - 학생과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홀로코스트 연구센터를 통해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록물 수집 (세계 최고의 자료 보관), 연구,편찬활동 ※ 편안한 관람환경 조성(방문객 수용 용량)을 위해 3-8월 동안 상설전시장 무료 티켓 발권
홈페이지		• <a href="https://www.ushmm.org">https://www.ushmm.org</a>

출처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홈페이지 (<https://www.ushmm.org>)

13) USHMM Mission Statement

## ■ 건립과정 및 연혁

- 1978년 11월 1일 생존자 단체의 지도자 34명, 홀로코스트 역사학자들, 국회의원 등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홀로코스트 대통령 위원회가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에 의해 설립되었음.
- 그 후 1979년 9월 27일에 198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유대계 작가 Elie Wiesel을 위원장으로 한 홀로코스트 대통령 위원회는 국가적인 홀로코스트 기념관 또는 박물관, 교육 재단, 인류 양심위원회 설립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음.
  - 1979년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일(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Day) 제정
- 1980년 10월 7일에는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홀로코스트기념협의회가 출범함.
  - 기억의 날(Days of Remembrance)과 관련된 국가의식 및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의식 지원 및 독려, 홀로코스트 기념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설립, 감독과 교육 그리고 기억의 날을 공식적으로 주관할 국가적 기관 설립하는 것, 홀로코스트 대통령 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함.
- 1993년 미국의 국립기관으로서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USHMM)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중심부에 건립됨.
  - 국가가 세운 첫 번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됨
- UN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음.
-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2018년을 기준으로 텍사스 주 4곳, 뉴욕 주 3곳, 캘리포니아 주 3곳 등 총 16개 주(州) 24곳에 건립되어 있음.

〈표 35〉 미국 워싱턴 홀로코스트 연혁

구분		주요 내용
1978	11.01	• 홀로코스트 생존자, 역사학자, 의원들을 포함한 34인이 기념관 건립위원회(위원회) 구성
1979	12.27	• 위원회가 카터 대통령에게 건립계획서 제출 (워싱턴 D.C에 건립할 것과 국가적 차원의 홀로코스트 기념협의회 구성을 제안)
1980	10.07	• 상하의원으로 구성된 홀로코스트 기념협의회 발족 (매년 국가차원의 기념의 날 제정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과 기념을 공식적으로 주관할 국가기관 설립 등 추진)
1993	04.22	• 미국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 개관

출처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홈페이지 (<https://www.ushmm.org>)

## ■ 입지 여건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워싱턴 DC의 14번가와 Raoul Wallenberg Place(15번가) 사이의 SW 인디펜던스 애비뉴 바로 남쪽에 있는 내셔널 몰에 위치함.
- 이 기념관은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DC, 백악관을 마주하고 있는 거리에 위치함.
- 워싱턴 기념탑,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DC 내셔널 도서관, 연방정부 사무소 등이 위치한 도시 중심부인 내셔널 몰(National mall)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함.



[그림 106]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위치도

- 기념관에는 공용 주차 시설은 없지만, 길 건너편, SW, D Street, 13번가와 14번가 사이에 유료 주차장이 있으며, Independence Avenue를 따라서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 국립공원 관리국은 워싱턴 기념비와 그 주변, 14번가 서쪽 독립 도로, 적절한 태그가 부착된 차량을 위한 Tidal Basin 주차장에 약 10개의 장애인 주차 공간을 지정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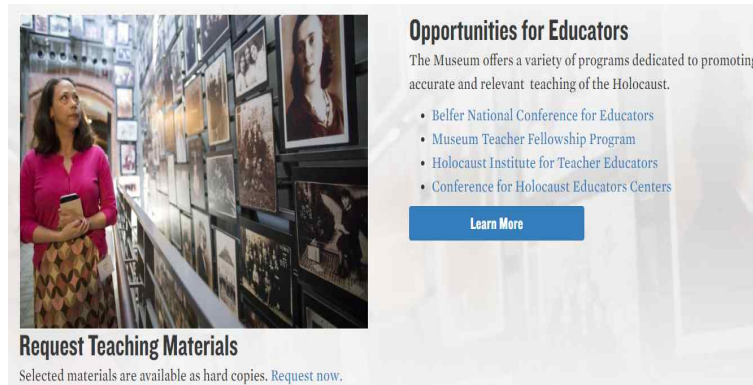
## ■ 조직 및 운영관리<sup>14)</sup>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약 400명의 직원과 약 400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음.
  - 이 중에는 각각 50명의 연구원과 연구 관련 자원봉사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을 지원하는 직원도 40여 명에 이름.
- 본 기념관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건립하였으므로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부금 등에서 충당하여 운영됨.
  - 기부금은 준회원 25\$, 회원 36\$, 후원회원 100\$, 유지회원 500\$, 기념회원 1,000\$ 이상
  - 약 25만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기념관 1층 ‘기부자 라운지(Donors Lounge)’에 있는 기념명부에 영구 전시되고 있음.
-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홀로코스트 연구기관과 기록 보존실, 사진기록 보존실, 도서관, 상설 전시, 특별전시, 학습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과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교육부서는 교사, 학생, 가족,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교사들로 하여금 기념관이 소장한 다양한 정보원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함.
  - 교사를 훈련하여 각 지역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파견교육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발전시켰음: Belf National Conference for Educator(여름방학 동안 전국 교사들을 초대하여 2박 3일 과정의 집중 기초과정), Museum Teacher Fellowship Program(중등학교 교사를 훈련하여 Master teacher 양성)<sup>15)</sup> 등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해외 역사기념관 (<https://www.kdemo.or.kr/blog/memorialoverseas/post/103>)

15) 이정은(2013), “위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사회변화 전략과 창조성”, 『박물관학보』 24, pp.5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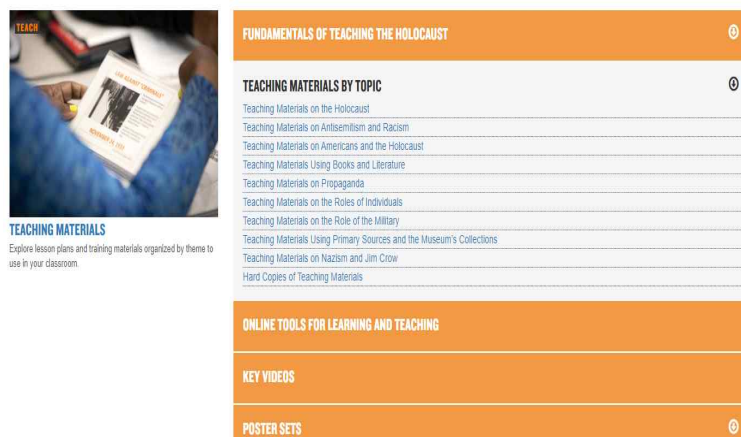




[그림 107]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출처: US Holocaust Memorial Museum(<https://www.ushmm.org/>)

- 미국 주마다 교육담당(Department of Education Contacts)자를 파악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각 주마다의 교육현황, 홀로코스트 교육 관련 법안 유무, 사회교육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곧바로 항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교사가 기록을 이용해 역사적 사실 및 기록의 이용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교육 자료와 교사 보조 자료의 보급에도 힘쓰고 있음.



[그림 108]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교육자료

출처: US Holocaust Memorial Museum(<https://www.ushm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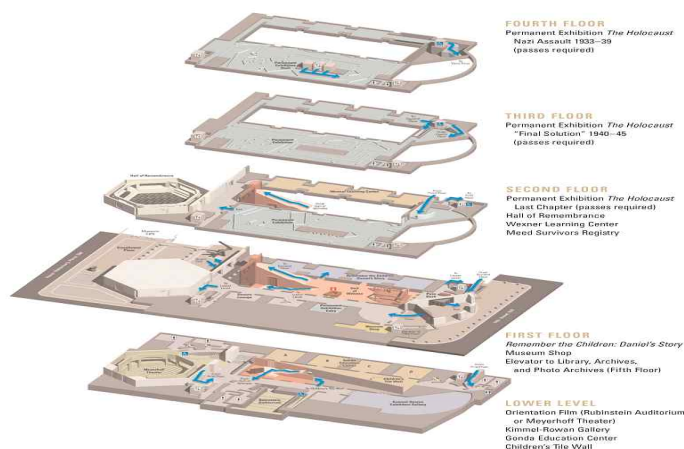
-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포럼을 개최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학 및 교육학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전국적 교사조직에 참여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교수법 연구’ 교육모델을 개발함.<sup>16)</sup>

16) 이정은(2013), “위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사회변화 전략과 창조성”, 『박물관학보』 24, pp.59-78.

- ‘교수법 연구’ 교육모델은 교사들이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검증하는 전문적인 개발과정임: 소그룹으로 나뉘어 교수법을 공동연구(수업계획, 진행 및 평가 등)→학교에 가서 활용해 보고, 다시 모여 완성도를 높임→완성도를 높인 수업방법 배포
-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는 구술CD를 책의 목적에 맞게 재편집한 『A Promise To Remember』를 간행함으로써 1차 사료를 주제에 맞게 복제하여 자체로 기록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법을 숙지하게끔 하면서도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함.
- 구술된 내용과 관련된 1차 사료(각종 문서 및 사진)의 복제본을 책의 사이사이에 넣어 입체감과 긴장감을 더해주도록 구성함.
-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지역 교육단 프로그램(Regional Education Corps Program), 워크숍, 홀로코스트에 관해 독자적으로 공부하거나 배울 기회가 없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와의 제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 ■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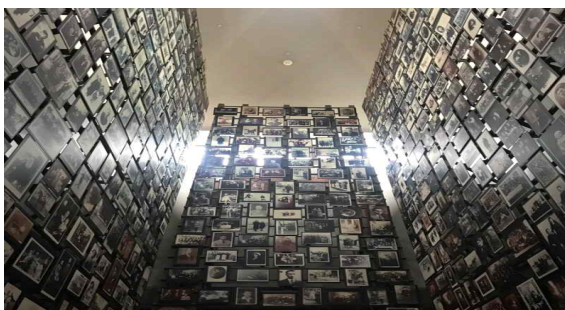
- 연면적 248,000m<sup>2</sup>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공간은 크게 도시 가로에서 진입하는 외부공간을 원통형, 극장과 기억의 전당이 위치한 육각형, 7개의 타워와 이를 아우르는 중간에 위치한 박공지붕으로 마감된 직사각형으로 구성됨.<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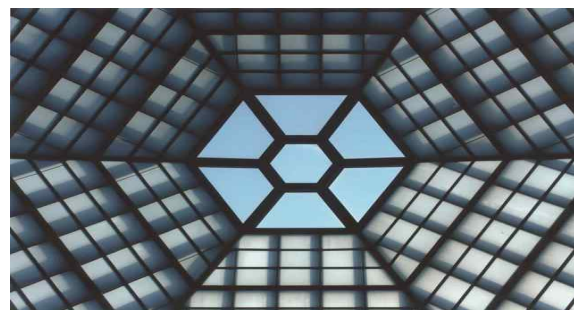
[그림 109]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층별 단면도

17) 김희근·여영호(2019),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4(2), 통권56호, pp.203-212.

- 이 기념관은 강제수용소나 교도소를 연상시키는 1층부터 4층까지 위로 뺨 뚫린 증인의 홀, 2층으로 이어지는 넓은 계단과 벽돌문의 아치, 벽돌의 패턴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를 생각나게 하며, 건물의 북쪽 4쌍이 서로 연결된 벽돌 구조물은 아우슈비츠 감시탑처럼 생겼음.<sup>18)</sup>
  - 맨 위층인 5층에 홀로코스트연구소가 있고, 상설전시실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4층에서 관람이 시작되는데, 홀로코스트의 희생자 또는 생존자가 되어 시간을 거슬러 추체험을 하는 형식을 빌어 관람을 하게 함.
  - 2층에서 상설전시실 관람이 끝나며 마지막 부분에 생존자들의 증언 영상물이 있음.
  - 1층은 어린이를 위한 특별 상설전시실인 “다니엘 이야기”와 기획전시실, 안내센터 등이 있으며, 사무실과 카페테리아 공간을 위해 본 건물에 인접한 오래된 2층짜리 정부 사무실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음.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공간을 여러 형태로 분절하고 결합하는 특징과 함께 수직적 공간감과 순환적 공간구성이 중요한 특징으로 계획되었음.<sup>19)</sup>
- 첫째, 수직적 공간감은 유리 박공으로 마감된 내부 중정, 7개의 타워 내 전시공간 그리고 극장, 추모공간이 위치한 육각형 공간에서 강하게 보임.



타워형 내부 전시공간



기억의 전당

### [그림 110]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수직적 공간감

출처:블로그(<https://m.blog.naver.com/gamseongtrip5/221216881824>);US Holocaust Memorial Museum(<https://www.ushmm.org/>)

- 천장이 유리로 마감된 18m 높이의 내부 중정은 방문객들에게 만남의 공간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연결하는 내부 중점의 중심에 위치한 계단은 물리적, 시각적 측면에서 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함.

18) 이정은(2013),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사회변화 전략과 창조성”, 『박물관학보』 24, pp.59-78.

19) 김희근, 여영호(2019),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4(2), 통권56호, pp.203-212.

- 전시의 마지막에 자리 잡은 추모공간인 기억의 전당(Hall of Remembrance)은 높이 22m의 육각형 형태로 육중하고 어두운 공간에 육각형 천장에서 내려오는 밝은 빛으로 인해 풍부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중심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둘째,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순환적 공간구성임.

- 매표소 뒤 수용소로 진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녹슨 철문의 승강기를 통해 4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시대순으로 구성된 전시공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
- 전시공간은 폭이 4m를 넘지 않는 공간에서 시각, 청각 자료와 조도가 낮은 조명계획을 통해 그 분위기를 치밀하게 표현했으며, 지상 5층은 연결통로로 타워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였음.



기념관 내부 공간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경

[그림 111]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순환적 공간구성

출처: 블로그([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기념관은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음.
  - 승강기는 모든 층에 접근할 수 있으며, 바닥 높이가 변경된 경우 램프를 사용할 수 있음.
  - 영구 전시장의 모든 층과 박물관의 낮은 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위치함.
  - 차량으로 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물의 14번가 쪽에서 방문객을 내릴 수 있음.

## ■ 주요전시 및 콘텐츠<sup>20)</sup>

-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시는 2-4층의 상설전시, 그리고 1층의 특별전시로 구성되어 있음.
  - 상설전시는 기념관 2-4층 3개 층에 걸쳐 홀로코스트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전시함(4층은 1933~1939, 2-3층은 1940~1945).
  - 특별전시는 1층 전시관에서 특정 주제 혹은 사건에 대한 전시를 진행함.

20)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해외 역사기념관 (<https://www.kdemo.or.kr/blog/memorialoverseas/post/103>)



- 전시공간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엄숙하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11세 이하의 전시 관람이 금지되어 있음.
- 전시실은 연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나치의 등장(1933년)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유대인들이 소외당하고 박해받은 것을 비롯하여 학살, 마침내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줌.
- 전시는 4층부터 시작하는데 1933-1939년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화 우생학적 연구, 유대인 서적의 금지 등 유대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이후에는 게토로의 이주, 수용소로의 강제 사민, 가스실과 해방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기념관의 전시공간은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전시내용과 관람객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
  - 전시의 시작점인 입구에는 남녀성별이 구별된 당시 유대인들의 신분증명카드가 비치되어 있는데, 입장 시 유대인들의 ID 카드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등 풍부한 체험요소를 갖추고 있음.
  - 또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시각적인 것에 익숙한 방문객들에게 증언자들의 목소리만을 접하게 하고 간접적으로 그 상황의 고통과 불안, 절망을 체험하도록 구성하였음.



다니엘이 살았던 집을 묘사한 전시 공간



게토의 룰 (GHETTO RULES)

[그림 112]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 Daniel's Story

출처: 블로그([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

- 전시를 이루는 각각의 파트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관람객들이 이야기 속에 몰입되도록 작동하고 있으며, 수집된 증언 오디오와 비디오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증강현실(AR) 경험을 제공하는 등 체험요소를 극대화하고 있음.
-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는 AR기술을 활용하여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sup>21)</sup>
- 또한 관람객에게 네 가지 다른 주제의 종이를 뽑아 전시 후기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자신이 작성한 후기를 전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음.
- 후기의 4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음: ‘Tell us what you think...’, ‘When I leave the Museum I will think differently about...’, ‘Describe your visit in six Words:’, ‘What’s the question you can’t get out of your head?’



기념관 전시 콘텐츠



전시 후기 게시물

[그림 113]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전시·체험 콘텐츠 1

출처: 블로그([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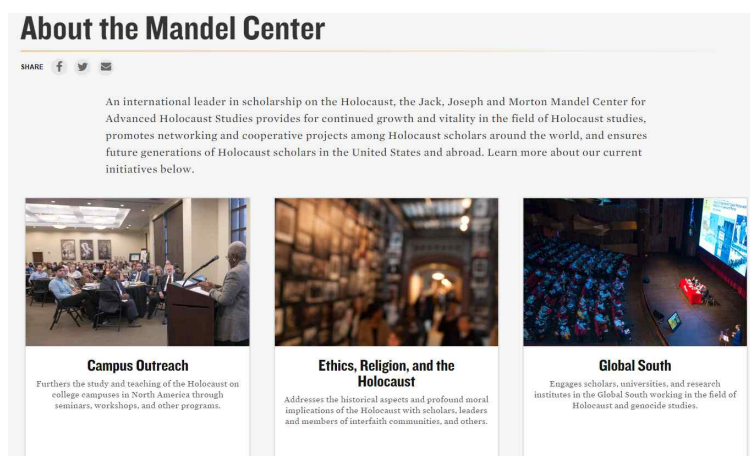
-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시의 핵심은 기억과 공감으로 추모의 방을 중심으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데 있음.
- 이러한 연유로 독일의 유대인 학살뿐 아니라 그 뒤에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에 전시하고 있음.
- 홀로코스트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은 기부행위로 이어져 있고, 세계 각지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파트가 존재함.<sup>22)</sup>

21) AI타임스(2019.04.08.), AR 통한 홀로코스트 방문 이뤄져...“역사적 의미 되새길 수 있어”.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32>)

22) 최승수(2019), “홀로코스트 뮤지엄의 정체성과 전시콘텐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2019 춘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pp.159-160.

## ■ 사업 및 행사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홀로코스트 연구센터(The Center for Advanced Holocaust Studies)와 기념관 수집국을 통해 세계 각지에 흩어진 홀로코스트 관련 기록 자료들의 수집 및 보존활동을 하고 있음.
  - 홀로코스트 연구센터에서는 국제기록관리수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40여 개 국가를 중심으로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조사, 평가, 수집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함.
  - 기념관 수집국은 8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카이브 부문, 예술품과 유물 부문, 영상물 부문, 음악 부문, 구술 부문, 사진 부문, 수집관리 부문, 보존 부문 등이며, 이러한 부서들이 수집물의 수집, 보존, 목록화, 이용 등에 책임을 지고 있음.
-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사료수집 범위는 홀로코스트, 전범 재판, 홀로코스트에 대한 증언, 그것의 여파, 배상노력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에 대한 동시대의 기록화 등을 포함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음.
  -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본 자료들과 기록물들을 축적하고 있음.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1988년에 <The Center for Advanced Holocaust Studies> (상급 홀로코스트 연구센터)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Mandel Center for Advanced Holocaust Studies of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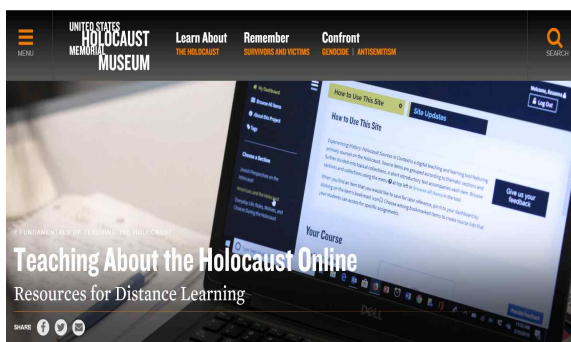
[그림 114]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전시·체험 콘텐츠 2

출처: 블로그([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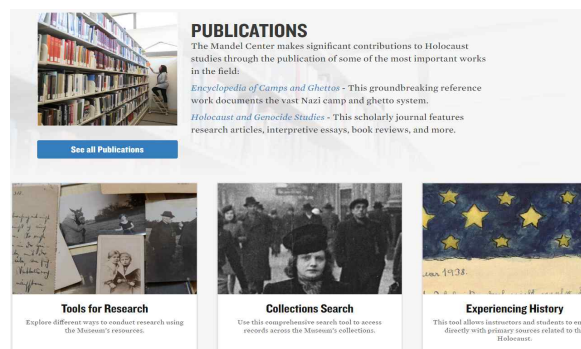
- 만델 센터는 홀로코스트 연구 분야의 장학금 및 출판물을 지원하고, 미국 대학에서 홀로코스트 연구의 성장을 촉진하며, 미국과 국제 학자들 간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함.



- 또한 홀로코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 세대의 학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보장하며, 대학 수준의 교수진을 위한 세미나; 연구 프로젝트 및 출판물; 여름 연구 워크숍, 컨퍼런스, 강의 및 심포지엄; 홀로코스트 관련 기록 자료를 평가, 수집 및 제공함.
- 만델 센터의 필수적인 부분인 윤리, 종교 및 홀로코스트에 관한 프로그램은 홀로코스트와 현대의 반유대주의가 제기한 윤리적, 철학적 문제에 맞서 싸우고 패널, 심포지엄 및 워크숍은 홀로코스트와 유대인 / 기독교 관계의 과거 역사 및 미래 잠재력과의 관계를 조사함.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홀로코스트 관련 연구 및 지속적인 편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자 및 일반인들을 위한 홀로코스트 연구 및 편찬 사업, 홀로코스트 관련 연구 지원 프로그램(특히 차세대 학자 지원),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 교사들을 위한 교재 개발, 『Teaching about the Holocaust, Teacher guide to the Holocaust exhibition』 발간 등
- 또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방대한 분량의 교육자료 및 플랫폼을 제공하며, 수집 및 관리, 조사연구된 문헌,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학술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 ‘Learn’ : 홀로코스트, 반유대주의, 아래의 대량 학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습자료
  - ‘Teach’ : 홀로코스트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원격 학습 플랫폼 및 교육자원
  - ‘Collections’ : 기념관에서 수집한 문서, 유물, 사진, 영화, 서적 및 증언 자료
  - ‘Academic Research’ : 홀로코스트를 연구하는 차세대 교수, 저자, 젊은 학자 등 지원
  - ‘Remember Survivors and Victims’ : 온라인 검색 가능한 홀로코스트와 나치 박해 피해자 기록



홀로코스트에 대한 원격 교육 플랫폼



온라인 학술연구자료

[그림 115]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온라인 교육·학술연구자료

출처: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https://www.ushmm.org/>)

## 5. 국외 유사사례 시사점

- 세계의 유사 시설들은 기념의 대상으로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평화, 반전, 인권, 독립 등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음.
- 민주화 기념공간의 해외 사례들은 다양한 의미에서 각 기념관이 자국의 국위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기념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줌.

〈표 36〉 국외 유사사례 시사점 정리

	주요 내용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입지, 지역연계성 중요</li> <li>• 주변시설과의 연계 (고립적, 권위적, 지배적 공간 지양)</li> <li>• 도시의 기능,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네트워크화 및 공유시너지화</li> </ul>
조직 및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주도형, 지역연계형 조직 (참여적 조직화)</li> <li>• 연구기능과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li> <li>• 사회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교육과 훈련기능의 연계: 차세대 민주화운동가 및 교육자 육성</li> <li>• 정보센터의 활용 (아카이브 구축, 일반인 자료검색 및 대여 가능)</li> <li>• 지역 간, 국가 간 협력적 네트워킹</li> </ul>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공간 (단절된 공간 지양, 공간적 접근성 향상)</li> <li>• 복합성격의 공간 구성 (추모공간 → 복합문화공간 전환)</li> <li>• 시설의 다양화 (사용자 편의성 강조)</li> <li>• 동선상의 흐름과 이야기 연결의 연속성 부여</li> </ul>
전시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각형, 공간체험형 전시</li> <li>• 환경-야외-실내 결합형 / 연속전개로 이야기와 시나리오가 있는 전시</li> <li>• 선택형의 다양한 동선</li> <li>• 관람객 참여 확대</li> </ul>
사업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엄 샵 활성화, 캐릭터 브랜드화, 매체 결합, 다양화</li> <li>- 기업형-브랜드화 수익전략(홀로코스트산업)</li> </ul> </li> <li>• 파생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li> </ul>

### ■ 입지

- 해외 기념공간들은 주로 도심의 주요 상징지역에 입지함.
  - 시민 생활 동선과 자연스러운 연계로 일상적인 참여 유도(활용성 높고, 도심 휴식공간 기능)
  - 도시 시설 및 기능과 연계함으로써 시민 참여 활성화를 이끔.
- 고립적, 권위적, 지배적이지 않고 주변과 잘 조화되어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음.

## ■ 조직 및 운영관리

### ○ 연구사업 활성화

- 연구를 통한 다양한 기획전시와 자료 및 정보의 갱신

### ○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민주화운동 가치의 현대적 재생산)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들을 위한 공식 및 비공식 학습프로그램 활동 전개
- 대중과 밀착된 교육 및 문화콘텐츠 활용으로 민주화운동 가치의 현대적 재생산

### ○ 차세대 민주화운동가 및 교육자 육성

- 자원봉사자 육성, 다양한 후원자들의 조직화,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확대, 네트워크 구성

## ■ 공간구성

### ○ 공간 동선체계 상의 흐름과 이야기 연결의 연속성 부여

### ○ 기능적인 시설들의 배치와 구성에서 사용자 편의성 강조

### ○ 기념공간 자체가 시민들 일상 속에서 기억과 성찰, 휴식을 담보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

## ■ 전시콘텐츠

### ○ 체험적인 전시 극대화(공간체험의 입체화, 전시영역의 입체화)

### ○ 이야기와 시나리오가 있는 전시로 흥미와 호기심 자극

### ○ 보존형 전시와 기념물의 조형을 통해 전시 효과 증폭(기억과 성찰의 의미를 최대한 확보)

## ■ 사업 및 행사

### ○ 기념산업, 추모산업 등 시장논리 작용

- 홀로코스트(유대인학살기념관)는 산업으로 부각될 정도로 서구 각 지역에 확산되어 있음.

### ○ 다양한 파생 콘텐츠의 활용

- 자료집 및 책자발간, 다큐멘터리, 방송물 제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기념품 개발·판매

# 제4장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 부지 검토 및 제안

제1절. 부지 선정기준 및 과정

제2절. 부지 검토 및 선정

제3절. 검토결과



## 제1절. 부지 선정기준 및 과정

### 1. 부지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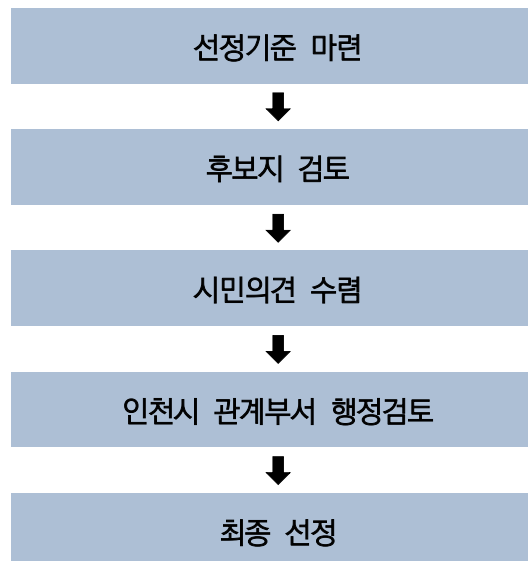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가 갖춰야 할 조건은 ‘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주변연계활용성’임.

〈표 3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정기준

선정기준	내용	비고
상징성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 장소, 랜드마크 등 인천민주화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	※ 사유지이고 현행법상 기념공간 조성이 가능한 장소
접근성	도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확장성	향후 추가시설 조성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주변연계 활용성	주변 문화시설 및 기존 시설(공원, 지하철 역사 등)과의 연계 활용 가능성	

## 2. 적정 부지 선정과정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는 선정기준을 토대로 시유지 중 적합한 장소를 연구진이 사전 검토함.
- 후보지는 현황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선정함.
-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가능 부지를 검토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후보지 관리기관에 공문발송 및 방문하여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함.



[그림 11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부지 선정과정



## 제2절. 부지 검토 및 선정

### 1. 후보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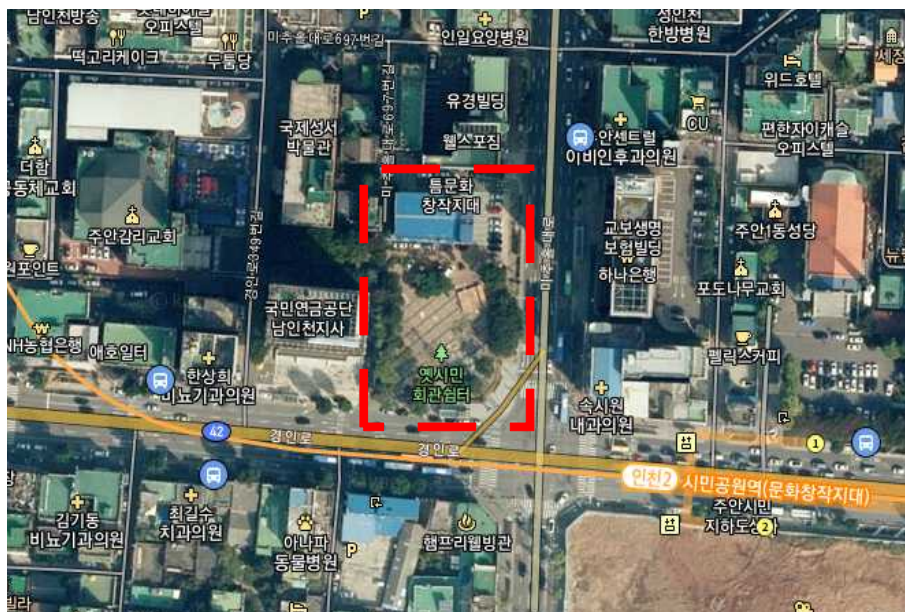
#### ■ 대상지 검토

- 인천광역시 소유의 토지 29,871곳, 건물 903곳 중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부지 선정기준(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주변연계활용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검토함.
- 인천광역시 소유 토지 29,871곳, 건물 903곳 중 적정면적(토지: 1500~5000㎡, 건물: 500~1700㎡)에 해당되는 토지 2,872곳, 건물 169곳을 검토함.
- 적정면적에 해당되는 토지 2,872곳, 건물 169곳 중 부지 선정기준(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주변연계활용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검토함.

## ■ 후보지 현황조사

### ○ 옛시민회관쉼터(‘틈’문화창작지대 포함)

- 옛시민회관쉼터(‘틈’문화창작지대 포함)은 미추홀구 주안동 190-4와 190-2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상징적인 곳임.
- 옛시민회관쉼터에는 인천 5·3항쟁기념표지석과 벤치, 분수대 등이 설치된 상징적 공간이며 현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인천2호선 시민공원역과 국철 1호선 주안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높음.



[그림 117]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위치



[그림 118] 옛시민회관쉼터(‘틈’문화창작지대 포함)

○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은 미추홀구 주안동 194-6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5·3민주항쟁이 발생한 옛시민회관 인근에 위치
-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은 인천2호선 시민공원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현재 인천명품관, 애호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가정폭력 상담소 등이 입주해있음.



[그림 119]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위치



[그림 120]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

- 중앙공원 제8지구 및 제9지구는 미추홀구 관교동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임. 인천1호선 인천터미널역과 인천종합터미널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높음.
- 중앙공원은 총 9개의 지구(제1지구 ‘희망의 숲 공간’, 제2지구 ‘어린이 공간’, 제3지구 ‘정서 순화공간’, 제4지구 ‘휴게, 휴식공간’, 제5지구 ‘체력단련공간’, 제6지구 ‘올림픽기념공간’, 제7지구 ‘문화예술공간’, 제8지구 ‘교통교육공간’, 제9지구 ‘월드컵문화공간’)로 구성됨. 주요시설로는 교통교육, 산책로, 공연장, 광장 등이 있음.



[그림 121] 중앙공원 항공사진



[그림 122]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좌)와 중앙공원 제9지구(우)

○ 인하대 옆 공터

- 인하대 옆 공터는 미추홀구 용현동 667에 위치해 있음. 1980년대 인천지역 학생운동의 주축이자 인천5·3민주항쟁에 대거 참여한 인하대학교 인접부지임.
- 인하대학교 주차장과 인접한 부지이며 수인선 인하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음.



[그림 123] 인하대 옆 공터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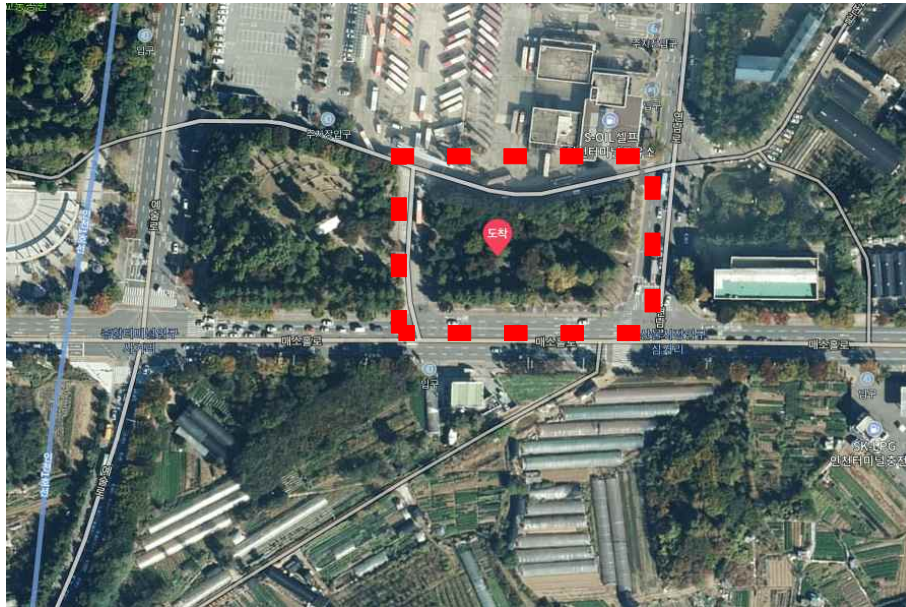


[그림 124] 인하대 옆 공터



○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은 미추홀구 관교동 549-12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 교통의 중심지이자 문화예술회관과 인접해 있음.
-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진입로에 인접해 있으며 인천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높음.



[그림 125]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위치



[그림 126]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 비룡쉼터

- 비룡쉼터는 미추홀구 용현동 159-2에 위치해 있으며 도심 속 시민 쉼터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 외진 곳이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후 도심공원과 연계 활용 가능함
- 비룡쉼터의 주요시설로는 농구장, 생활체육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음.



[그림 127] 비룡쉼터 위치



[그림 128] 비룡쉼터



○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남동구 구월동 1446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종합버스터미널과 인천1호선 인천터미널역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높음.
-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인천의 교통, 상업중심지이자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부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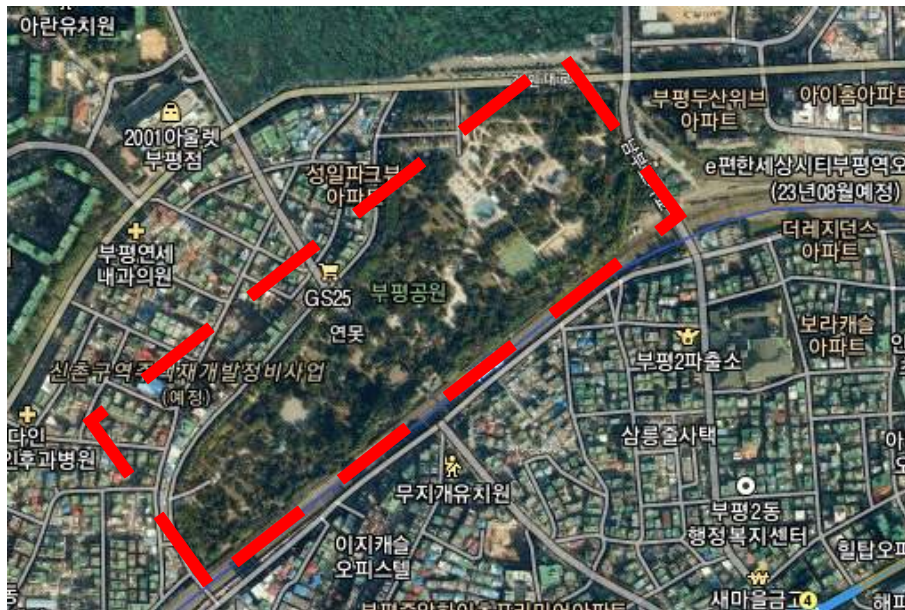
[그림 129]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위치



[그림 130]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 부평공원

- 부평공원은 부평구 부평동 286-1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군부대가 위치했던 곳에 조성된 인천(부평권)의 대표적인 시민쉼터임.
- 미군부대 에스컴, 캠프마켓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백운역과 인접해 있음.



[그림 131] 부평공원 위치



[그림 132] 부평공원 일부



○ 월미공원

- 월미공원은 중구 북성동 1가 93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에서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곳에 조성된 자연생태공원 및 역사공원임.
- 월미공원의 주요시설로는 월미전통정원, 전망대, 월미성, 다목적 운동장 등이 있음.



[그림 133] 월미공원 내 위치



[그림 134] 월미공원 일부

○ 북부근로자복지회관(민주노총인천본부)

- 북부근로자복지회관은 부평구 대정로80에 위치해 있으며 1987년 7·8월 인천지역노동자대 투쟁지역 인근에 있음.
- 북부근로자복지회관은 국철1호선과 인천1호선 부평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함.



[그림 135] 북부근로자복지회관(민주노총인천본부) 위치



[그림 136] 북부근로자복지회관(민주노총인천본부)

## ■ 대상지 검토 결과

- 최종 검토 대상지로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 인하대 옆 공터,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비룡쉼터,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평공원, 월미공원, 북부근로자복지회관 등 총 10개 장소를 선정함.
-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현장이자 인천5·3민주항쟁 기념표지석이 위치한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를 후보지로 선정함.
- 인천5·3민주항쟁이 발생한 옛시민회관 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을 선정함.
-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야외 공원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와 제9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함.
- 1980년대 인천지역 학생운동의 주축이자 인천5·3민주항쟁에 대거 참여했던 인하대학교와 인접한 공터를 후보지로 선정함.
- 인천 교통의 중심인 인천종합터미널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위치한 공원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함.
- 도심 속 시민쉼터이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후 도심공원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비룡쉼터를 후보지로 선정함.
- 인천의 교통·상업 중심지이자 문화적 재생이 가능한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함.
- 과거 군부대가 위치했던 곳이며 인천 부평권역의 대표적 시민쉼터인 부평공원을 후보지로 선정함.
- 한국근현대사에서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곳에 조성된 자연생태공원 및 역사공원인 월미공원을 후보지로 선정함.
- 1987년 7·8월 인천지역노동자대투쟁지역 인근에 위치한 북부근로자복지회관을 후보지로 선정함.

〈표 38〉 최종 검토 후보지

연번	부지	유형	면적	의의
1	옛시민회관쉼터 (‘틈’문화창작지대 포함)	토지+건물	3,245.30㎡ (981평)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현장인 옛 시민회관 부지
2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건물	1,429㎡ (432평)	인천5·3민주항쟁이 발생한 옛 시민회관 인근에 위치
3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	토지	14,140㎡ (4,284평)	인천의 대표적 도심공원, 야외 공원녹지 활용 가능
4	인하대 옆 공터 (SK스카이뷰아파트 맞은편)	토지	3,072㎡ (929평)	1980년대 인천지역 학생운동의 주축이자 인천5·3민주항쟁에 대거 참가한 인하대학교 인접부지
5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토지	3,072㎡ (929평)	인천 교통 중심지, 문화예술회관 인근지역
6	비룡쉼터 (인천보훈병원 뒤)	토지	3,195.7㎡ (966평)	도심 속 시민 쉼터, 현재 외진 곳이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후 도심공원과 연계 활용 가능
7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토지	26,284.2㎡ (7,950평)	인천 교통, 상업 중심지, 인천아시아게임 선수촌 부근, 산업시설 문화적 재생
8	부평공원 (마군부대 애스컴, 캠프마켓 맞은편, 백운역과 인접)	토지	113,123㎡ (34,219평)	과거 군부대가 위치했던 곳에 조성한 공원으로 인천 (부평권)의 대표적인 시민쉼터
9	월미공원	토지	4855.1㎡ (1468평)	한국 근현대사에서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곳에 조 성된 자연생태공원 및 역사공원
10	북부근로자복지회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물	1,886.88㎡ (570평)	1987년 7.8월 인천지역 노동자대투쟁지역 인근에 위치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시민의견조사

### ■ 설문조사 종합결과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종합함.
- 1순위는 옛시민회관습터(‘툼’ 문화창작지대 포함)로 동일하게 나타남.
- 2순위는 부평공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3순위는 1차·2차 설문조사에서 인천 터미널 근처 공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3차 설문조사에서는 인하대 옆 공터로 나타남.
- 4순위는 1차·2차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3차 설문조사에서는 월미공원으로 나타남.

〈표 39〉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관련 1-3차 설문조사 종합결과

조사 차수		1차	2차	3차
조사기간		2020.08.03.~2020.08.06 (4일간)	2020.08.14.~2020.08.23 (10일간)	2020.08.24.~2020.08.27 (4일간)
응답자		건립추진위원회 참여 시민단체 대표	건립추진위원회 참여 시민단체 회원	인천시 ON-LINE협치위원단
응답인원		42명	170명	567명
응답결과	1순위	옛시민회관습터 (‘툼’문화창작지대 포함)	옛시민회관습터 (‘툼’문화창작지대 포함)	옛시민회관습터 (‘툼’문화창작지대 포함)
	2순위	부평공원	부평공원	부평공원
	3순위	인천 터미널 근처 공원	인천 터미널 근처 공원	인하대 옆 공터
	4순위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월미공원

### (1) 1차 시민의견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20.08.03.~2020.08.06.(4일간)
- 설문방식
  - 온라인 설문, 5점 척도 방식
- 설문대상
  - 건립추진위원회 참여 시민단체 대표
- 응답인원
  - 42명
- 설문내용
  - 후보지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조성부지 적절도
- 설문결과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의 우선순위를 설문한 결과 1순위 상징성, 2순위 접근성, 3순위 확장성, 4순위 주변연계활용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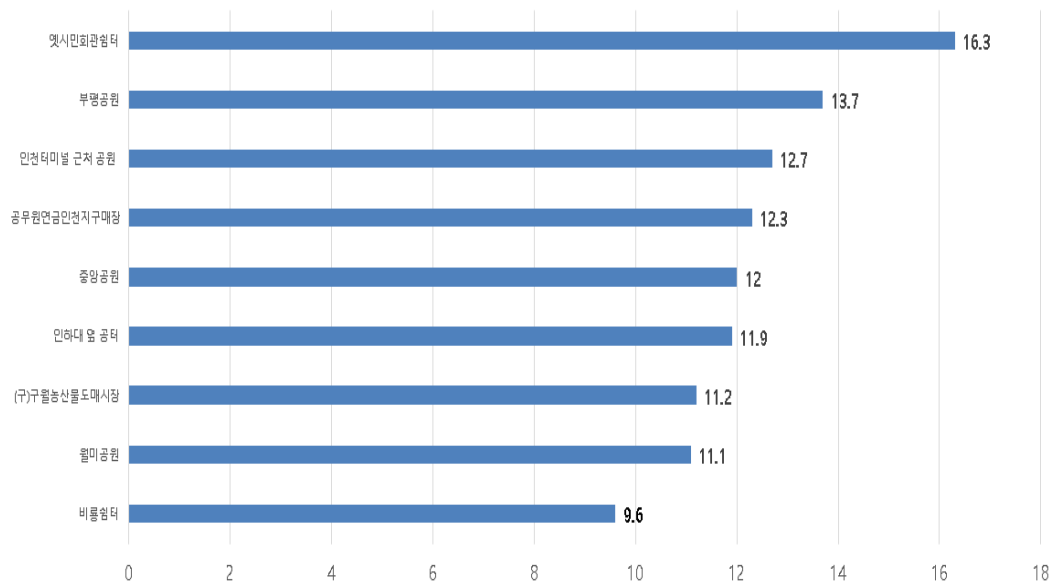
〈표 40〉 후보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 순위(1차 설문결과)

순위	선정기준
1	상징성
2	접근성
3	확장성
4	주변연계활용성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지 9곳의 장소, 위치, 의의를 제시하고 각 부지에 대해 후보지 선정기준 적합도를 5점척도로 설문한 결과 1순위 옛시민회관쉼터(16.3), 2순위 부평공원(13.7), 3순위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12.7) 4순위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12.3) 순서로 나타남.
- 다음으로 중앙공원(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12.0), 인하대 옆 공터(11.9),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11.2), 월미공원(11.1), 비룡쉼터(9.6) 순으로 나타남.

〈표 4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부지 순위(1차 설문결과)

응답 순위	부지	상징성 (5점)	접근성 (5점)	확장성 (5점)	주변연계 활용성 (5점)	평균값 (20점)
1	옛시민회관쉼터 (‘뜸’ 문화창작지대 포함)	4.4	4.3	3.8	3.8	16.3
2	부평공원	3.1	3.4	3.6	3.6	13.7
3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2.4	3.8	3.2	3.3	12.7
4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3	3.6	2.8	2.9	12.3
5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	2.4	3.2	3.2	3.2	12
6	인하대 옆 공터	3	2.8	3.1	3	11.9
7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2	3.3	3	2.8	11.2
8	월미공원	2.8	2.6	2.8	2.9	11.1
9	비룡쉼터	2.1	2.3	2.6	2.6	9.6



[그림 13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부지 순위(1차 설문결과)

## (2) 2차 시민의견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20.08.14.~2020.08.23.(10일간)
- 설문방식
  - 온라인 설문, 5점 척도 방식
- 설문대상
  - 건립추진위원회 참여 시민단체 회원
- 응답인원
  - 170명
- 설문내용
  - 후보지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조성부지 적절도
- 설문결과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의 우선순위를 설문한 결과 1순위 상징성, 2순위 접근성, 3순위 확장성, 4순위 주변연계활용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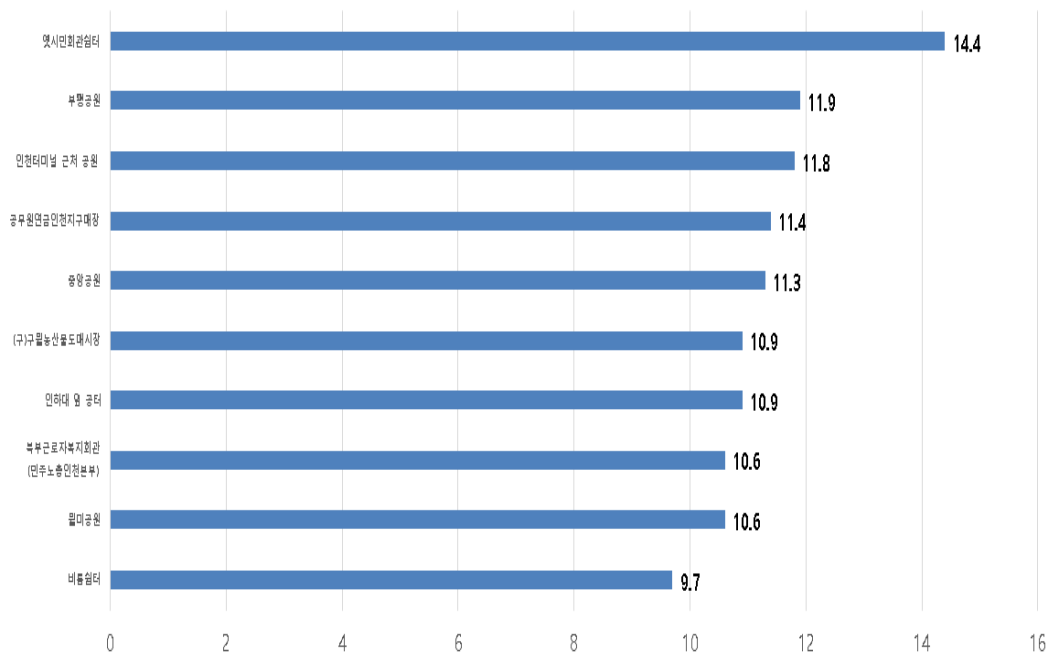
〈표 42〉 후보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 순위(2차 설문결과)

순위	선정기준
1	상징성
2	접근성
3	확장성
4	주변연계활용성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지 10곳의 장소, 위치, 의의를 제시하고 각 부지에 대해 후보지 선정기준 적합도를 5점척도로 설문한 결과 1순위 옛시민회관쉼터(14.4), 2순위 부평공원(11.9), 3순위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11.8), 4순위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11.4) 순서로 나타남.
- 다음으로 중앙공원(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11.3), 인하대 옆 공터(10.9),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10.9), 월미공원(10.6), 북부근로자복지회관(10.6), 비룡쉼터(9.7) 순으로 나타남.

〈표 4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부지 순위(2차 설문결과)

응답 순위	부지	상징성 (5점)	접근성 (5점)	확장성 (5점)	주변연계 활용성 (5점)	평균값 (20점)
1	옛시민회관사이트 (‘뜸’ 문화창작지대 포함)	3.9	3.7	3.3	3.5	14.4
2	부평공원	2.7	3	3.1	3.1	11.9
3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2.5	3.4	2.9	3	11.8
4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2.8	3	2.7	2.9	11.4
5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	2.5	2.9	2.9	2.9	11.3
6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2.3	2.9	2.8	2.9	10.9
6	인하대 옆 공터	2.8	2.6	2.8	2.8	10.9
7	북부근로자복지회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2.7	2.6	2.6	2.7	10.6
7	월미공원	2.6	2.5	2.7	2.8	10.6
8	비룡사이트	2.3	2.4	2.5	2.5	9.7



[그림 138]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적정부지 순위(2차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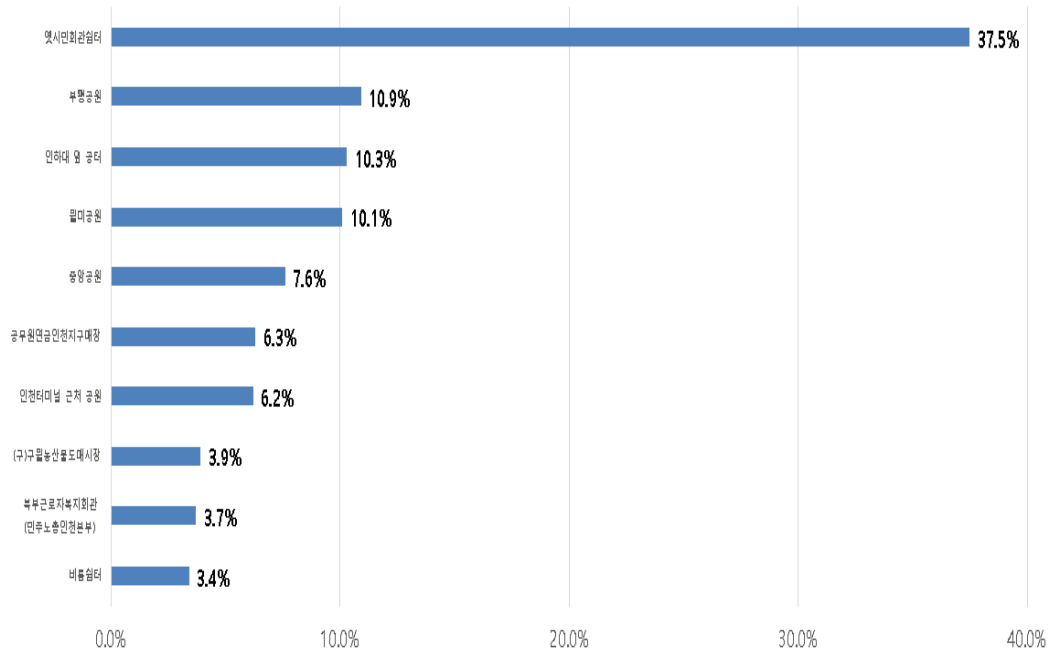
## (3) 3차 시민의견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20.08.24.~2020.08.27.(4일간)
- 설문방식
  - 온라인 설문, 선호도 조사
- 설문대상
  - 인천시 ON-LINE 협치위원단
- 응답인원
  - 567명
- 설문내용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호도
- 설문결과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지 10곳의 장소, 위치, 의의를 제시하고 1, 2, 3순위를 선택하도록 설문한 결과 1순위 옛시민회관쉼터(37.5%), 2순위 부평공원(10.9%), 3순위 인하대 옆 공터(10.3%), 4순위 월미공원(10.1%)순서로 나타남.
  - 다음으로 중앙공원 일부(7.6%),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6.3%), 인천터미널 근처공원(6.2%),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3.9%), 북부근로자복지회관(3.7%), 비룡쉼터(3.4%) 순으로 나타남.

〈표 44〉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호도(3차 설문결과)

응답순위	부지	빈도(%)
1	옛시민회관쉼터 (‘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37.5
2	부평공원	10.9
3	인하대 옆 공터	10.3
4	월미공원	10.1
5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	7.6
6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6.3
7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6.2
8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3.9
9	북부근로자복지회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3.7
10	비룡쉼터	3.4





[그림 139]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호도(3차 설문결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부지 관련 간담회 의견 (2020.09.16.)**

- 1안 :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응답된 옛시민회관점터(‘틈’문화창작지대포함)에 기념공간 조성을 강력 요청(조성가능방안 검토 및 행정재검토요청)
- 2안 : 1안이 불가능할 경우 ‘인하대 옆 공터’에 기념공간조성을 요청
- 현 조사대상지 내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 없음
- 기 검토한 사유지 이외에 10개 군·구내의 조성가능부지 별도조사 요청



### 제3절. 검토결과

- 10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가능 여부를 해당 후보지 관리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 조사함.
- 후보지 관리기관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후보지 10곳 모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에 부적정한 장소로 조사됨.
  - 옛시민회관쉼터(‘틈’문화창작지대 포함)은 ‘2021년도 생활밀착형 숲(국비보조사업)’조성을 위해 국비지원검토중이며, 정원조성 및 시설보완 등을 추진하여 쉼터기능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 부지 사용 불가(※ 2020.09.10. 국비보조사업대상지로 최종선정됨), ‘틈’ 문화창작지대는 국비가 투입된 복합문화시설로서 인천시에서 영구적 토지사용이 승낙된 건축물이기에 부지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은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입주단체 전체가 무상임대 상태로 이주 불가하여 부지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인하대 옆 공터는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SK스카이뷰 입주민이 「창업마을 드림존」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지임.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시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 더불어 인천시 고속도로재생과에서 현재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한 거점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 미추홀구 주민 요구사항(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개발 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인천터미널 근처 인근 공원과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념관 등의 시설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비룡쉼터는 녹지서비스 소외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해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기념공간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2020년 3월 2일 롯데 인천타운 건립을 위해 부지매각 상태로 기념공간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부평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 따른 공원시설 설치면적 초과로 기념관 등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월미공원은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공원조성계획상 행궁지구에 속하고 전통정원지구이므로 기념공간 조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됨.

- 북부근로자복지회관은 안전등급 D등급(미흡)에 해당하는 건물로 리모델링은 불가하나 신축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표 4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관리기관 검토의견

후보지	구분	소관부서	검토의견	부서 의견
옛시민회관쉼터 (‘틈’문화창작지대 포함)	토지 및 건물	녹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추홀구의 대표생활권 휴식공간으로 ‘2021년도 생활밀착형 숲(국비보조사업)’조성을 위해 국비지원검토중이며, 정원조성 및 시설보완 등을 추진하여 쉼터기능을 확대할 계획임 (※2020.09.10. 국비보조사업지로 최종선정됨)</li> </ul>	부 적 정
		문화콘텐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틈 문화창작지대’의 운영목적으로 100% 사용중</li> <li>문체부사업인 ‘인천콘텐츠펙터’사업의 전용공간으로 건립된 공유재산시설임(국비투입)</li> <li>복합문화시설 건축물로서 인천시에서 영구적 토지사용 승락된 건축물임</li> </ul>	
공무원연금 인천지구매장	건물	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법령에 의거 입주단체 전체 무상임대로 이주 불가</li> <li>*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	토지	인천대공원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공원녹지의 주 경관축으로 기념관 등의 시설 건립은 불가함</li> </ul>	
인하대 옆 공터 (SK스카이뷰 맞은편)	토지	버스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스카이뷰아파트 입주인들이 「창업마을 드림촌」조성을 요구하는 부지, 기념공간조성 위해 입주민동의가 필요</li> <li>현재 고속도로재생과에서 주변재생사업용지로 연구용역 중</li> </ul>	
인천터미널 인근 공원	토지	인천대공원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li> </ul>	
비룡쉼터	토지	녹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빌라 밀집지역내 위치하여 녹지서비스 소외지역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해 쉼터조치 필요</li> </ul>	
(구)구월농산물 도매시장	토지	농축산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매각 (2020.03.02. 롯데인천타운)</li> </ul>	
부평공원	토지	인천대공원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 따른 공원시설 설치면적 초과로 기념관 등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사용은 불가함.</li> <li>도시공원 내 시설 도입은 각 공원별 주제 및 개발목표에 따라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음.</li> </ul>	
월미공원	토지	월미공원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공원조성계획상 행궁지구에 속하고 전통정원지구가 들어서는 등 공원의 개념과 맞지 않음</li> </ul>	
북부근로자 복지회관	건물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등급 D등급(미흡)에 해당하는 건물로 리모델링은 불가하나 신축은 가능.</li> </ul>	

# 제5장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기본계획

제1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기본방향

제2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형태

제3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비용



## 제1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 방향

### 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건축의 기본 개념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건축 개념은 전문성, 연계성, 가변성, 활용성, 개방성, 접근성, 복합성, 상징성, 안전성, 일상성 등의 필수 요소를 반영해야 함.
- 전문성 :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문 거점시설로서 기능해야 함.
  - 연계성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타 기관 및 시설을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 필요
  - 가변성 :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용성 :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의 유기적 구성으로 활용성을 높여야 함.
  - 개방성 : 시민과 단체 등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함.
  - 접근성 : 접근이 편리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함.
  - 복합성 : 전사교육연구와 문화행사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함.
  - 상징성 : 접근이 편리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안전성 :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함.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시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일상성 : 성전과 같은 엄숙한 공간을 지양하고, 일상생활과 유리되지 않은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그림 140] 건축의 10가지 기본 개념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정체성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민주화’의 교육, 전시, 계승 등 특수한 목적을 내포한 공간으로 시설의 정체성은 문화시설의 건립 목적과 기능을 구체화하는 내재적 요소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정체성은 ‘인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억의 편린(片鱗)들과 이와 관련된 함축적인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함.

### ■ ‘인천민주화운동’ 관련 의미들

-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의 서사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정체성을 제시함.
- 인천5·3민주항쟁의 시간별 사건들을 기호학으로 분석하면, 평화, 연대, 개방, 능동, 시민, 인권, 노동자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평화, 연대, 개방, 능동, 시민, 인권, 노동자 등 의미들은 잠재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민주항쟁으로 표출됨.
-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된 평화, 연대, 개방, 능동, 시민, 인권, 노동자 등의 의미들은 ‘민주’의 범주에 속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음.
- 평화, 연대, 개방, 능동, 시민, 인권, 노동자 등은 독재의 범주에 속하는 폭력, 탄압, 단절, 폐쇄, 수동, 착취 자본가, 군사정권 등과 이항대립으로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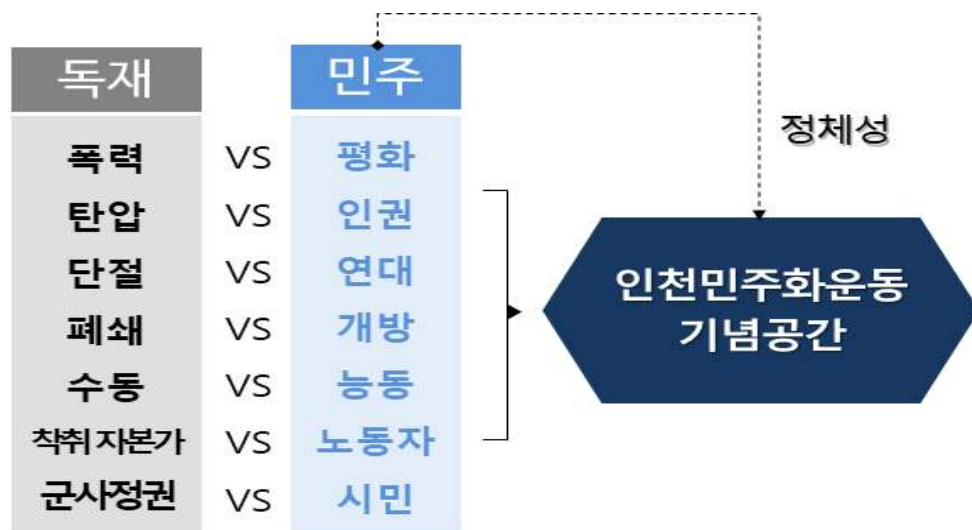
〈표 46〉 인천5·3민주항쟁 이항대립

민주		독재
평화		폭력
인권		탄압
연대		단절
개방	vs	폐쇄
능동		수동
노동자		착취 자본가
시민		군사정권

〈표 47〉 인천5·3민주항쟁 시간적 주요사건

구분	주요 사건
인권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은 이 시위를 좌경용공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체제 전복 기도로 단정, 형법 115조 소요죄를 적용해 129명을 구속하고 이호웅 인사연 의장, 이우재 인사연 집행국장, 장기표 민통련 정책실장을 비롯한 60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이 집회를 '5·3' '5·3사건' '5·3시위' '5·3행사사건' '5·3인천시위' '5·3 질곡을 송두리째 뒤튼 민주혁명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검찰은 이 시위를 좌경용공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체제 전복 기도로 단정, 형법 115조 소요죄를 적용해 129명을 구속하고 이호웅 인사연 의장, 이우재 인사연 집행국장, 장기표 민통련 정책실장을 비롯한 60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이 집회를 '5·3' '5·3사건' '5·3시위' '5·3행사사건' '5·3인천시위' '5·3 사태' '인천사태' 등으로 불렀으나<sup>23)</sup> 안기부가 이른바 '수사조장' 공문에서 '5·3인천소요사건'<sup>24)</sup>으로 규정한 이래 검찰도 '인천소요사건'으로 부르고 구속자들을 소요죄로 기소했다.<sup>25)</sup></li> </ul>
시민단체, 대학생 등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6월민주항쟁 이전 단일시위로 최대 인원 참가한 연합집회, 10시간 이상 지속한 최장 시위 (12:00~21:00)이며 지역 내 시위현장 상황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면서 펼쳐는 시위운동이었다. (시민회관,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동암역, 중구 경동4거리, 동인천역, 부천역 등)를 전개했다. 시위 참가 인원은 5만명 추산<sup>26)</sup>된다. 단체별로 보면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운동단체였던 인사연과 민통련 산하 23개 단체, 학생운동의 양대 세력이었던 민민학련과 자민투 소속 수도권 대학들과 인하대, 인천대, 노동운동 단체로는 인노련과 서노련, 인천기노련이 망라되었다. 민주화운동의 부문으로 볼 때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과 같은 민중운동과 학생운동, 문화예술운동, 종교운동, 단체연합 조직 등이 참가하였다. 5·3항쟁은 인천의 항쟁이자 전국 민주화운동 세력의 항쟁이기도 했다.</li> </ul>
대학생 인천5·3민주항쟁 참여,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하대와 인천대는 인사연과 연락하며 대회에 참가하였고 서울시내의 대학은 참가 결의를 하고 인천으로 집결했다. 당시 조직적으로 참가 대학은 인하대, 인천대를 비롯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숭전대, 고대, 장신대, 중앙대, 외국어대 등으로 약 4,000명의 시위대오를 형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민민투(민민학련)와 자민투로 별도의 대오를 만들어 시위에 참가했는데, 가장 규모가 큰 민민학련은 시민회관 남쪽 신기촌 방향을 맡아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li> </ul>
자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5·3민주항쟁은 80년 광주항쟁 이후 최대로 결집한 시위로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위축되었던 부문별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각자의 정치노선과 조직 역량을 대중적으로 드러낸 정치투쟁이었으며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li> </ul>
노동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의 노동자들이 주로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주안역에서 주안1동 성당 앞쪽에서 시위하였으며 “군사독재 타도하고 노동3권 보장하래!”, “생활임금 쟁취하자!”, “8시간 노동제 쟁취하자!”, “파업자유 쟁취하자!”, “박영진의 원수를 갚자!”, “폭력경찰 때려잡자!”, “노동해방 쟁취하자!”, “노동자의 손으로 삼반정권 타도하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삼민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3시 40분경 진압경찰 기동1중대 소속 최루탄 개스차(일명 페퍼포그)가 시위대오 속으로 들어왔다가 큰 충돌이 발생하고 시위대가 차량을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li> </ul>
시민과 군사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5·3민주항쟁에 위기감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인천5·3민주항쟁의 용공 이적성을 조작하고 폭력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소요죄’로 처벌하려고 시도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집회를 용공적 폭력집회로 몰아 민주화운동세력을 궤멸시키거나 현저히 약화시킨 후 보수야당을 견인하여 안정적 정권 이양이 가능한 개헌안을 관철하려 했다. 수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권 스스로 폭력적 본질을 드러냄으로, 민족민주운동 세력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li> </ul>

- 인천5·3민주항쟁의 계열체 분석을 통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의 정체성을 지녀야 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토대로 평화, 인권, 연대, 개방, 능동, 노동자, 시민 등의 가치를 제시하고, 교육과 연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되어야 함.
- 한편, ‘민주’와 대립된 범주인 ‘독재’는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경계의 대상이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에서는 독재의 참상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민주’와 관련된 의미 범주는 ‘독재’와 대립적인 의미 자질을 형성하고 있음.
- 인천 민주화운동은 인천5·3민주항쟁을 둘러싼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음.
- 인천5·3민주항쟁은 개방, 연대, 평화, 능동, 인권, 노동, 시민 등 의미를 함축하며 ‘민주’의 의미 범주에 속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인천5·3민주항쟁에 내재된 의미들의 총체로서 역할을 수행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인천5·3민주항쟁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소통하고, 민주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의 공간



[그림 14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정체성

- 23) 항쟁 직후의 경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부천경찰서는 ‘5·3’, ‘5·3사건’으로, 부평경찰서는 ‘5·3시위’로 인천동부경찰서는 ‘5·3사태로’ 경기도경찰국은 ‘5·3행사사건’ ‘5·3인천시위’라는 사건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 24) 안기부 수사조정(5.7) 이후 내무부 대검, 치안본부(5.17), 대공수사단(5.17) 경기도경(5.18)에서도 사용
- 25) 안기부는 도경국장, 인천 각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5·3인천소요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좌경성향 불순단체에 대하여 실상을 규명함에 있어 금번 당 관내에서 구속된 129명을 대상으로 추적수사를 통해 소요죄 배후 지령자와 기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 등을 발본색원의 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라는 수사조정 결과를 하달한다.
- 26) 인천5·3민주항쟁 참여 인원에 대하여 경찰 내부 보고 자료에는 1만 2천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는 2만에서 5만, 집회측에서는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기본 구상

#### ■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의 개념 도입

- 기념공간은 박물관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기본적으로 기념공간과 박물관은 유물의 발굴 및 보존, 전시, 교육, 연구라는 본래의 역할에서 유사성을 지니며, 특정한 사건, 인물 등 기념과 추모의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함.
- 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5조에서 박물관의 유사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따르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5.〉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의 이론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기본구상에 적용해 지역과 밀착된 기념공간을 구상함.
- 신박물관학은 어느 가치가 보다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것인가에 관심을 갖으며, 박물관의 당대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성원의 정체성 확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sup>27)</sup>
- 신박물관학은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소통 지향적이며, 지역민과 지역단체 등의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박물관을 지향함.
  - 근대 박물관학이 유물의 수집, 보존, 전시에 중점을 두었다면, 신박물관학은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 목표를 두고 있음.
  - 또한 공간 운영측면에서도 기존 박물관이 폐쇄적이었다면, 신박물관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성, 지식들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공유될 수 있는 역동성, 지역민 교육과 정체성 확보 등 지역성을 지향함.
  - 아울러 박물관이 시민들의 계몽기관으로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등을 강조한 반면, 신박물관학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적이고, 탈식민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함.

27) Stephen E. 『Weil, Rethinking The Museum—and other meditation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6, p.58.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신박물관의 이념을 적용하여 근대 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계몽기관, 성전 등의 모습을 경계하고, 관람객과의 새로운 소통과 전시 스타일을 중요하게 고려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 지역 공동체의 교육 등 지역과 밀착한 기념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표 48〉 근대박물관학과 신박물관학의 비교

구분	근대박물관학	신박물관학
수집범위	물질적 유물	비물질적 문화유산까지 포함
주요대상	유물 중심	사람 중심
조직	전문직원	지역시민과 전문가 참여
교육	근대시민교육	지역밀착형 교육
운영	폐쇄적	개방적, 역동적, 지역적
관점	민족주의적,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탈식민주의적 지역중심적

출처: 김연희(2015), “문화유산의 재활용 ‘신박물관학(New Museology)’: ‘박물관 프랜차이즈’ 프로젝트”, 서울행정학회, p.660. 재구성

- 관람객의 니즈와 전시기술의 발달로 박물관과 기념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의 박물관과 기념관이 제도로서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의 전시공간들은 문화콘텐츠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박물관은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등의 거대담론을 생산하는 엄숙한 ‘제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테마파크’와 같은 문화적 기관 혹은 시설로 변화하는 추세임.<sup>28)</sup>
  - 과거의 박물관이 ‘현대적 제의’의 관점에서 거대 서사를 다루고, 엄숙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것과는 달리 ‘작은 이야기’를 제시하고, 대중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며,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
  - 동시에 박물관 운영 전략은 전시를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객’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문화 소비자를 만들어 가고 있음.
  - 관람객은 기념공간 커뮤니티의 회원이 되어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여도를 높이는 문화 열광자의 활동을 하기도 함.<sup>29)</sup>

28) 태지호·권지혁(2017). “뉴미디어를 활용한 지역박물관의 전시콘텐츠 구성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p. 184.

29) 보니타 M. 콜브, 이보아 역(2007),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 김영사.

〈표 49〉 박물관과 기념관의 변화상

제로로서 박물관과 기념관	문화콘텐츠로서 박물관과 기념관
Archive/Gallery/Exhibition	Theme Park
World EXPO	Cultural Events
Education	Edutainment
Meta Narrative	Micro Narrative
Civilizing Rituals	Cultural Benefits
Museology	New Museology
Top-down	Down-top

출처: 태지호(2016), “문화적 재전유의 공간 모색을 위한 국립한글박물관의 커뮤니티 케이션에 관한 연구”, p.151. 재구성

- 한편,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T. W. Adorno)는 ‘발레리 프루스트 박물관’이라는 글에서 전시공간을 ‘가족의 무덤’으로 지칭함. 그는 전시공간이 죽어있는 과거 유물을 보존의 필요에 의해 현재로 소환됐다고 비판을 함.<sup>30)</sup> 다시 말해, 전시공간의 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이며, 폐쇄적인 역할에 문제제기함.
- 아도르노의 주장에 근거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민주화’ 관련 다양한 지식과 기억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담론의 공간이어야 하며, 방문객, 지역민, 지역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가 보장되는 실천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기본원칙을 1개의 거시적인 목표인 ‘역동성을 지닌 실천의 공간’과 4개의 세부목표인 ‘일상생활과 유리되지 않은 기념공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념공간’, ‘체험공간으로서 기념공간’, ‘이야기 공간으로서 기념공간’ 등으로 구상함.



[그림 14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지향점

30) 테오도어 아도르노, 박소현 역(2002), 『전시의 담론: 발레리 프루스트 미술관』, 눈빛, p.19.



## ■ 일상생활과 유리되지 않은 기념공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생산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해 민주주의 가치 교육과 정신을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기념공간이라는 특성상,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관람객에게 엄숙함과 진중함을 강요하기 보다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설립목적과 가치를 사회에 전파할 수 있으며, 공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엄숙하고 진지한 성전과 같은 기존 기념공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방문객과 지역민의 일상생활에서 유리되지 않은 친숙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 일상생활과 유리되지 않은 기념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전시, 체험 및 편의시설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행사 등 운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기념관들은 관람객에게 다가서기 위한 전략으로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 정기적인 문화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학예사와 함께하는 기록관 체험, 어린이 인권교실,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오월&금남로 답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는 평생교육, 독서문화행사,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
  - 독립기념관은 어린이날 행사, 해맞이 행사 등 관람객의 일상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운영



독립기념관 : 어린이날 행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학예사와 함께하는 기록관 체험

[그림 143] 기념관의 문화프로그램

##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념공간

- 기념공간은 교육, 전시 등의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기념, 교육, 전시, 오락, 문화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한 기념공간은 지역사회의 문화거점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함. 구체적으로, 지역 소재 초·중·고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을 위한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전시콘텐츠의 경우, 일방향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전시방식을 지양하고, 오락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방식을 적용하여 관람객이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도입하여 관람객이 거부감 없이 기념공간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대다수의 박물관은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전략은 관람객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그 특성들을 통해 관람객 집객 효과를 높이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임.
- 부산민주공원은 야외극장, 공연극장 등을 갖추어 학생들의 학예발표회, 야외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공연 활동 또한 관람객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그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서 인식되는 기능을 함.



[그림 144]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실내 공연극장(좌)과 야외극장(우)

## ■ 체험공간으로서 기념공간

- 관람객의 니즈 변화, 전시환경 변화, 뉴미디어 전시기술의 발전 등 박물관의 변화에 따라 ‘보여주는 유물’에서 ‘체험이 가능한 유물’로 전시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sup>31)</sup>
- 기념공간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 체험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음.
- 기념공간의 체험은 교육과 전시를 통해 진행됨. 우선, 전시 부분의 체험은 시각 위주의 전시 방식에서 오감을 활용한 핸드온(Hands-on)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체험전시는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관람객의 전시경험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관람객은 뉴미디어를 통해 쇼케이스 담긴 유물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음.
- 또한, 기념공간은 해당 공간의 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초·중·고 학생들임.
- 관람객은 기념공간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주제에 대한 흥미와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해당 주제의 이해도가 높아짐.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다양한 체험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이를 통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회로 확산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검단선사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조문국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그림 145]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31) 권지혁·태지호(2017), “의미와 지각을 통해 살펴본 지역 박물관의 전시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연구”, 『지역문화』, p.122.

## ■ 이야기 공간으로서 기념공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하는 공간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인천 민주주의 역사’를 관람객에게 제시하고, 관람객은 이 공간에서 민주주의 관련 이야기의 수용과 해석을 함.
- 스미스(Smith)에 따르면, 관람객은 기념공간이 제시하는 이야기를 경험함으로써 과거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기존 생각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sup>32)</sup>
- 그러므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가치를 서술하는 역사 재현의 공간이자 기억의 공간으로 설정되어야 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이 이야기의 공간으로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 사료를 발굴, 수집,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이야기들은 상설전시, 기획전시, 교육, 연구자료 발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공간과 관람객이 상호 소통하는 핵심 내용임.
- 이야기의 소재가 풍부할수록 기념공간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기념공간이 관람객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 의식이 뚜렷해짐.
- 이야기의 공간을 방문한 관람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역사적 내러티브를 현재로 소환하는 과정을 경험함. 특히, 역사적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음.
- 미국 마틴 루터킹 역사공원은 인종차별, 인권신장 등의 이야기를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인천 민주주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의 공간이며, 관람객은 인천 민주주의 역사가 투영된 공간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임. 또한 인천민주화운동과 관람객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임.



[그림 146] Martin Luther King, Jr. 국립역사공원

32) Smith, L. (2016). 『Changing views? Emotional intelligence, registers of engagement and the museum visit. Museums as Site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Perspectives on Museum Theory and Practice in Canada』, p.115.

## 제2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조성형태

### 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공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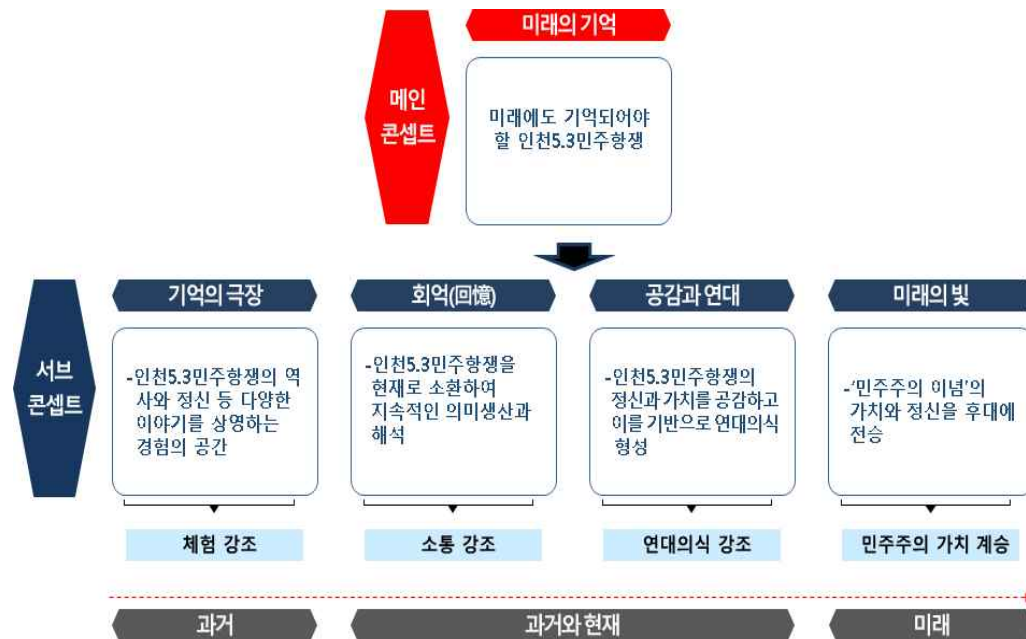
#### ■ 개념 : 미래의 기억(Memory of the future)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메인 개념은 “(가칭)미래에도 기억되어야 할 인천5·3민주항쟁 : 미래의 기억(Memory of the future)”으로 설정함.
- ‘미래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까지 전승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억의 내용으로서 ‘인천5·3민주항쟁’을 의미함. 또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시민들이 회상하고 공유하는 기억의 내용으로서 ‘인천5·3민주항쟁’을 강조하는 개념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메인 개념 ‘미래의 기억’ 아래 서브 개념으로 4가지를 설정하였음. 서브 개념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시간의 논리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음.
- 첫 번째 서브 개념은 과거의 경험 ‘기억의 극장’의 극장임.
  - 기억의 극장은 인천 민주화운동의 편린을 모아 관람객에게 제공
  - 기억의 극장은 ‘인천5·3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 등 다양한 이야기를 상영하는 경험의 공간을 의미함.
- 두 번째 서브 개념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회억’으로 설정함.
  - ‘회억(回憶)’은 발터 벤야민이 주장한 개념으로, 과거를 단순한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현재화시키는 기억의 실천을 의미<sup>33)</sup>
  - 회억은 과거가 현재의 일부가 되고, 현재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됨.
  - 서브 개념 ‘회억’은 인천5·3민주항쟁을 현재로 소환하여 끊임없이 의미생산과 해석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현재에 의미를 부여
- 세 번째 서브 개념은 현재와 과거의 공감 ‘연대’로 설정함.
  - 연대는 공감을 통해 이루어짐. 두 번째 개념 현재와 과거의 공감으로서 연대는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의미를 지님.
- 네 번째 서브 개념은 미래와 현재의 연결 ‘미래의 빛’으로 설정함.
  - 서브 개념 ‘미래의 빛’은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개념

33) 김남시(2014),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영미문학연구회, p.247.



- ‘미래의 빛은 ‘민주주의 이념’의 가치와 정신을 후대에 전승하고, 미래 사회가 기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전승하고, 어떻게 전승할 것인지를 다룸.



[그림 14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콘셉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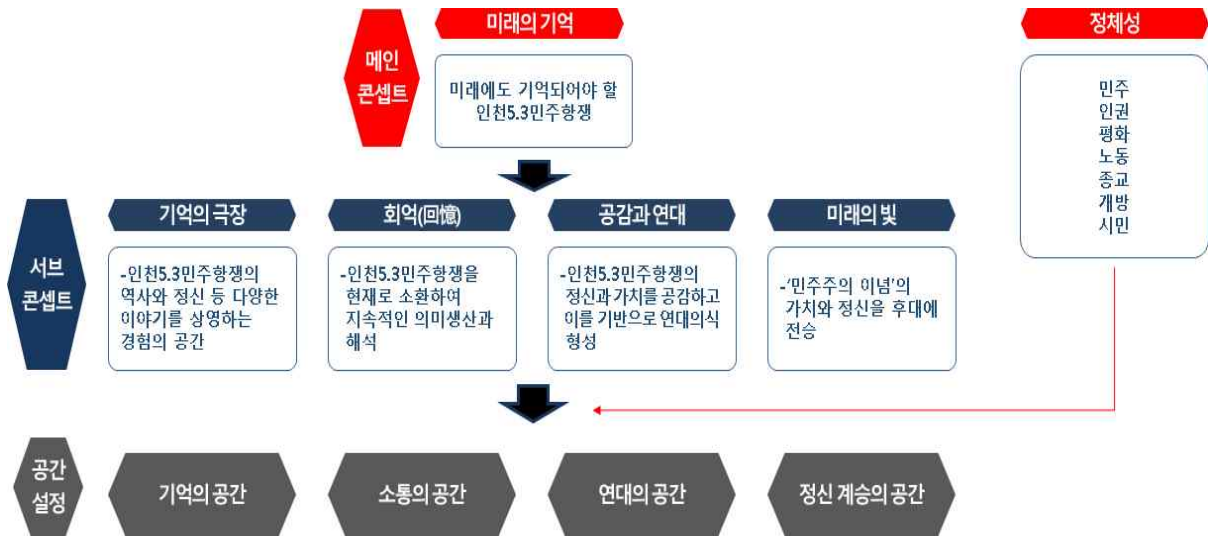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공간 구획

### ■ 공간 스토리텔링

- 기념공간은 메인 콘셉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브 콘셉트들로 구성됨. 대다수의 기념공간은 주제, 목적, 메시지를 관람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간 스토리텔링을 활용함.
-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간에 이야기를 담는 방법으로 기념공간의 정체성과 이야기의 주제 및 일관성,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함.
- 또한 콘셉트와 전시소재를 기반으로 공간과 공간, 공간과 관람객, 전시콘텐츠와 관람객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관람객 동선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 공간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점(전시콘텐츠)들을 선(이야기)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주제를 지닌 면(공간)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서 기념공간의 이야기를 명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기능을 함.
- 공간의 주제 설정과 공간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기념공간의 이야기와 관람객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간과 전시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 필요한 선행 작업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공간 정체성, 콘셉트 등에서 상술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간의 이야기를 구조화할 수 있음.
- 인천5·3민주항쟁에 내포된 민주, 평화, 인권, 노동, 종교, 개방, 시민 등의 의미와 컨셉으로 설정한 기억, 회억, 공감, 연대, 미래 등은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간에 적용함.

### ■ 공간주제 설정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모든 공간은 민주, 평화, 인권, 노동, 종교, 개방, 시민 등을 담지 하며 콘셉트의 목적에 따라 공간의 주제를 설정함.
- ‘기억의 극장’은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개념으로 이에 해당하는 공간의 주제를 기억의 공간으로 설정함.
- 현재로 소환한 과거의 의미생산과 해석을 강조하는 ‘회억’은 소통의 공간 주제로 설정함.
-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 공감을 통한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서브 콘셉트인 ‘공감과 연대’는 연대의 공간으로 주제를 설정함.
- 민주주의 이념을 후대에 전승하는 ‘미래의 빛’은 정신계승의 공간으로 주제를 설정



[그림 148]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공간주제 설정

### 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세부공간 구성

#### ■ 세부공간 설정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크게 기억의 공간, 소통의 공간, 연대의 공간, 정신계승의 공간으로 구분됨.
- 각 공간에는 ‘ZONE’에 해당하는 세부 공간을 포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박물관과 기념관은 대형 공간의 하위 영역으로 몇 개의 세부 공간(ZONE)을 배치하고 있음.
- 세부공간을 좁게 보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1층 전시실은 민주주의 발원, 민주주의 잉태, 타오르는 횃불, 불꽃 계양, 사료관, 영상관, 체험관 등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됨.
- 세부공간을 넓게 보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4층은 회의실,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사무실 등 4개의 세부공간으로 구성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4개 공간의 하위 영역으로 세부 공간을 구성함. 이를 위해서 박물관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6가지 영역의 공간을 살펴봄. 다만, 박물관은 규모, 운영주체, 특성에 따라 공간의 면적과 개수가 다양함.
- 박물관의 공간은 편의기능, 전시기능, 교육기능, 수장기능, 연구기능, 사무기능, 관리기능 등 6가지 기능으로 유형화 됨. 박물관의 세부공간을 기능별로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음.

〈표 50〉 박물관의 공간 기능에 따른 분류

공간 기능	세부공간
편의기능	매표소, 안내소, 단체안내소, 휴대품보관소, 진입홀, 로비, 중앙홀, 기념품샵, 식당, 카페테리아, 휴게실, 귀빈실, 의무실, 옥외화장실
전시기능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전시실, 비디오실, 전시준비실, 유물용 엘리베이터실, 전시비품창고
교육기능	시청각실, 강당, 대강당, 기타집회시설, 영사실, 음향실, 영상자료실, 기타자료실, 강의실, 실기실, 세미나실, 사무실, 도서실,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실, 다목적홀
수장기능	수장고, 특별수장고, 전실, 임시수장고, 하역장, 포장해체실, 수리공작실, 작업실, 정리작업실, 세척실, 소독실, 수장관리실, 유물열람실
연구기능	학예실, 컴퓨터실, 세미나실, 정리작업실, 보존과학실, 연구실, 사진촬영실, 암실, 소독실, 인쇄실, 자료실, 기자재창고, 약품창고
사무기능	관장실, 비서실, 사무실, 회의실, 상황실, 보안실, 실장실, 당직실, 전산실, 직원식당, 방송실, 교환실, 휴게실, 자원봉사실, 양호실
관리기능	방재실, 방호원실, 종합통제실, 수위실, 숙직실, 샤워실, 청소도구실, 창고,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기계반입실 소화가스분배실, 발전기실, 변전실, 옥내주차장, 지상주차장, 물품반출입구, 부속건물

- 박물관의 공간 기능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14개의 세부공간을 도출하였으며, 각 세부공간은 교육, 운영, 체험, 편의, 교류, 소통 등
- 14개의 세부공간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교류협력실, 교육실, 체험학습실, 사료실 사무실, 수장고, 오픈 스페이스, 로비, 북카페, 기념품샵, 문화공연장 등임. 이 중 오픈 스페이스, 교류협력실은 신규로 추가함.
- 이를 기반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세부공간 설정은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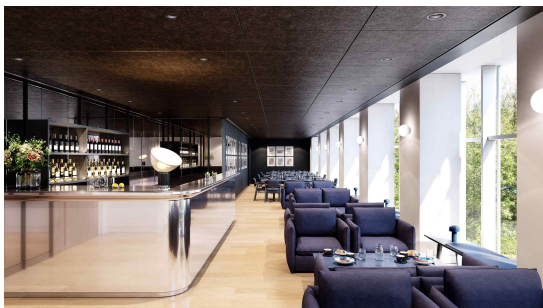
〈표 5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세부공간

공간 유형	공간 목적	공간 기능	세부공간
기억의 공간	민주주의 수용과 해석	전시기능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소통의 공간	민주주의 정신 공유 및 확산	소통기능	오픈 스페이스, 로비, 북카페, 기념품샵, 문화공연장
		편의기능	
		문화기능	
연대의 공간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	연대기능	세미나실, 교류협력실
정신계승의 공간	민주주의 가치 계승	교육기능	교육실, 체험학습실, 사료실
		연구기능	
지원 공간	기념공간 운영 지원	사무기능	사무실, 수장고

## 4.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세부공간별 기능

### ■ 오픈 스페이스

- 오픈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도시 속 개방된 장소로서 광장을 의미하며, 시민들이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함.
- 건축물 실내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는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매개 공간으로 소통과 교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는 시민, 단체, 관람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민주주의’ 관련 정보와 의견을 공유
- 오픈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해외 사례로, 런던 디자인 뮤지엄과 스웨덴 세계 문화 뮤지엄이 있음. 런던 디자인 뮤지엄은 전시실과 연계성을 강화한 형태로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강연, 토론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스웨덴 세계 문화 뮤지엄은 오픈 스페이스를 휴식, 소통, 강연, 교육 등으로 운영하여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조성함.



런던 디자인 뮤지엄 오픈 스페이스



런던 디자인 뮤지엄 계단형 오픈 스페이스

[그림 149] 오픈 스페이스 사례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는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 상호작용성 등을 갖추어야 함.
  - 개방성 : 개인이나 집단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 연계성 : 오픈 스페이스는 다른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 연계성을 강화해 사람들의 집객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상호작용성 :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용자 간 최적의 의사소통을 유도할 수 있음.
  - 쾌적성 : 오픈 스페이스에서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쾌적한 공간 연출, 기자재, 간단한 식음시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함.

## ■ 사료실

- 사료실은 ‘인천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사료의 수집·기록·연구 등을 수행하는 아카이브 공간임.
- 민주화운동 사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열람실을 구축하여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료실은 민주주의 지식정보센터 지향함.

## ■ 세미나실

- 세미나실은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 세미나 및 포럼 등 학술 소통 공간으로 조성함.
- 세미나실은 학술단체, 시민단체, 대학, 학교, 시민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 ■ 상설전시실

- 상설전시는 기념공간의 핵심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유물들을 상시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임. 여기서 말하는 유물은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정신적인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 가치 있는 다수의 유물을 소장한 전시시설일수록 상설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는데, 상설전시는 전시시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 향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인천5·3민주항쟁, 민주주의, 인물, 사건 등의 전시소재를 발굴하여 기념공간의 정체성 제시와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함.
- 또한 전시 트렌드와 관람객의 니즈가 변화함에 따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상설전시실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시콘텐츠를 고려해야 함.
- ‘상설’이라 함은 최소 10년 이상의 전시 기간을 가리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시효과가 경감함. 뉴미디어 기반 전시콘텐츠는 업데이트가 용이해 전시효과의 경감을 방지할 수 있음.





2·28기념회관 상설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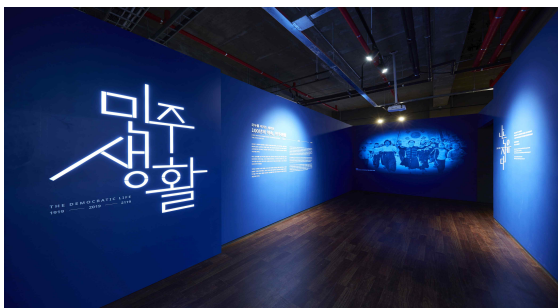


뉴미디어 활용한 상설전시 : 세종이야기

[그림 150] 상설전시실 사례

## ■ 기획전시실

- 기획전시는 단기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주제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함.
  -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 상설전시는 전시 콘텐츠를 장기간에 걸쳐 전시하여 주제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전시 주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함.
  - 기획전시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단기간에 전시할 수 있으며, 신선함과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 주제들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음.
  - 상설전시에서 전시할 수 없는 실험적인 주제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기획전시할 수 있음.
  - 또한 기획전시에서 진행한 다양한 주제들은 향후 상설전시실에 반영할 수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상설전시에서 다루기 어려운 전시 소재들을 기획전시로 진행
- 시민이 참여하는 특별전시전 등을 개최해 관람객 관심 증대,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과 밀착한 문화기관의 역할을 함.
- 또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에서 수행하는 조사, 연구, 교육 등과 연계한 기획전시의 주제 개발 및 운영



[그림 15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전시

## ■ 사무실

- 사무실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운영 및 기획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
-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사무실은 1층 또는 최상층에 위치해 관람객과의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함.

## ■ 교육실

- 교육실은 기념공간의 핵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는 공간으로 필수 시설임.
- 최근 박물관은 전시 주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민을 집객하고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도 민주주의 관련 교육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여 지역과 분리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교육실은 40~50명 정도가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하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디바이스를 설치해야 함.

## ■ 기념품샵

- 기념품샵은 기념공간의 일부로 작용함. 관람객의 기념품샵 방문은 기념공간의 연장선으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공간의 주제와 동질성을 띄고 있음.
- 기념품샵에서 상품 구매는 기념공간과 관람객 간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임.
- 기념품샵의 판매품은 기념공간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관람객에게 해당 공간의 추억과 주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함.
- 대다수의 박물관과 기념관은 기념품샵을 운영하여 운영자금 확보 및 관람객의 재방문을 촉진시키고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기념품샵을 운영해야 하며 이곳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은 인천5·3 민주항쟁 관련 액세서리, 캐릭터, 도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서울역사박물관 기념품샵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기념품샵

[그림 152] 기념품샵 사례

## ■ 북카페

- 북카페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편의시설로 독서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식음할 수 있는 공간임.
- 북카페에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발간물, 민주주의 관련 서적 등을 배치해 카페를 방문한 관람객이 음료를 마시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어린이들의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며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임.
- 유명 박물관과 기념관은 카페를 도입해 관람객의 편의 제공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함.



수원화성박물관 북카페



국립산악박물관 북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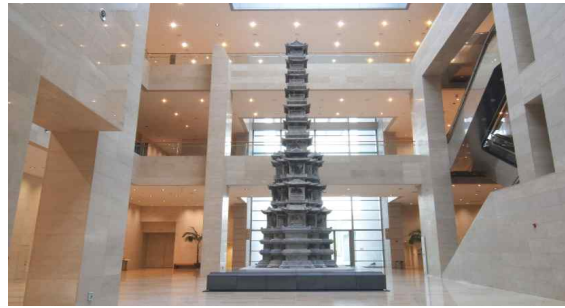
[그림 153] 북카페 사례

## ■ 광장 및 로비

- 광장과 로비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공간으로 상징성을 지닌 조형물, 공간의 콘셉트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함.
- 다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광장보다 건축물의 필수시설인 로비로 한정함.
- 로비는 관람객이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작점이자 모든 관람이 마무리되는 종료지점으로 인상이 중요함. 유명 박물관과 기념관은 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로비에는 기념품샵, 북카페 등 편의시설 등을 배치함.
- 특히, 전시 유물을 강조하는 기념공간의 경우에는 로비가 위치한 1층에 체험학습실을 배치시켜 관람객의 전시경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함.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로비



국립중앙박물관 로비

[그림 154] 로비 사례

## 수장고

- 수장고는 수장자료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전시기능이 중요한 박물관에서는 필수 시설임.
- 박물관과 달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소장 유물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수장고는 최소 면적으로 조성되어야 함.
  - 박물관은 도자기·토기, 회화·전적, 목제품, 피모·식물, 금속 등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수장고를 운영
  - 이와는 달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물질 형태의 유물 수량이 적고, 기록문서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장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소 면적으로 조성

## 체험학습실

- 박물관과 같은 공간은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체험을 전시와 교육에 연계하고 있는 추세임.
- 전시 체험은 시각 중심 전시에서 핸즈온 방식의 오감 전시로 이행하고 있으며 주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체험교육은 박물관의 핵심 주제와 연계한 교육으로 상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대상은 초·중·고 학생임.
  - 어린이들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습 주제들을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상시적인 체험학습실을 조성하여 민주주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관람객을 집객할 수 있는 매력 요소로 체험학습실을 활용할 수 있음.





울산암각화박물관 체험학습실



대구교육박물관 체험학습실

[그림 155] 체험학습실 사례

## 교류협력실

- 교류협력실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 현안을 놓고 교류하는 공간임.
- 다양한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프로그램 등을 회의하는 공간임.

## 문화공연장

- 박물관과 기념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객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문화공연장은 지식의 공간에서 문화의 공간으로 박물관을 변화시킨 주요 시설로서 영화 상영, 연극 공연 등의 지역 행사를 운영하고 있음.
- 문화공연장은 민주화 관련 국제포럼과 학술대회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문화공연장을 구축하여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행해야 함. 특히, 민주주의 관련 공연, 영화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적 실천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함.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문화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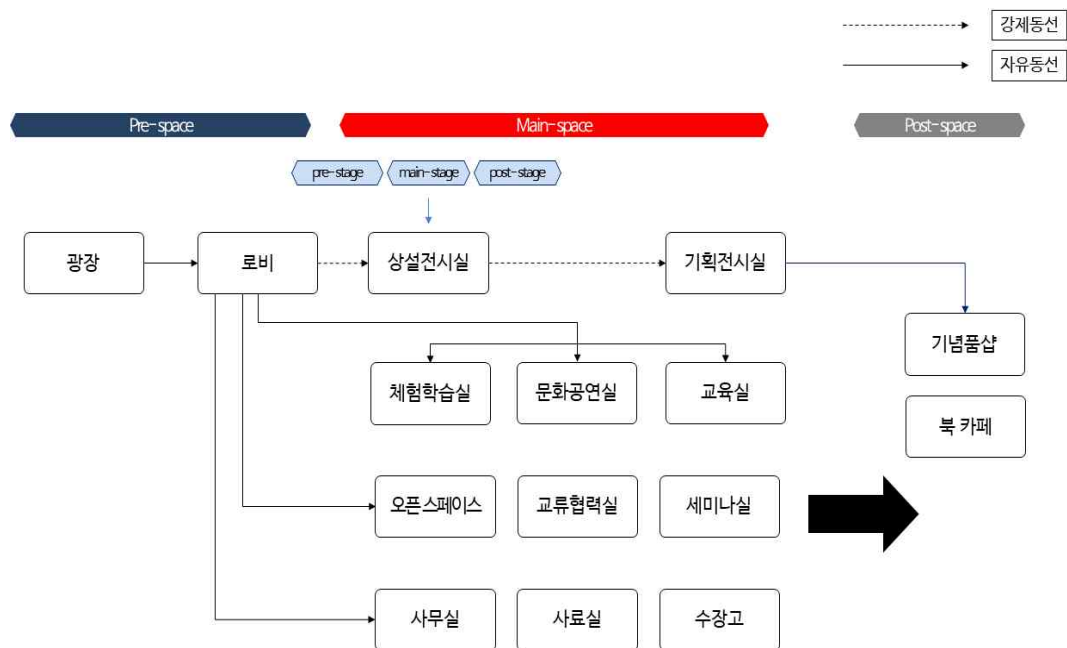
한글박물관 실내공연장

[그림 156] 문화공연실

## 5. 공간 동선

### 동선 설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건축물의 부채와 부지 미확정으로 동선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따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pre-space, main-space, post-space 순으로 동선을 설정함.<sup>34)</sup>
- pre-space는 로비, 북카페 등, main-space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교육실, 문화공연실, 교류협력실, 오픈 스페이스, 세미나실 등임. 마지막으로 post-space는 북카페, 기념품샵임.
- main-space에 위치한 전시실은 강제 동선으로 설계하며 이외의 공간은 자유동선으로 설정함.
  - 동선 설정은 문화시설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계됨. 전시가 강조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제동선을 사용함. 강제 동선은 관람객에게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임.
  - 다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강제동선과 자유동선을 병행함. 강제동선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로 한정하며, 자유동선은 교육실, 문화공연실, 교류협력실, 오픈 스페이스, 세미나실 등에 적용함.



[그림 15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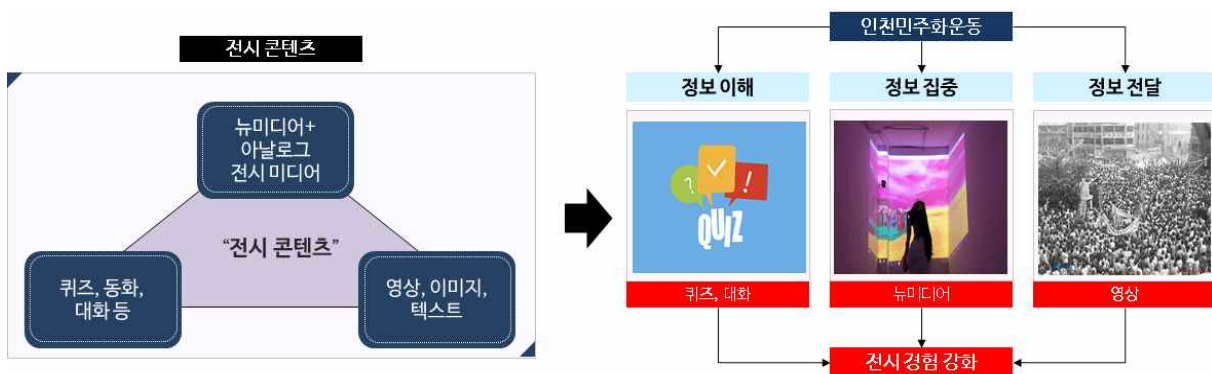
34) space의 구분은 관람객들이 테마/주제를 명료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한 것. pre-space는 관람객이 기념공간을 선행적으로 이해하는 공간. main-space는 관람객이 직접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 post-space는 모든 경험 후 감동과 여운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이러한 구분은 테마파크의 pre-show, main-show, post-show라는 어트랙션 설계와 유사함.



## 6. 관람객 경험 설계

### ■ 관람객 경험 설계

- 관람객의 전시경험은 인천민주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임. 이를 위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관람객의 긍정적인 전시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최근 기념공간들은 뉴미디어 전시 콘텐츠를 활용해 전시효과 극대화와 관람객의 전시경험도 우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음.
- 뉴미디어 전시기술을 탑재한 전시콘텐츠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융합하여 문화콘텐츠와 유사한 특성을 지님.
- 문화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경험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 사용자마다 감정, 성향,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대상에 대해 평가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동일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하여도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평가를 함.
- 수용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는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수용자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과정이며 스토리텔링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관람객을 염두에 두고 무엇(민주화운동)을 어떻게(전시미디어와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전시시설의 주제와 내용을 관람객에게 무엇을 전달하여 어떻게 경험시킬 것인가를 설계하는 과정이 관람객의 경험 설계라 함.
- 예를 들어, 동일한 박물관의 소재라도 매체(패널 또는 스마트 폰), 형식(텍스트, 영상)에 따라서 관람객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경험 설계는 매체, 내용의 전달 형식 그리고 이를 통한 경험효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함.



[그림 158]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관람객 전시경험

○ 경험설계는 무엇, 어떻게, 경험, 인지 등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무엇’은 전시콘텐츠의 이야기 소재로서 인천민주화운동 관련 인물, 사건, 에피소드 등임.
- ‘어떻게’는 전시 소재로서 인천민주화운동의 재현을 다루는 단계로 관람객의 전시 경험을 고려해야 함. 이 단계에서는 전시 소재를 전시콘텐츠로 구체화함.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는 사건의 재현방식(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전시 미디어(뉴미디어 및 아날로그), 정보 전달방식(퀴즈, 정보설명) 등을 설계함.
- 완성된 전시콘텐츠는 관람객에게 인천민주화운동을 간접 경험시켜주는 역할을 함.
- 전시콘텐츠를 어느 공간에 배치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임. 전시콘텐츠의 이야기 연쇄와 배열에 따라 관람객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인지’ 단계는 관람객의 전시콘텐츠 경험을 통해 ‘인천민주화운동’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의 단계임.



[그림 159]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관람객 경험설계

## 7.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시설면적 산출

- 2017년 전국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물관 상설전시실의 평균 시설면적은 상설전시실 1,819.2㎡, 기획전시실 324.2㎡, 교육실 248.5㎡, 연구실 106.1㎡, 사무실 179㎡, 문화상품점(뮤지엄샵) 80.4㎡, 수장고 439.8㎡, 주차장 2,630.3㎡ 등으로 조사됨.
- 그러나 박물관의 운영 주체(기관)에 따라 시설면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박물관의 평균값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에 적용할 수 없음.
  -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의 면적은 18,450㎡인데 반해 국립서울교육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은 352㎡으로 18,098㎡의 차이를 보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화 관련 기념관들의 평균 연면적과 비슷한 박물관을 토대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시설면적을 산출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부지 미확정으로 시설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이 필요

〈표 5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시설면적

공간 유형	세부공간	개수	면적(㎡)	비율(%)
기억의 공간	상설전시실	1	394	14
	기획전시실	1	139.3	5
소통의 공간	오픈 스페이스	1	108.9	4
	북카페	1	110.5	4
	로비	1	100	4
	기념품샵	1	36.7	1
	문화공연장	1	463	17
연대의 공간	세미나실(중)	1	140	5
	세미나실(소)	1	70	3
	교류협력실(중)	1	70	3
	교류협력실(소)	1	40	1
정신계승의 공간	교육실(중)	1	140	5
	교육실(중)	1	70	3
	체험학습실	1	102	4
	사료실	1	350	13
지원 공간	사무실	1	86.9	3
	수장고	1	350	13
합계		17	2,771.3	100

- 이외에 주차장 면적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인천광역시)를 근거로 산출함.

〈표 53〉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인천광역시)

시설물	설치기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연면적은 2,771.3㎡으로 28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주차면적은 일반주차장 기준(2.5m × 5m) × 28면으로 350㎡ 산정됨.
-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전체 연면적은 2,771.3㎡와 350㎡를 합산한 3,121.3㎡임.

## 제3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비용

## ■ 공사비 산정 준거 사례

- 2016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및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전체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며,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4〉 2016~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비교

2016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구분	000과학관 신축공사	00기념관 건립공사	00공원 건축공사
사업 규모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5,570.51㎡	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 3,072.26㎡	지하2층 - 지상2층 연면적 24,585.42㎡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총 공사비(원)	15,182,974,000	8,158,386,000	71,403,363,000
1㎡공사비(원/㎡)	22,735,599	2,655,500	2,904,297
2019년 보정	3,022,414	2,901,982	3,220,911
골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참고사항	제1종일반주거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대지면적 10,703.7㎡ 조경면적 1,712.92㎡ 최고높이 13.85m 과학관 전시동(3층) 1개동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11,155㎡ 최고 높이 11.4m 조경면적 3,710.79㎡ 신재생에너지 : 지열 전시장 1개동, 전시 인테리어 별도	자연환경보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대지면적 969,759㎡ 최고 높이 8m 조경면적 45,426.25㎡ 전시동 1개동 전시 인테리어 별도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구분	000종합전시관 건축공사	00기념관 건립공사	000박물관 건립공사
사업 규모	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지하1층 - 지상2층	지하1층 - 지상4층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총 공사비(원)	14,355,602,000	13,433,723,000	48,996,901,000
1㎡공사비(원/㎡)	2,355,602,000	2,742,348	2,635,163
2019년 보정	2,525,179	2,909,132	2,837,193
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 일부 철골조
참고사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200㎡ 기준층 층고 6m 조경면적 50.52㎡ 최고높이 22.95㎡ 본동 1개동 지역냉난방시스템 태양광시스템 전시마감 제외	대지면적 9,530㎡ 기준층 층고 5.4m 조경면적 6,272.12㎡ 최고높이 16.2㎡ 기념관 1개동 녹색건축 우수 에너지효율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 인정기능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사업면적 15,000㎡ 기준층 층고 5.4m 조경면적 2,923.30㎡ 최고높이 26.65㎡ 박물관 1개동 녹색건축 우수 에너지효율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 인정

- 2017년 전시시설 건축공사비는 최저 2,525,179원/㎡ 최고 2,909,132원/㎡(부가가치세 별도)
- 2017년 전시시설 중 평당 3,049,000원/㎡이었던 곳도 있는 것으로 보아 점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3,000,000원/㎡으로 산정 가능
- 2017년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조사, 통계청)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예상치 1.3%(19-20년 평균) 4년 합계 5.1% 적용 시 3,258,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가능

##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건축비용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면적당 건축비용은 3,258,100원/㎡으로 최종 산정
- 건축비용 산정 근거를 기반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공사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공사비용

공간 유형	세부공간	면적(㎡)	산정 근거	합계(원)
기억의 공간	상설전시실	394	공간 면적 × 3,258,100원/㎡	1,283,691,400
	기획전시실	139.3		453,853,330
소통의 공간	오픈 스페이스	108.9		354,807,090
	북카페	110.5		360,020,050
	로비	100		325,810,000
	기념품샵	36.7		119,572,270
	문화공연장	463		1,508,500,300
연대의 공간	세미나실(중)	140		456,134,000
	세미나실(소)	70		228,067,000
	교류협력실(중)	70		228,067,000
	교류협력실(소)	40		130,324,000
정신계승의 공간	교육실(중)	140		456,134,000
	교육실(소)	70		228,067,000
	체험학습실	102		332,326,200
	사료실	350		1,140,335,000
지원 공간	사무실	86.9		283,128,890
	수장고	350		1,140,335,000
기타	주차장	350		1,140,335,000
합계		3,121.3		10,169,507,530





# 제6장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운영기본계획

제1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기본 운영 방향

제2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 및 조직구성(안)

제3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운영방식검토



## 제1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기본 운영 방향

### 1. 비전 및 목표

- 인천5·3민주항쟁을 비롯한 인천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 및 민주주의 가치확산의 필요성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염원을 고려하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미션, 비전과 가치, 목표전략과 전략과제들을 제시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미션: ‘문화시민이 만드는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인천’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을 위한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 ‘비판적 담론을 위한 열린 공간이 허용되는 사회’
  - ‘공존을 풍부하게 하는 인본주의 사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핵심가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소통과 참여’
  - ‘협력과 연대’
  - ‘정신 계승과 가치확산’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가치실현을 위한 목표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소통과 참여’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 ‘협력과 연대’의 실현을 위해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 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며, 다양한 공동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가치확산’을 위해 민주화기념관을 조성하고, 민주주의 교육과 예술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목표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본 기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용, 자유와 책임, 단결과 지속가능성, 기회균등과 세대 간 공정성을 원칙으로 실행.
  - “민주주의는 교육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실천수범하는 일이다.”(Roman Herzog)
  - 민주주의는 “배워야 할 정치적으로 구성된 유일한 사회 질서”다.(Oskar Negt)
- ‘민주주의,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봉사’의 가치들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음.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치참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본 기관은 민주주의 사고와 행동의 거점이며, 참여의 용기와 협동 정신의 훈련장이며, 우리의 민주시민사회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윤리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적 조건 및 공개 토론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젊은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하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세 가지 원칙, 즉 ‘세뇌 교육의 금지(Überwältigungsverbot)’,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의 수용(Kontroversität)’, ‘학생의 개인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치적 수단과 방법의 모색(Schülerorientierung)’을 준용함.
- 첫 번째 원칙은 교육자의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강요와 주입을 금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상이한 관점이 부재하고, 선택 권한이 억제되고 대안이 논의되지 않는 채 남아 있는 상태를 지양함. 따라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함. 마지막 원칙은 학생들이 처한 개인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개인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운영기술을 습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본 기관은 이와 같은 목표와 원칙 하에 사회적 응집력 강화, 자유와 다양성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 및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 마을문화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
- 또한 집단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청,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교류사업을 실시함.
- 민주화기념관 조성, 민주주의교육, 문화교육,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지식정보 구축,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전시기획, 민주주의, 인본주의 등 보편적 가치확산을 위한 문화교육을 실시함.

미션	문화시민이 만드는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인천!		
비전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을 위한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비판적 담론을 위한 열린 공간이 허용된 사회 공존을 풍부하게 하는 인본주의 사회		
가치	소통과 참여	협력과 연대	정신계승과 가치확산
목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응집력 강화</li> <li>• 자유와 다양성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 간의 네트워크 구축</li> <li>• 민관 협치 활성화</li> <li>• 다양한 공동체 교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기념관 조성</li> <li>• 민주주의 가치확산을 위한 교육</li> <li>• 예술을 활용한 문화교육</li> <li>•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취</li> </ul>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육성</li> <li>• 마을문화교육 활동가 양성</li> <li>• 마을문화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문화재단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li> <li>• 관련기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 운동 및 민주주의 지식정보 구축</li> <li>• 민주화 정신 계승 전시기획</li> <li>• 민주주의, 환경보호, 인본주의 등 보편적 가치확산을 위한 문화교육 실시</li> </ul>

[그림 160]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비전 및 전략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프로그램 운영 방향

### ■ 운영 프로그램 및 구성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운영 프로그램은 크게 전시, 교육, 사료실 운영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자산을 후대에 전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과 성취를 인천시민의 자부심으로 승화하고 공유함.
- 인천시민들이 과거 부당한 권력에 대한 투쟁과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며,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활동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뜻을 기림.

### ■ 전시실 프로그램

- 전시실 운영계획
  - 전시는 관람객이 인천민주화운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연계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 기획 전시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전시는 전통적 전시방식(나열식, 평면식, 공급자 중심)을 넘어 뉴미디어, 증강현실(VR), 정보기술(IT), 3D입체현상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최신 전시기법으로 연출
  - 상설전시의 장기운영은 관람객의 불만을 유발하고 재방문 동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설전시의 주제를 바탕으로 기획전시를 함께 운영하여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운영
  -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 온라인 전시·해설, 소장품 온라인 공개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강화
- 전시실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 전시콘텐츠 유물 나열식 전시에서 체험전시로, 사료보존에서 교육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기억축적을 넘어 미래창조를 지향
  - 전시 운영은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사료관 연계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운영
  - 전시 형태는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가 결합된 참여와 체험 중심의 쌍방향 전시로 연출, 또한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한 비대면으로도 관람이 가능한 전시 시스템 구축

○ 전시실 프로그램 예시

〈표 56〉 전시실 프로그램 예시

전시유형	전시영역	전시 연출방향
상설전시	민주화운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근현대사와 연계한 전시</li> <li>• 인천민주화운동사를 총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li> <li>• 인천5·3민주항쟁의 민주사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li> <li>• 인천 시민들과 함께한 민주화운동 전개 과정 전시</li> <li>• 인천 민주화운동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li> </ul>
	민주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지방자치 등) 이해</li> <li>• 민주주의 및 인본주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li> <li>• 소통, 환경, 지속가능성 등 보편적 미래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시민교육</li> <li>• 문화예술을 활용한 재미있는 체험교육</li> </ul>
기획전시	기획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이슈, 자체 연구결과 등과 연계한 주제전 기획 운영</li> <li>•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li> </ul>

##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사업의 목적

- 민주시민교육의 근거: 2020년 ‘국정과제(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국정과제(76-5-2)학부모,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조례’ 등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한국과 인천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 시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강화

○ 교육사업 운영계획

- 미래 지향적·성찰적 민주주의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
- 민주화운동의 이해, 체험 등을 통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 민주주의 교육자료의 제작과 활용 및 배포
-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교사 대상 교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어린이-청소년-청년-장년-노인)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 전시나 사료를 통한 교육: 시각적, 정서적, 감성적, 참여적 교육
- 영상매체, 연극,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교육매체와 방법을 통한 교육
- 청소년 집단체험학습 : 집단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 민주주의 연극제, 사회참여발표회 등 개최

- 기획강좌 :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한 강좌 개최
- 외부지원자를 통한 교육 : 자원봉사자를 통한 교육,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등
- 시민사회단체와 연한 교육 :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하여 교육활동 전개
- 사이버 교육 : 전시 학습과 연계하여 보다 자세한 학습자료 제공, 인터넷을 통한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학습의 장 제공
- 장애인, 고령층, 학교 밖 청소년,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시민주도의 커뮤니티 활성화 :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인천 민주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표 57〉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프로그램(안)	내용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기존 프로그램	추가 프로그램
청소년 민주주의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li> <li>• 청소년 민주주의 체험마당(민주로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인권·평등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li> <li>• 경제민주화교육</li> <li>• 소통, 환경, 지속가능성 등 보편적 미래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시민교육</li> <li>• 문화예술을 활용한 재미있는 문화교육 등</li> </ul>
시민교육 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대상 민주시민교육</li> <li>• 인천 시민대상 민주시민교육</li> </ul>
민주시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li> <li>• 민주시민교육활동가양성을 위한 역량강화강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문화교육활동 연계 민주시민교육</li> </ul>
교사 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민주주의 교육 연수</li> </ul>

## ■ 사료실 운영 프로그램<sup>35)</sup>

### ○ 사료실 운영 목적

- 사료는 전통적 의미에서 근거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기본 목적임.
- 사료는 정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연구·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이용자들에게 인천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사료수집 방안 및 계획

- 사료수집 기획단계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료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수집 사료의 시기적 범위와 자료의 범주 확정
- 사료 수집 대상 기관과 방법 모색
- 이전 연구 자료와 전시·출판물 등을 조사수집
- 인천민주화운동 관련 심화 연구를 위한 비교 분석 자료로써 국내외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
- 해외 각 나라의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사진, 사례 연구나 시설물 등을 조사수집
- 인천민주화운동 참여 인사들의 자료 확보

〈표 58〉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료수집 및 이용현황

※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2020.8.7.기준, 총 56,000여 건의 사료를 수집, 그 중 52,000여 건을 등록함.
- 원문 DB 구축: 11,000건
- 사진, 영상, 음성파일, 박물류 수집: 23,000여 건
- 구술사료: 37명, 62시간 채록
- 사료실 이용인원: 약 140명 (2013년~2020년)
- 홈페이지 연간 평균 방문자 수: 2018년 1,779명, 2019년 1,822명, 2020년 1,713명

35)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이은주 사무처장,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강덕우,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강옥엽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

○ 사료수집 유형

- 인천 민주화운동 인물 관련 기록

① 민주화운동 인물에 대한 정보

② 열사·희생자 유가족 구술기록

③ 시민 소장자료 및 당시 시민 구술기록

※구술 채록의 방법과 질문 내용은 공통사항과 특수사항으로 분리하여 진행

- 전시 및 교육홍보에 필요한 기초자료

① 그간의 발간물 및 연구 자료 전수 확보

② 관련 단체 소장 자료

③ 국내 신문 보도 및 사진 자료

④ 당시 외신 보도자료

⑤ 인천지역 대학의 신문 보도 및 사진 자료

⑥ 관내 도서관 및 박물관 소장 관련 자료

○ 운영 방향

- 사료실 업무는 ‘사료기획’, ‘보존관리’, ‘학술연구’ 3가지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업무를 분담

- 사료 선별 정리 작업을 선행하고 보존 처리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선별, 정리된 사료는 목록화 작업을 거쳐 ‘목록 자료집’을 제작

- 각종 자료 정보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 관리

- 기념공간 추진 주체와 운영 및 전문 분야와의 상호 영역 구분 필요

- 조사·연구 기능의 강화 필요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발굴과 교육, 전시 홍보 기능 강화

- 유관 학술단체와의 협력 방안 강구

- 오프라인과 연계한 ‘사이버 사료관’ 운영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강화

## ○ 사료실 협력 프로그램

〈표 59〉 사료실 연계 협력 프로그램 운영(안)

구분	협업 프로그램(안)
연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운동 연구 자료 지원</li> <li>- 지역 연구자에게 연구 자료 지원 및 공동연구</li> </ul>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운동 사료전시</li> <li>- 상설전시·기획전시·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li> <li>- 온라인 전시, 웹아카이브 구축</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운동 교육·연구 지원</li> <li>- 민주화운동사, 민주주의 관련 초, 중, 고, 대학 교재 발간 지원</li> <li>• 민주화운동 콘텐츠 개발 지원</li> <li>- 다양한 콘텐츠 개발 기초자료 지원</li> </ul>



## 제2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 및 조직구성(안)

### 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영역

####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 검토

##### ○ 인천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검토 기준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념사업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함.

〈표 60〉 인천민주화운동 관련 주요사업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3조 (기념사업)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요 사업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교육사업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료실 운영	유실되거나 산화되어가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사료를 보전하고, 산재해있는 민주화운동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등록하여 시민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	1. 자료전산화, 사료실 운영 2. 민주화운동가 토크쇼-내가 살아온 이야기
	2. 민주화운동기념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증진시킨 민주화운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여 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통해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 (4·19, 5·3, 5·18, 6월항쟁) 2. 인천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및 치유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4. 인천지역민주화운동 발생지 조형물설치사업 5. 민족민주노동열사 묘역장비 및 추모제
	3. 민주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배우고 시민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 시민의 민주주의의식과 역량을 강화	1.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2. 민주시민교육 3.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4. 청소년 민주주의 체험마당(민주로드) 5. 5·3시민합창단 6. 직원역량강화사업
	4.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민주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인천시민·청소년들에게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자부심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기념관 건립 추진	
	5. 웹진발간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소식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매월 온라인 잡지로 발간	

출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 (<https://idph.kr/>)를 바탕으로 작성

- 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조(적용 범위)에 따른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사업을 기준으로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인천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검토 결과

- 현재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료실 운영, 민주화운동기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민주역량강화, 웹진발간 5개 기념사업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로 볼 수 있음. 주요 기능과 사업은 자료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임.
- 향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이 조성되면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해야 함. 또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학술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천 5·3민주항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학술토론회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통해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및 운영해야 함.



[그림 16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업(웹 홍보물)

출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https://idph.kr/index.php>)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3조 (기념사업)					사업영역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교육사업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념사업	희생자 추모사업, 기념식, 연구사업 등			
					문화사업	공연, 전시, 등			
					교육사업	민주시민 교육, 학교 연계 교육 등			
					연구사업	관련 연구·조사·학술 등			
					사료실	자료 수집·정리·보존·열람 등			
					협력사업	지역사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협력 등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기념사업	전시·공연	교육	연구·조사	아카이브 (사료실)	협력사업	홍보	고객 서비스	예산·회계	시설관리
------	-------	----	-------	---------------	------	----	-----------	-------	------

기본기능								지원기능	
------	--	--	--	--	--	--	--	------	--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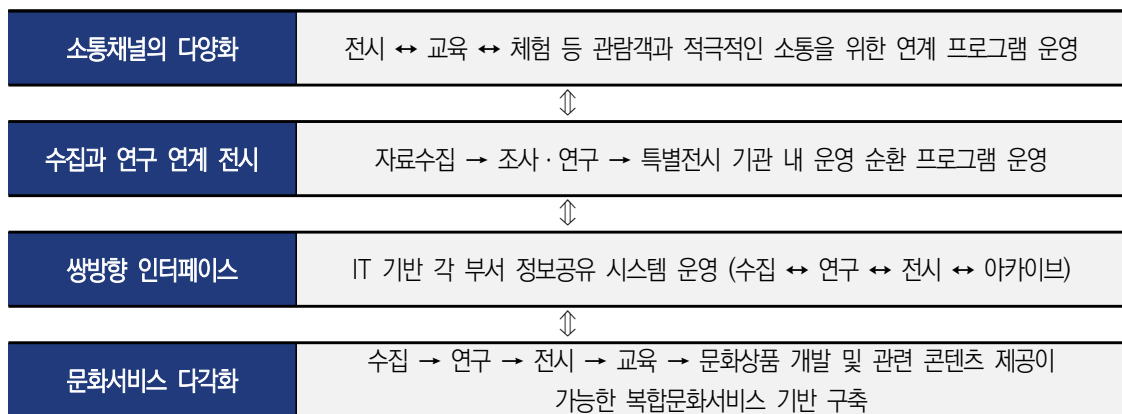
기념사업	전시·공연	교육	연구·조사	아카이브 (사료실)	협력사업	홍보	고객 서비스	예산·회계	시설관리
기본기능								지원기능	

[그림 16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영역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안)

### ■ 조직 설계 및 운영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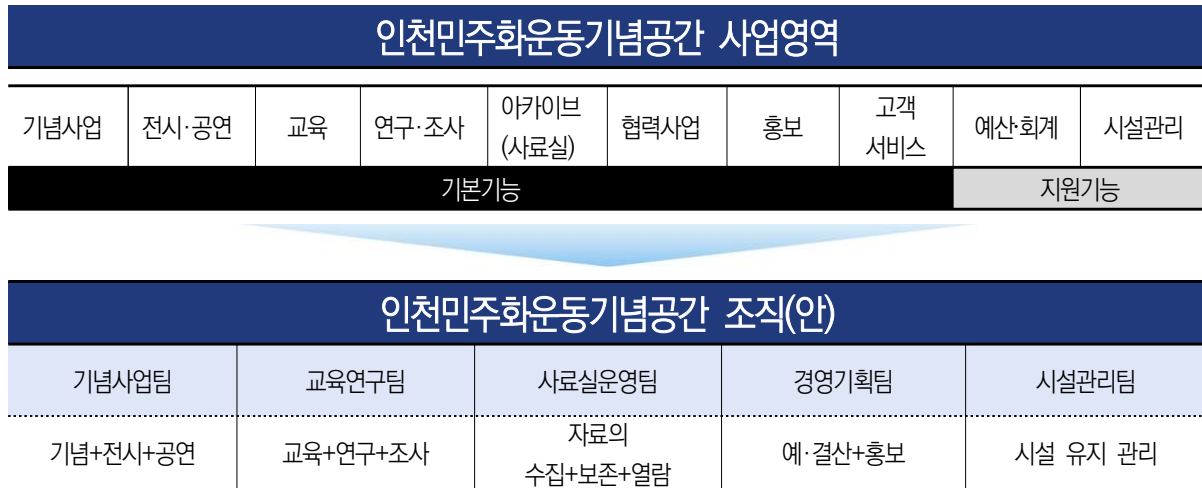
- 기념사업, 전시, 교육·체험, 조사·연구, 수집·보존 등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고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 공공성을 증시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 각 부서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유기적인 운영조직



[그림 16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 설계 및 운영 기본방향

###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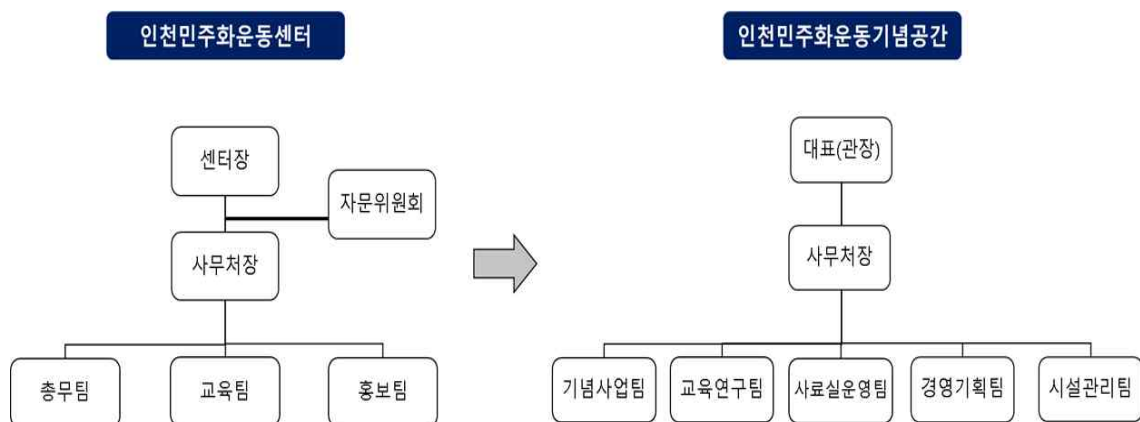
- ‘기념사업팀’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역열사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과 함께 전시·공연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담당. 인천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민주주의 가치 확산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기획 및 운영
- ‘교육연구팀’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교육팀의 업무와 인천5·3민주항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함. 또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재개발, 학술토론회, 지역연구자 연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 ‘자료실운영팀’은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열람 등 자료실 운영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애플리케이션 개발, QR코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소장품 관리 및 검색기능 서비스 등의 업무도 담당
- ‘경영기획팀’은 예·결산, 인사·노무 등 행정업무와 홍보, 안내, 대관, 자원봉사 운영, 고객 편의 제공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
- ‘시설관리팀’은 소방, 시설, 통신, 전기, 미화, 방호 등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그림 164]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서별 사업 및 조직(안)

##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 구성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조직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조직을 기반으로 확대 재편 가능
  - 현재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센터장(1명), 사무처장(1명), 총무팀(1명), 교육팀(1명), 홍보팀(1명) 3개팀 5명으로 구성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은 기념사업팀, 교육연구팀, 사료실운영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 총 5개 팀으로 구성 가능



[그림 16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 구성(안)

##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인력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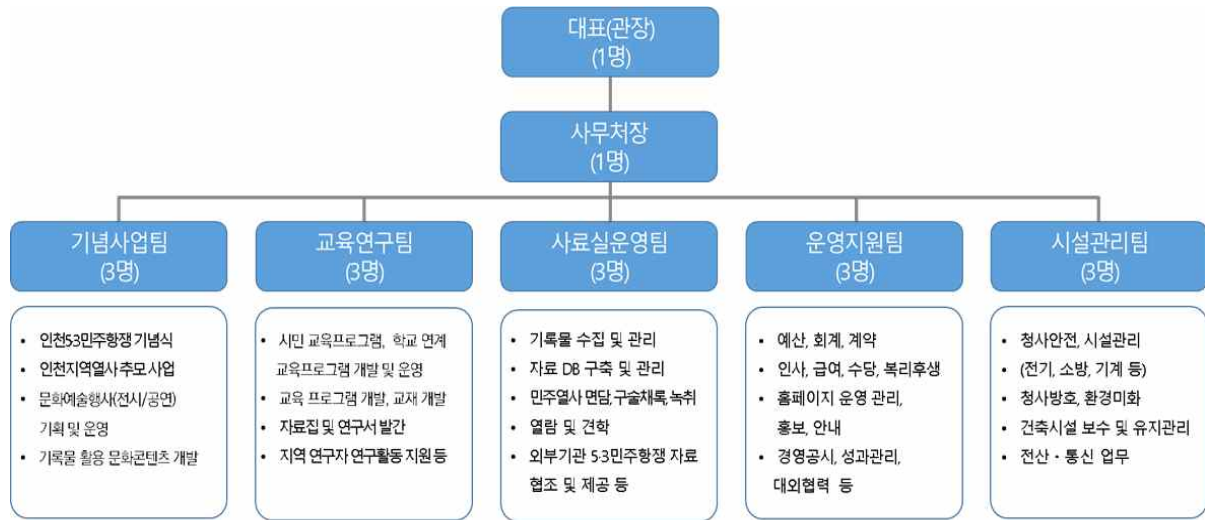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인력규모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업무와 인력규모 그리고 신규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산출함.
  -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
  - 기념공간의 사업을 고려하여 조직을 설계하고 각 사업영역에 따른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구성
  - 타 기념시설의 사업과 인력 구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설계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인력은 총 17명으로 산출
  - 관장: 1명
  - 사무처장: 1명
  - 직원 15명(기념사업팀 3명, 교육연구팀 3명, 사료실운영팀 3명, 경영기획팀 3명, 시설관리팀 3명)

〈표 61〉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인력구성 비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부서명	인원(명)	부서명	인원(명)	주요 업무
센터장	1	관장	1	총괄
사무처장	1	사무처장	1	업무총괄
총무팀	1	기념사업팀	3	전시, 공연, 기념사업 기획 및 운영 등
교육팀	1	교육연구팀	3	학술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홍보팀	1	사료실운영팀	3	사료 수집·보존·전산화·관리·열람 등
계	5	경영기획팀	3	예·결산, 인사·노무, 홍보, 안내 등
		시설관리팀	3	소방, 시설, 통신, 전기, 미화, 방호 등
		계	17	

〈표 6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및 타 기념시설 인력 현황

구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2·28민주운동기념회관		5·18기념문화센터 (기념관+기념공원)	
면적(㎡)	3,212.30		2,847.98		207,223.16	
직원 수(명)	17		15		28	
부서별 직원 수(명)	관장	1	관장	1	총괄	1
	사무처장	1	총무회계	3		
	기념사업팀	3	기획홍보	4	기획운영팀	16
	교육연구팀	3	도서관	2		
	사료실운영팀	3	2.28연구원	3	시설녹지관리팀	11
	경영기획팀	3	평생교육원	2		
	시설관리팀	3				
직원 1인당 면적(㎡)	188.96		189.87		7,400.83	



[그림 16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직도(안)



### 제3절. 운영방식 검토

#### 1. 공공 문화시설 관리방식

##### ■ 관련 개념

- 민영화(privatization) : 공공서비스의 소유·생산·공급 전체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
- 민간위탁(contracting-out) : 정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니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은 계약을 통해 개인·단체·기업 등 민간부문에 이전하는 것. 즉, 정부가 생산하던 것을 민간이 대신하고 그 생산비용을 정부가 생산자인 민간에게 직접 지불하며, 소비자인 주민은 세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방식
-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 : 협의의 의미는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 또는 기능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며, 광의의 의미는 민간위탁과 혼용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서 사용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시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을 구별하지 않고 있음.

##### ■ 정부의 관점에 따른 유형<sup>36)</sup>

- 이 분류유형은 정부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재원과 서비스 유형을 매트릭스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유형분류이며 다음의 4가지 형태가 존재함.
- 첫째, 직접공급형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서비스 생산도 정부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
  - 직속기관, 사업소, 책임운영기관 등의 방식
  - 장점 :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성을 구현
  - 단점 : 서비스 효율성이 낮음

36) 경기개발연구원(2006), 「도 건립·운영 문화기반시설 운영방안 연구-박물관 및 미술관을 중심으로」, pp.63~65.

- 둘째, 간접공급형은 조례에 의한 별도법인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
  - 지방공사·공단 등의 방식
  - 장점 : 전문기술과 우수한 인력의 용이한 확보, 경영의 자율성 보장, 서비스 효율성 제고
  - 단점 : 특정 분야(문화, 도서관 등)에 대한 전문성 저하 가능성
- 셋째, 합동공급형은 자금, 인력, 기술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는 제3섹터 방식
  - 재단법인, 제3섹터 등의 방식(예 : 전남 옥과미술관)
  - 장점 : 공공재원의 절감, 서비스 전문성 제고
  - 단점 : 책임성 상대적 미흡, 수요자 선호 대응성 미흡
- 넷째, 민간공급형은 공공재의 성격이 약한 분야를 민간부문에 완전 이양하는 방식
  - 민간업체, 민영화, 민자유치 등의 방식
  - 장점 : 공공재원의 절감, 서비스 효율성 제고, 전문성 및 수요자의 선호 대응성 높음
  - 단점 : 공공성 저하, 수요자 부담 증가

〈표 63〉 정부관점에 따른 유형

구분	직접공급형	간접공급형	합동공급형	민간공급형
방식	• 직속기관, 사업소, 책임 운영기관 등	• 지방공사·공단 등	• 재단법인, 제3섹터 등	• 민간업체, 민영화, 민자 유치 등
장점	•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성 구현	• 전문기술과 우수한 인력 의 용이한 확보 • 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공공재원의 절감, 서비스 전문성 제고	• 공공재원의 절감, 서비스 전문성 제고
단점	• 서비스 효율성 낮음	• 특정 분야(문화, 도서관 등)에 대한 전문성 저하 가능성	• 책임성 상대적 미흡, 수 요자 대응성 미흡	• 공공성 저하, 수요자 부 담 증가

## ■ 문화서비스 관리주체 따른 유형

- 직접관리방식 : 직속기관 또는 행정부서관리형, 사업소형
- 혼합관리방식 : 책임운영기관형
- 간접관리방식 : 공단·공사형·제3섹터, 민간위탁형
- 민간관리방식 : 민유·민영형

## 2. 공공 문화시설 운영방식별 장·단점

- 일반적인 문화시설 운영 조직 유형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직접공급과 위탁공급방식으로 구분하여 직접공급 : ①직영사업소 운영, 위탁공급 : ②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③재단법인 위탁운영 ④독립법인재단 설립 위탁운영 ⑤민간단체(사단법인)위탁운영 등 5개 운영방식을 검토함.

### ■ 직영사업소(개방형 직위제, 책임운영기관 포함)

- 운영형태
  - 조직위상 : 지자체 산하 사업소
  - 운영체계 : 공무원들로 조직 구성하여 운영, 필요에 따라 개방직 운영 가능
  - 추진절차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운영 부분을 개정하여 설립근거 마련
- 장점
  - 운영 초기에 필요한 재원을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하므로 안정적 조달이 가능.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됨.
  - 인력의 안정성이 높고, 공공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높음.
  - 시(市)의 성과관리 강화 체계에 따라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가 용이함.
  -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함.
- 단점
  -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 시(市) 사업소로서 각종 행정체계 및 통제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미흡,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미흡함.
  - 총액인건비 제도 등에 따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조직 신설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많고, 공무원 조직이기에 성과 유인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운영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경직성 경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비판이 큰 것이 단점임.
  - ‘개방형직위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관장을 공개모집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이나 지자체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정부조직에 따른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운영상 자율성이 없는 한계가 있음. 시설의 소유나 재원조달 등이 모두 설립 주체에 있으므로 ‘직영사업소관리방식’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함.

○ 인천사례

- 인천시 직속기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 인천시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1개
- 인천시 사업소: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등 23개

○ 타 시·도사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사·공단)

○ 운영형태

- 조직위상 :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 운영체계 : 지자체가 출자한 공공조직으로 재산권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만 위탁하는 방식(운영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 추진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운영

○ 장점

- ‘시설관리공단’이 타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정자립이 어려운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어 재원조달이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인력 포함) 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전문가 영입과 직원들의 열의에 의해 운영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음. 이사회 구성을 전문화하고 전문가들과 젊은 인력에 직원채용을 개방한다면 이 방식은 민영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단점

- 시설통합운영으로 기본경상비 등 운영경비절감을 기할 수 있으나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과 운영비교를 하는 경우에 문화시설은 비인기 시설 관리체가 되어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문화시설 운영의 문화적 특성이나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일반 공공시설 관리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 프로그램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음.
- 평가를 의식하여 지나치게 경영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즉 공익성을 강조할 경우 기업성이 악화되어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부족분은 조세로 충당해야 함.

- 반대로 기업성을 강조할 경우 공공성이 저해되어 지방공기업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 인천시 사례

- 인천시설공단: 인천어린이과학관, 노인종합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 등

### ■ 재단법인 위탁(인천문화재단 위탁)

#### ○ 운영형태

- 조직위상 : 재산권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전체, 개별 또는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전담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운영을 위탁.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로 재단법인은 조례와 계약에 의한 산하단체일 뿐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재정 부담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가 지는 채무는 공단·공사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
- 운영체계 : 공익 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운영체계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들을 선발하여 운영하며, 각 시설별 운영은 통합 운영 또는 시설별 자율운영 방식 선택 가능 계약에 의하되, 매년 예산을 승인하여 보조하고 이러한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여건에 따라 일정액의 정액 위탁보조도 가능.
- 추진절차 : 시(市)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

#### ○ 장점

- 전문인력 위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경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이 가능함. 즉 문화적 전문성과 자율성의 조화가 가능하며 안정적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 축적이 가능함.
- 독점적이고 공공적인 위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발전이 가능함. 재단법인도 공익법인으로서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익성 측면이 우수함.
- 전문인력의 안정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통합적인 운영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도 가능함.

#### ○ 단점

- 독점적 운영으로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효율성 및 책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조직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경우 조직의 경직성이 우려됨.

- 지자체의 재정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에 따른 기본적 경비가 소요되며, 이것은 초기 설립 및 정착 단계에서 보다 많은 전문 인력 양성과 별도 인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 또한 운영인력 등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인력으로 충원되는 경우 실질적 자율성 훼손이 우려되며, 순수 민간위탁에 비해 자율성이 약해짐.
- 인천문화재단과의 임금 및 지위 차이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인천문화재단 사업방향에 영향을 받아 독자적 기념사업계획 및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인천시 사례

-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칠동마당, 우리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등

### ■ 독립법인재단(설립) 위탁

#### ○ 운영형태

- 조직위상: 독립된 출자·출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함.
- 운영체계: 인천시로부터 예산(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함. 새로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즉 기념공간 위탁운영에 관한 업무 등 명확한 규정 필요.
- 추진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재단 설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타당성 기준을 통과해야 함.

#### ○ 장점

- 전문인력 위주로 문화시설 운영이 가능함
- 경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이 가능함.
- 전문인력 위주로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하며, 자원공유도 가능함.

#### ○ 단점

- 초기 재단설립 및 정착단계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됨.
- 정착 이후 독점적 위탁으로 인하여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 민간 개인 및 단체 위탁 운영(사단법인 등)

### ○ 운영형태

- 조직위상 :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체 문화기반시설 또는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외부의 단체 및 법인에 경쟁 위탁하며, 시설 운영업체는 지자체와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업체이며 재정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 성과관리 및 운영에 대해 행정적 차원의 통제 관리는 가능함(위탁 보조비에 대한 사후 정산과 감독).
- 운영체계 : 외부의 단체에 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정기간(예: 3년) 위탁하고 계약을 갱신(재입찰)하며, 각 시설의 운영방식은 해당 단체에 일임하고, 기본운영방식은 계약 시 평가에 포함. 위탁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위탁보조비를 지급하고, 부족한 수입은 해당 단체 및 법인에서 조달하여야 하며, 초과수입금도 해당단체에서 처리해야 함.
- 추진절차 : 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설치와 위탁운영조례를 통하여 시설 운영을 위탁 관리함.

### ○ 장점

-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음.
- 통합적인 운영 및 민간운영방식의 규모의 경제 및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위한 성과유인동기가 높고 성과지향적 관리도 가능함.
- 해당단체 및 법인의 전문성에 따라 조직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높으며, 행정절차상으로 추진이 가장 용이함.
- 공익성 측면이 우수하며 전문적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음. 재정적·조직적 안정성도 높은 편임.

### ○ 단점

- 시설의 공공성 및 상징성 훼손 우려가 있으며 시설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낮음.
- 수익성이 낮은 문화시설의 경우 정확한 민간위탁비용 산정이 어려워 비용부담이 가중되거나 역선택의 우려가 높음.
- 민간위탁 단체 및 법인은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선발하여 자율 운영하며, 위탁단체가 변경될 경우 계약 여부에 따라 일부 전문직 및 운영인력 등의 고용승계 기능하나 인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우수인력이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음.
- 민간위탁단체의 수익성 또는 비용절감의 유인동기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운영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민간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시설운영의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우며, 위탁비용에 대한 세금 납부와 위탁비용의 정확한 산정도 어려움. 또 위탁 기관 선정, 평가, 감독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항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경쟁시장의 미형성으로 현 단계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어려움.

○ 인천시 사례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운영 중

○ 타 시·도 사례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 중

### 3.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방식별 검토 결과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복합문화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 시설의 효율성, 재정의 안정성, 조직의 지속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 축적이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고려해야 함.
-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인력 포함) 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시설 운영의 문화적 특성이나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일반 공공 시설 관리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시설의 특성상 수익성을 강조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이 낮아져 추가비용은 조세로 충당해야 함.
- 기존 재단법인(인천문화재단 등)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전문인력 위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경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이 가능. 독점적이고 공공적인 위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발전이 가능하며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수익성 측면이 우수하고 재정의 안정성 조직의 지속성에 상대적 강점이 있음. 그러나 독점적 운영으로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효율성 및 책임성 저하가 우려되고, 조직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경우 조직의 경직성이 우려됨. 또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문화재단 사업방향에 영향을 받아 독자적 기념사업계획 및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독립법인재단 설립 위탁관리의 경우 전문성 확보와 재정과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관리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전문인력 위주의 운영이 가능하고, 경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이 가능함.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과 같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타당성 기준을 통과해야 함.
- 외부 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운영으로 장기적인 투자,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투자가 어렵고, 무엇보다 경쟁시장이 미형성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2020.8.25) 민간위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2019.2)
- 일반적으로 환경여건이 미숙하고 불투명한 여건에서는 리스크 요인(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로 도서관의 경우 운영활성화가 수익증대로 이어지지 않음. 따라서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제고와 핵심적인 기능의 유지 및 활성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표 64〉 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직영사업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 자원 조달, 공공성 확보용이</li> <li>지역문화시설이용률, 문화향유수준 높지 않을 경우 적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낮음</li> <li>전문인력 확보 어려움</li> </ul>
시설관리공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조달 용이, 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탄력적 인력 채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공공시설 관리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문화프로그램 수준 하락</li> <li>평가를 의식하면 경영성과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li> </ul>
기존 재단법인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 가능</li> <li>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공익성 측면 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점운영으로 효율성 및 책임성 저하 우려</li> <li>독자적 사업운영 어려움</li> </ul>
재단법인 설립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인력 위주로 운영 가능</li> <li>경영의 연속성, 업무 축적 가능</li> <li>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설립 및 정착단계 투입 비용 많음</li> <li>정착 이후 독점적 위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우려</li> </ul>
외부단체 (민간개인 및 단체) 완전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은 운영비용으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법인, 단체) 선정 가능</li> <li>전문인력 탄력적 채용 및 양질의 문화 서비스 제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낮고, 경쟁 시장이 미형성</li> <li>수익위주로 운영할 경우 공공성 훼손 우려</li> </ul>

출처: 인천발전연구원(2014),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연구」, p.35. 바탕으로 재작성

# 제7장

## 종합검토 및 제언

제1절. 종합검토

제2절. 정책제언



## 제1절. 종합검토

### 1. 재원확보 및 투자 계획

#### 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연간 예산(안)

○ 연간 예산 규모: 1,292,440,800원

- 타 기념시설의 연간 예산을 검토하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예산을 산출
- 다만 타 기념시설 별 사업범위와 예산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화시설 예산 항목별 비율 값을 참고하여 예산규모를 산출
- 문화시설 및 타 기념시설의 연간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평균 50%인 내외인 것을 고려하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예산 중 50%를 인건비로 산출하고, 이외에 사업비(35%)와 시설관리운영비(15%) 비율에 따라 예산 규모를 산출

〈표 6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연간 예산(안)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인건비	646,220,400	50	17명
사업비	452,354,280	35	기념사업, 전시, 공연, 교육, 사료실 운영 등
시설관리운영비	193,866,120	15	시설 유지 관리, 기타 운영비 등
계	1,292,440,800	100	

○ 인건비: 총 646,220,400원(제수당 제외 / 전체 예산의 50%)

- 인건비는 관장은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산출. 직원은 「지방직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 단, 제수당 제외
- 관장 1명: 월 4,754,100원, 연 57,049,200원(2020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4급 20호봉 기준)
- 직원 16명: 평균 월 3,068,600원, 연 36,823,200원(7급 15호봉 기준 / 사무처장, 행정, 학예, 교육, 시설 담당자 16명의 평균값)

○ 사업비: 총 452,354,280원(전체 예산의 35%)

- 기념사업·전시·공연 기획 및 운영, 학술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료실 운영 등

○ 시설관리운영비: 총 193,866,120원(전체 예산의 15%)

- 공과금, 경비, 미화 등을 포함한 시설 관리 유지 비용

〈표 6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인건비(안)

구분	인원(명)	월(원)	연봉(원)	비고
관장	1	4,754,100	57,049,200	관장 (2020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4급 20호봉 기준)
직원	16	3,068,600	589,171,200	사무처장 포함/1인 평균 36,823,200원(7급 15호봉 기준)
계	17	7,822,700	646,220,400	

\* 제수당 불포함 금액임

〈표 67〉 2020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건비

구분	금액(천원)	비고
급여(5명)	156,000	센터장(1명) 연 42,000,000원 / 사무처장(1명) 연 36,000,000원, / 교육기획실장(1명) 연 30,000,000원 / 총무팀장(1명) 연 25,200,000원 / 홍보팀(1명) 연 22,800,000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3,000	
명절휴가비	15,000	
사회보험부담금	14,320	
계	198,320	

출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내부자료(2020)

〈표 68〉 기념시설별 예산 현황

기관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5.18기념문화센터 (기념관+기념공원)		2.28민주운동기념회 관	
시설규모		3,212.30㎡		92.4㎡ (인천마추홀구문화콘텐츠 초산업지원센터 4층)		207,223.16㎡		2,847.98㎡	
조직 및 인력	총원(부서)	17명(5개팀)		5명(3개팀)		28명(2개팀)		15명(5개팀)	
	조직 및 팀원	관장	1	센터장	1	총괄	1	관장	1
		사무처장	1	사무처장	1	기획운영팀	16	총무회계	3
		기념사업팀	3	총무팀	1	시설녹지관리팀	11	기획홍보	4
		교육연구팀	3	교육팀	1			도서관	2
		사료실운영팀	3	홍보팀	1			2.28연구원	3
		경영기획팀	3					평생교육원	2
		시설관리팀	3						
예산	인건비	646,220,400(50%)		198,320,000(49%)		1,603,251,000(59%)		-	
	기본경비 (운영비)	-		55,210,000(14%)		32,908,000(1%)		753,000,000(31%)	
	시설관리 운영비	193,866,120(15%)		-		928,351,000(34%)		101,900,000(4%)	
	사업비	452,354,280(35%)		144,900,000(36%)		150,949,000(6%)		1,580,000,000(65%)	
	계	1,292,440,800(100%)		398,430,000(100%)		2,715,459,000(100%)		2,434,900,000(100%)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재원확보 방안

### ■ 국비 확보 방안

- 앞서 민주화운동기념관 사업을 추진한 서울, 부산, 마산 및 대구의 국비 지원 사례를 통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비의 국비 지원 방안을 모색함.
-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 국비 지원 사례
  - 서울 국립4·19민주묘지기념관은 리모델링 사업비 1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고,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운영비로 3억원을 국비 지원을 받음.
  - 부산민주공원 내 기념관(부산민주항쟁기념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기간 국비 80억원 지원 받음.
  - 그 외 광주 5·18기념공원, 광주 5·18자유공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대구 2·28 기념공원도 각각 국비 지원
  - 대구 2·28 민주화운동기념회관은 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으로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 확보,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을 위해 국비 80억원 확보(2013 개관)
  - 국비 지원을 받은 사례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상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표 69〉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현황

지역	기념시설	사업비	추진주체
서울	국립4·19민주묘지기념관	리모델링 14억원	국가보훈처
	4·19혁명기념도서관	90억원 (3억원 운영비 국비 지원)	4·19혁명회, 4·19희생자유족회
부산	부산민주공원 내 기념관	160억원 (국비 80억, 시비 80억)	부산민주공원조성시민추진위원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마산	국립3·15 민주묘지 3·15기념관	133억원	마산시→국가보훈처관리 이관
	3·15 아트센터	640억원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162억원	
	5·18 교육관	50억원	
	5·18기념공원	728억원 (국비 420억, 시비 146억, 기념문화관: 국비 162)	광주시
	5·18자유공원	128억원 (국비 120억, 시비 8억)	광주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250억원 (국비 80억, 시비 170억)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123.8억원 (건축비 86억)	광주시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168.5억원 (국비 88.5억, 시비 80억)	대구시,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기념회관	100억원 (국비 80억, 시비 20억)	

출처: 이정주(2010),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 기본계획」, 대구경북연구원.

##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 국비 확보 방안

###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 관련 국비 지원

- 국가보훈처는 2020년도 주요 추진 업무로 국민참여형 10주기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주) '기억·기념, 참여·화합, 미래·희망' 주제로 추진
- (기억·기념) 민주운동 자료·사진전, 기념물 건립
- (참여·화합) 4·19국민문화제, 5·18문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 (미래·희망) 희망모색 학술회의 등 124개 사업
- (기념시설) 국민이 즐겨 찾고, 독립·호국·민주 정신을 기리는 장으로 조성
- 기념사업 주요 사업 중 '민주운동 자료·사진전, 기념물 건립'과 '국민이 즐겨 찾고, 독립·호국·민주 정신을 기리는 장으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국비 지원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으로 인한 지원 근거 마련

- 국비 지원을 받은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례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개정 통한 근거 마련 필요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인천민주화운동이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

### ○ 행정안전부 국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환원, 민주인권기념관 설계 및 공사 추진(2022년 개관 예정),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및 치유사업 실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10.16) 지정 및 40주년 기념식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가 민주화운동기념관 및 관련 사업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관련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모시설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경기도 이천시 소재)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인천민주화운동이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으면 보다 용이하게 지원받을 것으로 판단됨.

## ■ 민간 지원 방안

### ○ 민간기업 후원금 방식의 재정 조달 방안

- 인천민주화운동이 초기 노동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인천민주화운동 역사와 유사한 ‘울산 노동역사관1987’ 경우 지역 내 민간기업으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울산노동역사관1987’의 경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를 주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울산 북구 소재 비정규직센터(현대자동차 노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채납 한오도밸리 복지센터 4층) 공간에 소규모 노동역사관으로 출발함. 이후 울산 북구청의 협조로 노동역사관 건립비가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고, 울산북구의회에서 울산노동역사관 운영 조례 통과, 민주노동출산지역본부 위탁관리 등의 과정을 거쳐 조성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도 ‘울산노동역사관1987’ 사례와 같이 사업비 일부를 지역내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후원금 방식으로 지원받는 방안 고려 가능.

### ○ 시민들의 후원금 및 회비 방식의 재정 조달 방안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이 지역 내 역동적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주체 또는 지지 세력이 확고하게 형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함.
- 민주화운동기념관 재정운영의 성공사례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언급할 수 있음.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 월회비를 납부하는 1만 2천명의 회원이 연구소 재정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식민지역사박물관은 개관 2년이 된 지금 월 회비 납부자가 6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시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도 지역 내 역동적인 민주화운동 실천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 또는 회비 유형의 재정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시비 자체 재정 확보 방안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은 민선 7기 인천시장 공약사업이 아닌 2020년 민간협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
-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의 초기 단계로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 사업(예산 4억2천5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2019년-2023년)에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에 제시된 투자가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투자재원으로서 경상적 세입총액에서 필수적인 세출경비를 제외한 투자재원을 의미함.

- 투자가용재원은 2019년-2023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하는 반면, 경상지출은 동기간 중 연평균 2.7%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비 재정 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상에 제시된 사업수요가 투자가용재원을 초과하고 있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또는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표 70〉 인천시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2019	2020	2021	2022	2023
①세입	10,629,730	10,912,064	11,357,043	11,908,015	12,384,475
지방세수입	3,777,425	3,866,638	3,959,134	4,055,079	4,154,645
세외수입	1,486,855	1,521,379	1,600,799	1,673,722	1,717,836
경상적세외수입	845,158	892,992	907,748	1,015,659	990,048
임시적세외수입	641,696	628,387	693,051	658,063	727,788
이전재원	3,350,827	3,536,425	3,728,639	4,033,573	4,255,334
보통교부세	596,127	620,202	667,089	717,521	771,766
특별교부세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18,000	19,098	20,263	21,499	22,81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국고보조금	2,371,933	2,515,240	2,633,511	2,858,778	3,004,576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2,034	241,237	257,852	275,915	290,679
기금	132,733	140,648	149,924	159,860	165,504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14,623	1,987,623	2,068,471	2,145,641	2,256,660
②경상지출	2,686,012	2,606,095	2,484,414	2,714,943	2,984,646
행정운영경비	637,005	663,525	686,986	705,324	727,864
인력운영비	598,156	624,079	647,578	668,553	691,182
기본경비	38,849	39,446	39,409	36,771	36,682
재무활동	1,621,171	1,731,695	1,609,445	1,698,890	1,918,892
내부거래지출	928,624	958,041	935,555	1,052,171	1,237,055
보전지출	692,547	773,654	673,891	646,719	681,837
예비비	427,836	210,876	187,983	310,729	337,89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7,943,717	8,305,969	8,872,629	9,193,072	9,399,830
④사업수요	8,091,751	8,432,003	9,014,963	9,335,406	9,542,164
⑤부족재원(④-③)	148,034	126,034	142,334	142,334	142,334
지방채	148,034	126,034	138,315	135,234	135,490
(채무부담)	0	0	0	0	0
(민자)	2,015	52,046	2,417	618	439
(기타)	1,232,613	990,068	965,237	950,544	156,704
재정규모(①+⑤)	10,777,764	11,038,098	11,499,377	12,050,349	12,526,809

###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고려한 공사비 규모 산정

- 정부는 자치단체 중기계획과 사업별 재정투자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제도를 시행 중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는 사업 유형별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 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 자체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자심사 기준으로는 중장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자원조달 및 상환능력, 경제적 수익성(B/C분석),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 사업요구도,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임.
- 투자심사 기준 중 경제적 수익성 심사에서 대부분의 지방재정사업이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사업의 경우 다른 심사기준은 충족할 수 있으나, 경제적 수익성이 기준에 상당히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심사가 아닌 시자체심사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시자체심사 기준인 공사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에는 지방재정 투자사업비가 시·도는 300억원 이상, 시·군·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 자체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한 투자심사 대상 및 심사기관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71〉 투자심사 대상 및 심사기관 기준

구분	군·구		시	
	전액 자체재원	이전재원 포함	전액 자체재원	이전 재원 포함
자체 심사	20억이상(지방채 제외)	20~60억 일반투자사업	40억이상(지방채 제외)	40~300억 일반투자사업
	① 3~5억 홍보관 ② 1~3억 행사 ③ 5~10억 외국차관도입, 해외투자사업		① 5~30억 홍보관 ② 3~30억 행사	
의뢰 심사	시	20억이상 청사, 문화체육시설 (단, 이전재원 포함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	-	-
		60~200억 일반투자사업		
	중앙	-	40억 이상 청사, 문화체육시설 (이전재원 포함도 동일)	300억 이상 일반투자사업
		200억 이상 일반투자사업	① 30억 이상 행사, 홍보관 ② 10억 이상 외국차관도입, 해외투자사업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건립절차

### ■ 신축 건립 절차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건립 시 신축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

〈표 72〉 신축 건립 절차

진행단계		추진내용	상세 조차사항 참고
사전 단계 1~2년	수요 파악	정책 결정	○ 관련 자원 확보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	↓ 기본구상 마련	○ 건립규모, 총사업비·입지 등
	기본 구상	상세계획 수립	○ 설립 사전행정절차 이행 - 도시계획 등 타 법령 및 계획 등과 중복 여부 검토 - 부지확보, 각종 영향 평가, 설립 타당성 용역, 용역 확보 및 활용계획,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실행 계획	설립 협의 (정부 관계 부처)	○ 건립 추진 여부, 중복성 검토 등
	협의	사전 협의	○ 정부 관료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등) - 지자체 대상 사전평가 인내문 발송 및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서면 및 현장실사, 최종평가 - 결과통보(정부 관련 부처→지자체) - 지역발전특별예산 지원 대상 추천(기재부, 행안부) ○ 지자체 - 사전평가 신청(→정부 관련 부처) - 결과에 따라 예산서 작성, 제출 또는 자체사업실시
사전 단계 1~2년	사전 평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예산 요구 심사 지원	국비지원 예산확보 및 심사 (기재부 등) ↓ 국비지원 국비지원 지방비 확보 자체사업 투자심사 시도의회 자체심사 등 ↓ 지방비 확보	○ 타당성 조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 총 공사비 500억 이상 ○ 지방재정 투자 심사(지방재정법 제 37조) - 중앙의회 심사, 시·도 의회심사, 자체심사 ○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 38조) -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건립 단계 3~4년	예산 요구 심사	국비지원 예산확보 및 심사 (기재부 등)	○ 국비지원 사업 - 정부 관계부처(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지자체(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비 확보) ○ 지자체 자체사업 : 지방비 확보
	예산 지원 대상	국비지원 예산확보 및 심사 (기재부 등)	○ 타당성 조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 총 공사비 500억 이상 ○ 지방재정 투자 심사(지방재정법 제 37조) - 중앙의회 심사, 시·도 의회심사, 자체심사 ○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 38조) -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건립 단계 3~4년	건립 개관 등록	기본계획 실행	○ 현상설계공모, 시공 및 관리, 계약, 준공, 전시실 조성 등
	개관	↓ 개관 및 등록	○ 개관 및 등록 등
운영 단계 (개관 이후)	건립 후 운영 및 관리	경기 보고 실태 조사(평가 인증)	○ 지자체 - 운영현황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정기보고 - 사업 종료시 정산보고서 등 제출(국비지원사업에 한함) ※ 박물관으로 등록된 경우 - 주기적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출처: 이룸경영연구소(2020),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내부자료, p.28

## 리모델링 건립절차

- 시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

〈표 73〉 리모델링 추진일정

절차	내용	기간
조사 및 진단 Survey & Evaluation	육안관찰 및 기록→유지보수관리기록 및 부문별 내구연한 조사→기능 및 용도의 적합성 검토→건물의 물리적 결함 및 노후화 정도 검토 →이용자 및 건물주의 의견수렴→시험 및 측정자료검토→공사범위의 판단	1개월
	도서검토 및 현지조사	
	기존 건물 현황조사	
	기존도서 검토	
	법규검토	
	구조진단 및 분야별 진단	
계획 Planning	문제점 평가 분석	1개월
	노후화 진단	
	분야별 성능진단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설정	
	개·보수 계획 및 대안 설정	
설계 Design & Engineering	공사범위 확정	4개월
	리모델링 유형 설정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성능개선을 고려한 계획안 수립	
	개략공사비 산정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 검토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에 표현	
	설계와 시공에 관련되는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설계 내용을 작성	
시공 Construction	신축설계에 비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	12개월
	기존건물에 대한 활용·철거 등을 고려	
	1) 리모델링 개념 확정	
	2) 철거범위 확정	
	3) 기존의 구조 시스템 분석과 보강부위 선정·설계	
	4) 건축 시스템 결정	
유지 및 관리 Operation & Management	5) 인테리어 디자인 결정 (마감재와 장비의 선택)	개관 이후
	6) 세부적인 조화 및 적응성 판단	
	7) 견적 및 공정 검토 (공사예산 고려)	
	8) 기존 설비 시스템의 활용과 교체를 고려한 엔지니어링	
	9) 도면작성	
	10) 요구안의 적합성 검토	
유지 및 관리 Operation & Management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표현된 각종 내용을 실제로 현실화	개관 이후
	시공 전에 공사 중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판단하여 충분한 대책수립	
	원활한 시공을 위해 공사 종합관리, 인테리어 시공, 공조·냉난방 시설 시공, 설비시공, 건물자동화 시스템, 소방 시스템 시공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시행	
	내·외장 공사	
유지 및 관리 Operation & Management	설비 공사	개관 이후
	구조보강 공사 (내진공사)	

출처: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pp.81-82



## ■ 문화시설(박물관 등) 건립 사전 절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이 박물관으로 건립될 경우 다음표와 같은 절차를 따름.

〈표 74〉 박물관 건립 시 사전 점검사항

구 분	점검 내용	비 고
사전 절차적 요건	•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여부 (해당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 포함)	증빙자료
	• 부지확보 여부 (부지매입률 %, 부지확보계획)	증빙자료
	• 필요시 재정투자심사 여부 (연내 완료 가능성)	증빙자료
	•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및 영향평가 여부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조사,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증빙자료
	• 의회 보고 증빙자료	증빙자료
	• 지자체 보고	증빙자료
	• 주민의견 수렴절차	증빙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증빙자료
박물관 구성 등 요건	• 지역중장기계획(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포함 여부 증빙자료	증빙자료
	• 중복, 유사시설 유무 증빙자료	증빙자료
	• 시설 건립규모의 적정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시설 - 인구대비 - 타 지자체 대비 증빙자료	증빙자료
	• 박물관 자료 확보내역 (확보방안 및 계획) - 내용, 수량, 목록, 수집계획, 전시 및 운영계획, 예산 • 박물관 운영계획수립여부 - 조직, 인력, 운영방안, 예산 등 증빙자료	증빙자료
	• 사업집행가능성 (지방비 확보가능성 등) 증빙자료	증빙자료
	• 지자체의 보고의무, 업무협조 실적 점검	점검
	• 운영·유지비 확보방안 (해당 지자체의 문화예산 추이, 추진의지 등) 증빙자료	증빙자료

출처: 이룸경영연구소(2020),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내부자료, p.29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등의 선정)</p>	<p>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p> <p>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p> <p>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lt;개정 2020. 1. 7.&gt;</p> <p>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lt;신설 2018. 12. 11.&gt;</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등의 선정)</p>	<p>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lt;개정 2018. 1. 18., 2020. 3. 18.&gt;</p>

	<p>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p> <p>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p> <p>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p> <p>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p> <p>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9. 2. 25.&gt;</p> <p>1. 대상용역</p> <p>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p> <p>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p> <p>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p> <p>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p> <p>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p> <p>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p> <p>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p> <p>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20. 3. 18.&gt;</p> <p>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p>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설계공모 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지하철	13	16	17	24	27	30
공항	12	13	16	12	13	15
하천	12	18	24	7	10	12
항만	12	13	14	10	11	12
댐	13	14	15	14	15	16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b>건축</b>	<b>4.5</b>	<b>7</b>	<b>9.5</b>	<b>7</b>	<b>7.5</b>	<b>8</b>
단지조성	4	-	-	7	-	-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pm 10\%$ 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2. 25.>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50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의 전차(前次) 용역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인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pm 20\%$ 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가방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2.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역량		70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방법	1) 수행계획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 수행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9조제2호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역량		30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방법 및 기술향상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방법	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수행방법,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향상	15	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 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5호] (2020. 1.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영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설계공모 평가(이하 "설계공모 등의 평가"라 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과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일반공개공모"라 함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p>4. "제한공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p> <p>5. "지명초청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p> <p>6.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7.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청 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기술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p> <p>8.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p> <p>9.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p> <p>10.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p> <p>11.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지형·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p> <p>12. "용역감독자"라 함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을 발주한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p> <p>13. "용역사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14. "설계VE"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p> <p>15.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p> <p>1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p> <p>17. "건설사업비용"이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p> <p>18. "수정설계"란 설계VE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설계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 본다.)</p> <p>19. "제안공법"이란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한 결과로 제안한 공법을 말한다.</p> <p>20. 삭제</p>
제2장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공모 방식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p>② 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p>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p>① 발주청 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p> <p>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p> <p>나. 응모자격</p> <p>다.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p> <p>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p> <p>마.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p> <p>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p> <p>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p> <p>아. 규칙 제29조[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배점기준</p> <p>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p> <p>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p> <p>카.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시행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제6조(설계공모의 일정)	<p>① 발주청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설계공모 등의 평가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p>
제7조(등록)	<p>① 설계자 등은 발주청 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 발주청 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11조에 의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를 포함한다) 관계 등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가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하고, 다른 심의위원을 재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p>
제8조(설계지침서)	<p>발주청 등은 제7조제2항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공모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제9조(질의응답)	<p>①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청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p> <p>② 발주청 등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제10조(제출도서 등)	<p>① 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p>②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발주청 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p>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p>



	<p>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p> <p>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p> <p>3.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p> <p>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p> <p>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p> <p>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청 또는 전문기관 등이 인정한 자</p>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p>① 발주청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심사위원회는 발주청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p>
제13조(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p>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발주청 등이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②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 제3항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발주청 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발주청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제14조(설계평가 전문기관의 특례)	<p>① 영 제5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발주청 등에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청 등은 제1항에 의한 공모안 등의 평가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의 시행공고 내용과 설계지침서의 부합여부</p> <p>나. 공모안이 중대한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p> <p>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적정성 여부</p> <p>라. 기타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p> <p>③ 설계공모안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 등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당해 발주청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제15조(심사)	<p>①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p> <p>② 심사의 과정 및 결과(제5조제1항 아목에 의한 전문분야별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 점</p>

	<p>수와 평가서 등 모두를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p> <p>③ 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발주청 등과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p> <p>⑤ 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심의의 경우 발주청에서 필요시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심사위원등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한다.</p>
제16조 (입상작)	<p>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p> <p>② 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p> <p>③ 발주청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⑤ 발주청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제17조 (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공모안의 전시)	발주청 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모안의 반환)	발주청 등은 제5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 (세부기준)	발주청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2절. 정책제언

### 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부지 선정 필요

#### ■ 적합 부지 선정 필요

- 인천광역시 소유의 토지 29,871곳, 건물 903곳 중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부지 선정기준(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주변연계활용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검토함. 최종 후보지로 총 10곳(토지+건물 1곳, 건물 2곳, 토지 7곳)을 선정함.

〈표 75〉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연번	부지	면적	유형
1	옛시민회관쉼터 ('툼'문화창작지대 포함)	3,245.30㎡ (981평)	토지+건물
2	공무원연금인천지구매장	1,429㎡ (432평)	건물
3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 및 제9지구)	14,140㎡ (4,284평)	토지
4	인하대 옆 공터 (SK스카이뷰아파트 맞은편)	3,072㎡ (929평)	토지
5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3,072㎡ (929평)	토지
6	비룡쉼터 (인천보훈병원 뒤)	3,195.7㎡ (966평)	토지
7	(구)구월농산물도매시장	26,284.2㎡ (7,950평)	토지
8	부평공원 (미군부대 애스컴, 부평 캠프마켓 맞은편)	113,123㎡ (34,219평)	토지
9	월미공원	4,855.1㎡ (1,468평)	토지
10	북부근로자복지회관 (민주노총인천본부)	1,886.88㎡ (570평)	건물

- 후보지 10곳에 대해 진행한 세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옛시민회관쉼터('툼' 문화창작지대 포함)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해당 부지는 '2021년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국비보조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이 불가능함.

〈표 7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관련 1-3차 설문조사 종합결과

조사 차수		1차	2차	3차
조사 기간		2020.08.03.~2020.08.06 (4일간)	2020.08.14.~2020.08.23 (10일간)	2020.08.24.~2020.08.27 (4일간)
응답자		건립추진위원회 참여 시민단체 대표	건립추진위원회 참여 시민단체 회원	인천시 ON-LINE협치위원단
응답 인원		42명	170명	567명
응답 결과	1순위	옛민화관습터 (‘툼 문화창작지대 포함)	옛민화관습터 (‘툼 문화창작지대 포함)	옛민화관습터 (‘툼 문화창작지대 포함)
	2순위	부평공원	부평공원	부평공원
	3순위	인천 터미널 근처 공원	인천 터미널 근처 공원	인하대 옆 공터

- 후보지 관리 부서의 행정 검토에 따르면 후보지 10곳 모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에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됨.
- 본 연구에서 산출한 건축 규모인 3,121.3㎡(약 944평)를 확보할 수 있는 적합 부지를 시유지 내에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향후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가능 장소 및 유치 희망여부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미검토한 부평 캠프마켓(부평 미군부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위치)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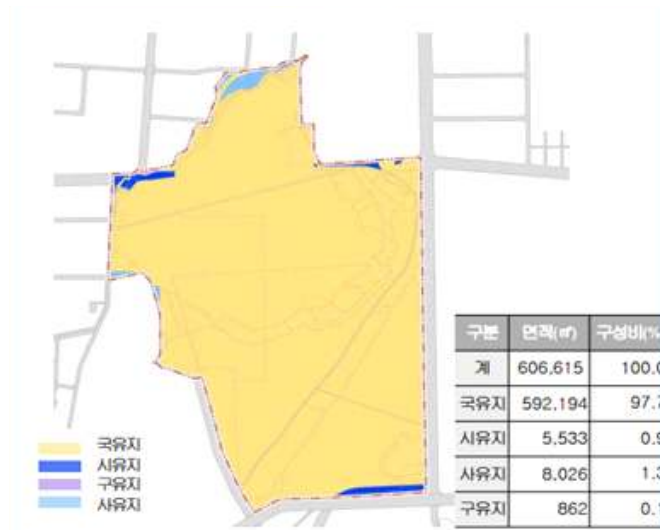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14조**

1.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 부평 캠프마켓은 국유지 97.7%, 사유지 0.9%, 구유지 0.1%, 사유지 1.3%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67] 부평 캠프마켓 소유자 현황

출처: 인천광역시(2020),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 내부자료

-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현황(지구단위계획 수립,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9-67호)에 따르면 부평 캠프마켓에 ‘공원 및 공공시설 설치’가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음.



[그림 168] 부평 캠프마켓 도시관리계획 현황

출처: 인천광역시(2020),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 내부자료

##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운영 원칙

### ■ 운영 기본원칙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은 운영 기본원칙: 공공성, 개방성, 다양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6)에는 사회·정책 환경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여가 문화수요 증가, 고령사회 가속화, 문화 분권 등으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수요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공간’과 ‘방문’을 전제로 하는 기존 박물관·미술관의 미래사회 역할과 기능 재탐색 필요

#### □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18년)

※ 현장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향후 5년간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정책 방향: ‘문화향유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친밀도 증진’ 2순위(35%)
- ‘국립 박물관·미술관 향후 5년간 정책 방향: ‘교육 및 소통기능 강화’ 1순위(36%),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강화’ 3순위(22%)
- ‘공립 박물관·미술관 향후 5년간 정책 방향: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서비스 기능 강화’ 1순위(38%)

### ■ 모두가 누리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 (공공성)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으로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로서, 균등한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 보장 필요
  -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여가 문화수요 증가, 고령사회 가속화, 문화 분권 등으로 지역의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서비스 수요 확대
  - 생애주기별(어린이-청소년-청년-장년-노인) 프로그램 운영
- (개방성)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공간
  -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밀착형 사회 기반시설(SOC)’의 중요성 부각(정부, 문화·체육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SOC 사업 증대)
  - 최근 15년간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국으로 확대

- (다양성)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 및 다양한 콘텐츠 기반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배리어프리(무장애공간) 지향
  - 사·청각 장애인, 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전시이용 부가서비스 강화
  - 기존의 강연 및 전시 중심의 정치교육을 탈피하여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의 거점공간화

## ■ 이용자 맞춤형 관람환경 조성

- 장애인, 고령층, 학교 밖 청소년,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심화, 지속 운영
  - 장애인 대상 상설·정기 전시,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사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Touching the Prado> 전시

· 미술관의 대표작품 6개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손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점자로 된 전시텍스트, 오디오 가이드 등 제공함.



- 디지털 원격 교육을 확대하여 박물관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병원, 도서·산간 지역 학교 등에 문화유산 교육·체험 기회 제공(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은 생방송 중!> 디지털 원격수업 시범 운영('18.11월))
-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프로그램 개발
  - 관람객 맞춤형 전시,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관람객의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
  - 전통적인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관람객들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프로그램 개발
  - 이를 통해 고도화된 고객관리를 바탕으로 콘텐츠별, 시기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잠재적 수요층 발굴·확대 가능



〈표 77〉 국외기관의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구분	내용
영국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전시앱 등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관람객의 동선, 관람 패턴 등 분석(관람객 사전 동의,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
미국 쿠퍼 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관람 중 인상 깊은 작품을 배포된 펜을 활용해 박물관의 태블릿에 가져다 대면, 향후 웹사이트에서 해당 수집목록 확인 가능
미국 달라스미술관 ‘프렌즈 프로그램’	특정 목표 달성 시 제공하는 디지털 배지를 일정 규모 이상 모으면 기념품과 같은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관객의 반복적 방문 유도 최초 가입 시 최소 필요한 정보만 수집, 이후 관람객이 미술관에 신뢰 형성 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정보수집의 거부감 최소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p.20

## ■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 연구·출판 활동은 자료의 수집, 전시, 교육, 보존 기능의 기초적인 토대임
  - 연구출판 활동을 통한 홍보 활성화, 담론 주도 등 중요 역할 수행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공공이용 활성화
-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통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적용 및 ‘e-뮤지엄’ 사이트와 연계(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유물 수 230만여 건, 388만여 점(’19.5월 기준), e-뮤지엄 사이트를 통해 전국 박물관 소장품 95만여 건 공개 중(’19.5월 기준))
- 어플리케이션 개발, QR코드 등 IT 기술 활용 소장품 관리 및 검색기능 강화

##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전국 민주화운동기념관 협력 연계 강화’
  - 전국 민주화운동 기념시설 및 관계 기관 간 상호 협력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민주화운동 포럼’ 등 회의체 구성·운영
- 지역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 구성 지원
  -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인천 민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 한정적 재원과 인력, 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 문화거점시설로서 기능수행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기념공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초연결 지능화 시대’ 진입 이에 따른 관람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맵핑 등 각종 실감형 콘텐츠 기술 발달
  - 디지털문명 가속화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환경, 소장품 관리와 공개, 아카이빙, 고객관리, 이용객과의 상호작용 등에 있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 주요 해외 박물관·미술관들은 디지털 전시실 구축,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소장품 디지털화·공개 등 관람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

\* 대영박물관 : 시대별·지역별·주제별 소장품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 ‘Museum of the World’ 개설(‘15년), 박물관 내부 가상투어 디지털콘텐츠 제공  
 \* 영국 자연사박물관 : 소장품 3D 디지털화, 공개, 디지털화된 표본을 통한 각종 연구  
 \* 중국 고궁박물관 : AI, VR, 음성식별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 전시 개최

- 언제 어디서나 개인기기,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온라인 서비스 강화 필요
  - 정부는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20선 개발(‘19년 신규 100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개인 기기, 누리집 등 구현 가능한 범용 콘텐츠로 확장 추진
  - 국립중앙박물관은 종료된 특별전시를 감상하는 온라인 VR서비스 제공(‘18~)
  - 국립현대미술관은 비콘(근거리통신기술) 기반의 ‘가이드 투어’ 및 ‘작품안내 서비스’ 제공(‘18.4월~), 국립중앙박물관은 AI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 시범운영(‘18.12월~)
  - 사물인터넷(IoT) 활용 전시안내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한 전시안내서비스 구축 필요

##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기념공간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지원 방안 중 박물관·미술관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관계부처 합동(2020.9),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p.15
  -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미디어 전시콘텐츠 강화 방안 제시
  - 4-2. 일상적 위기 속, 예술의 사회적 기여 및 향유 증진
    - 국립문화시설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제공 확대

**(박물관·미술관)**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 전시·해설 및 소장품 온라인 공개 강화('20년 30억원)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장애인, 노년층, 원거리 학생, 해외동포 등), 외국인을 위한 원격교육 스튜디오 구축, 실시간 원격 콘텐츠 개발·제공

\*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전년 동기 대비 '20년 1월~6월 온라인 콘텐츠(동영상·VR) 제작건수(163건→522건) 및 방문자수(115만명→186만명) 증가

# 참고문헌





## ○ 문헌자료

### <연구·보고서>

- 경기개발연구원(2006). 「도 건립·운영 문화기반시설 운영방안 연구-박물관 및 미술관을 중심으로」.
- 광주광역시(2020). 「2020 세입세출예산서」.
- 김현진(2013).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대구광역시(2020). 「2020 세입세출예산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 부산광역시(2020). 「2020 세입세출예산서」.
- 서울대학교(2019).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
- 서울대학교(2020).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이룸경영연구소(2020).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내부 자료.
- 이정주(2010).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 기본계획」. 대구경북연구원.
- 이정현(2007). 「일본 평화(원폭)자료관 건립사례와 시사점」. 부산발전포럼.
- 인천광역시(2020).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

### <단행본 및 논문>

- 권지혁·태지호(2017). “의미와 지각을 통해 살펴본 지역 박물관의 전시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연구”, 『지역문화』.
- 김남시(2014).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영미문학연구회.
- 김희근·여영호(2019).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4(2), 통권56호.
- 보니타 M. 콜브. 이보아 역(2007).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 김영사.
- 이상석(2001).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디테일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9(5), 통권88호.
- 이정은(2013).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사회변화 전략과 창조성”. 『박물관학보』 24.
- 정수화·김봉채·이병민(2019). “도시이미지의 구축에서 공감의 문제: 일본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6(2).

- 최승수(2019). “홀로코스트 뮤지엄의 정체성과 전시콘텐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2019 춘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
- 태지호·권지혁(2017). “뉴미디어를 활용한 지역박물관의 전시콘텐츠 구성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
- 테오도어 아도르노, 박소현 역(2002). 『전시의 담론: 발레리 프루스트 미술관』 . 눈빛.
- Smith, L.(2016). 「Changing views? Emotional intelligence, registers of engagement and the museum visit. Museums as Site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Perspectives on Museum Theory and Practice in Canada」 .
- Wasserman. Judith R.(1998). “To trace the shifting sands : Community, Ritual, and the Memorial Landscape”. 『Landscape Journal』 .
- Weil. Stephen E.(1996). 『Rethinking The Museum—and other meditations』 .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Yoneyama. Lisa(2004). “폐허로부터 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4(1).



## ○ 관련 법령

- 「2·28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개정안」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국가재정법」
- 「노인복지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바이에른 기록 보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시민모금금지법」
- 「여성발전기본법」
-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장애인 등 편의법」
- 「장애인복지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재정법」
- 「통계법」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 「울산노동역사관 운영 조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조례」

## ○ 웹사이트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홈페이지. [www.idf.or.kr](http://www.idf.or.kr)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식홈페이지, <http://228.or.kr/front/>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홈페이지, <http://library.daegu.go.kr>
- 5·18기념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518center/>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518archives.go.kr/>
-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938>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mpva/main.do>
- 남경대학살기념관, <http://www.19371213.com.cn/>;
- 다하우강제수용소기념관, <https://www.kz-gedenkstaette-dachau.de>
- 미국홀로코스트기념관 홈페이지, <https://www.ushmm.org>
- 민주인권기념관 공식홈페이지, <https://dhrm.or.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
- 부산광역시통합공지사향, <http://www.busan.go.kr/nbnews/1438175>
- 부산민주공원홈페이지, <http://www.demopark.or.kr/main/>
-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 오픈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archives.kdemo.or.k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heritage.unesco.or.kr/>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 <https://idph.kr/>
- 전라남도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reenjeonnam>
- 전라북도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jbgokr>
- 한국경제매거진 & 환경 잡앤조이, <http://jobnjoy.com/>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http://hpmmuseum.jp>
- 블로그, <http://blogs.chosun.com/>  
<https://geodaran.com/291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lka74&logNo=22098962104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https://blog.naver.com/tourpuzzle/221594221743>  
[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https://blog.naver.com/livewell_365/221345790305)



# 부록

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정 의견수렴 설문지
2. 유관 기관 관계자 회의일정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부지 선정평가표

연번	장소	유형	의의	평가				
				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주변 연계 활용성	합계
				5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20점
1	옛시민회관쉼터 (문화창작지대'틈' 포함)	부지 (토지+건물)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현장인 옛 시민회관 부지 (인천5·3민주항쟁 기념표지석 위치)					
2	공무원연금 인천지구매장	건물	인천'5·3민주항쟁'이 발생한 옛 시민회관 인근에 위치					
3	중앙공원 제8지구 일부(교통교육공간) 및 제9지구(인명여고 맞은편)	토지	인천의 대표적 도심공원, 야외 공원 녹지 활용 가능					
4	인하대 옆 공터 (SK스카이뷰아파트 맞은편)		80년대 인천지역 학생운동의 주축이자 인천'5·3민주항쟁'에 대거 참가한 인하대학교 인접부지					
5	인천터미널 근처 공원		인천 교통 중심지, 문화예술회관 인근 지역					
6	비룡쉼터 (인천보훈병원 뒤)		도심 속 시민 쉼터, 현재 외진 곳이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후 도심공원과 연계 활용 가능					
7	(구)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교통, 상업 중심지, 인천 아시안 게임 선수촌 부근, 산업시설 문화적 재생					
8	부평공원 (마군부대 애스컴 캠프마켓 맞은편 백운역과 인접)		과거 군부대가 위치했던 곳에 조성한 공원으로 인천(부평권)의 대표적인 시민쉼터					
9	월미공원		한국 근현대사에서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곳에 조성된 자연생태공원 및 역사공원					
10	북부근로자복지회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물	1987년 7·8월 인천지역노동자 대투쟁지역 인근에 위치					
11	기타 의견 (토지 및 건물)	※ 위의 부지 이외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에 적합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주변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소	추천 사유 및 의견				
		토지						
		건물						

## 부록 2. 유관 기관 관계자 회의일정

### ■ 유관 기관 관계자 회의

일시	기관명	참석자명	논의내용
2020.07.29	인천민주화운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민주화운동센터 오경종 센터장 이은주 사무처장</li> <li>연구진 김상원, 김창수, 전승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설문조사 관련 논의</li> <li>간담회 운영방안 협의</li> </ul>
2020.08.12	인천광역시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이창훈 시민인권팀장 황규상 주무관</li> <li>인천민주화운동센터 오경종 센터장 이은주 사무처장</li> <li>연구진 김상원, 김창수, 전승용, 곽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후보지 행정검토 관련</li> <li>부지 관련 추가 설문조사 논의</li> <li>토론회(공론회) 관련</li> <li>중간보고회 관련</li> </ul>
2020.08.27	인천민주화운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이은주 사무처장</li> <li>연구진 전승용, 곽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현황</li>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위 참여단체 및 활동내역</li>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관련 시민단체 연혁 및 활동</li> </ul>
2020.09.1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원학운 외 13명</li> <li>연구진 김상원, 김창수, 전승용, 곽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부 지 설문조사 결과 관련</li> <li>기념공간조성 유형 (신축, 리모델링) 관련 의견</li> <li>운영기본계획 관련</li> </ul>

## ■ 중간보고회/ 최종결과보고회

일시	기관명	참석자명	논의내용
2020.09.25	중간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박인서 정무부시장 신봉훈 소통협력관 손민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이창훈 시민인권팀장 황규상 주무관</li> <li>건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원학운, 이우재, 송경평, 오경중, 이은주, 이성수, 이광호, 권명복 이세구, 이형진</li> <li>연구진 김상원, 김창수, 전승용, 권지혁, 곽민지, 김태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요</li>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필요성</li> <li>기념공간 사례분석</li>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건립부지 검토</li> <li>기념공간 조성기본계획</li> <li>기념공간 운영기본계획</li> <li>운영방식검토</li> </ul>
2020.10.30	결과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이창훈 시민인권팀장 황규상 주무관</li> <li>건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원학운, 이우재, 송경평, 이세구, 김말숙, 오경중, 이은주, 이창숙, 이형진, 이명숙, 정세일, 강주수, 박남수, 강건일, 양성일, 이민우</li> <li>국회의원 박찬대</li> <li>연구진 김상원, 김창수, 전승용, 곽민지, 김태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요</li>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의 필요성</li> <li>기념공간 사례분석</li> <li>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건립부지 검토</li> <li>기념공간 조성기본계획</li> <li>기념공간 운영기본계획</li> <li>운영방식검토</li> <li>정책제언</li> </ul>